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RETARDED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LIVING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EUNG RYOUNG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Moon Sang Kwon

---

Seyoon Kim

February 15, 2004

**A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RETARDED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LIVING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EUNG RYOUNG LEE**

FEBRUARY 2004

정신 지체 아동을 위한 교회교육 연구: Living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려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이 승 룡

2004년 2월

## Abstract

A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Retarded Childre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ving Presbyterian Church -

Seung Ryoung Lee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a study on the handicapped, especially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 living around the Living Presbyterian Church in which I am involving as senior pastor. The main role and purpose of church is to mission; this mission is the supreme mandate of Jesus Christ, our Lord. I have ministered the Living Presbyterian Church with focusing on the handicapped, the mental retarded around the local church. This paper is the fruit and report of my ministry for the weak who are needed by the responsible christian.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part.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n the handicapped. I gave a definition of the handicapped and divided it with the category of historical and cultural analysis. Although the acknowledgment and attitude on the handicapped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exactly the creatures, 'Imago Dei' and the people whom we should include our community members.

The second part trea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ndicapped and church. I, especially, introduced the problems and responsibilities of church for the disable which are the elements of church ministry that many local churches have overlooked. Church should take charge of the issues of the disabled through enlarging the education and facilities and shifting the paradigm to them.

The third part introduces the church education for the mental retarded people. How can we, local churches, understand and educate them and induce them to the Church community. I indicated the combine education into one community as the

model of specialized instruction.

The fourth part is the concrete report of my ministry concerning on the disabled. In this part, I introduced the ministry for the handicapped: the churc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and programs for them in my church: 'Sarang community', 'Okhap mission committee', 'counsel center for the disable', and the program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to teachers.

I am sure that the ministry for the handicapped are essential for the local church and it is one of parts of mission that Church should do without stopping. I also hope that the ministry for the mentally retarded people could bear fruits more and more.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자에게 구원의 축복과 목사의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목사의 자녀로 목사가 된 나에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한 권태가 탈진으로 몰고 갈 즈음, 현재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신 유재원 교수님을 통한 도미의 길은 인생이나 목회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민족, 다문화,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접촉은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에 긍정적인 자극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재학 중 신학의 단맛을 알게 하였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였던 김세운 교수님께서 풀러신학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오로지 그분의 강의를 듣기를 소원하고 파사데나로 달려갔다. 목회학 박사 과정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교수님의 강의와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청량음료를 마신 듯, 그 동안의 모든 갈증이 풀리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영적 탈진의 회복과 오히려 목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영원한 나의 멘토이시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매일 바쁜 목회 일정에 과제는 물론 엄두도 못 내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해서 욕심냈다. 그러던 중 현재 시무 중인 교회에 청빙되어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목회는 도저히 공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학위에 대해서도 자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예 풀러신학교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사원 부원장이시고 총신신대원 동기이신 김태석 목사님의 격려가 포기하고 있던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그 격려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런 결과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특히 건강으로 어려운 나에게 동병상련의 위로와 권면은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정년 마지막 목회를 정리하시기에 바쁜 와중에도 약한 병골이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정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손수 약을 달여 하루도 빠짐없이 보살피시며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노부모님과 목회 길 17년을 한결같이 늘 웃으며 같이 걸어 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세 딸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지

혜와 건강으로 채우셔서 논문 잘 마치기를 기도해 주신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께 감사  
를 드리며 이 영광을 드리고 싶다.

2004년 2월

이 승 룡

# 목 차

Abstract .....	ii
감사의 글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장애인에 대한 이해 .....	5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	5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	5
2. 장애 원인과 장애인 분류 및 판별 기준 .....	8
가. 장애 원인 .....	8
나. 장애인 분류 및 판별 기준 .....	9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이해 .....	17
1. 서양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 변화 .....	17
2.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 변화 .....	22
제 3 절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	25
1. 한국의 문화가 보여준 장애인 .....	25
가. 가족중심주의 .....	25
나. 서열 문화 .....	26
다. 체면 의식 .....	27
2. 장애인 실태가 보여준 장애인 .....	28
제 4 절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 .....	32
1. 성경에 나타난 장애 사례 원인 .....	33
2. 구약에 나타난 장애인관 .....	35
3. 신약에 나타난 장애인관 .....	37



제 3 장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한계와 극복 .....	40
제 1 절 장애인 교회교육의 문제점 .....	40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인식 문제 .....	44
1. 교회와 장애인 선교 .....	44
2. 교회의 시설 .....	47
3. 장애인 교회 .....	48
제 3 절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 .....	50
제 4 장 정신지체아동의 교회 교육 .....	55
제 1 절 정신지체 아동의 이해 .....	56
1. 정의 및 분류 .....	56
2. 원인과 특성 .....	59
제 2 절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회의 태도 .....	61
제 3 절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회교육 .....	66
1.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회교육의 목적과 원리 .....	66
2.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	71
3.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주일 환경 .....	74
가. 정신지체아동들이 드리는 예배 .....	76
나. 정신지체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	78
다. 정신지체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과교육 .....	81
라.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 .....	85
제 5 장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	88
제 1 절 통합교육의 이해 .....	89
1. 정의 .....	89
2. 통합교육의 배경 .....	90
3. 결과 .....	92
제 2 절 주일학교에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	95

1. 통합교육의 당위성 .....	95
가. 성서적 입장 .....	95
나. 예배적 입장 .....	96
다. 인권적 입장 .....	97
라. 장애아동의 입장 .....	97
마. 비장애아동의 입장 .....	98
바. 장애아 부모의 입장 .....	98
사. 교회교인들의 입장 .....	99
아. 목회자의 입장 .....	99
2. 주일학교 통합교육의 방법 .....	100
가.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 .....	101
나. 통합교육의 다양한 형태 .....	107
 제 6 장 Living Church의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회교육 및 사회봉사프로그램 .....	110
제 1 절 장애아동을 위한 사랑부 태동 .....	111
1. 사랑부 태동 .....	111
2. 사랑부 조직 .....	112
3. 연간설교 및 연결학습계획 .....	113
4. 분리시 예배프로그램 .....	116
5. 통합시 예배프로그램 .....	120
제 2 절 지역장애인을 위한 옥합선교회 태동 .....	122
1. 옥합선교회태동 .....	122
2. 옥합선교회의 사역 .....	123
3. 사역 결과 .....	124
제 3 절 지역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	125
1. 지역 유일의 통합어린이 선교원 .....	125
2. 아동치료교사 교육원 .....	127
3. 아동상담소 .....	131

4 주말 방과후 교실 .....	133
5 사랑부 교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 .....	141
 제 7 장 결 론 .....	143
 부록 .....	145
 참고문헌 .....	175
 VITA .....	181

## 표 목 차

<표 1> 정신지체의 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 .....	58
<표 2> 요구되는 지원 강도에 따른 분류 .....	59
<표 3> 시청각 교육의 효과 .....	83
<표 4> Living Church의 연령별 장애인 분포 .....	113
<표 5> Living Church의 장애 유형별 분포 .....	113
<표 6> Living Church의 2004년 연간설교주제 및 연결활동 계획 .....	114
<표 7> Living Church의 사랑부 과제 .....	119
<표 8> 2003년 삼례지역 장애유형별 인구 분포 .....	122
<표 9> Living Church의 연도별 선교원 인원 총수와 장애아동 수 .....	125
<표 10> 반응분석에 참석한 장애아동 .....	130
<표 11> 나드리프로그램 커리큘럼 .....	139

## 제 1 장

## 서 론

전 국민의 사분의 일이 기독교인인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오인될 만큼 전 세계에서 교회의 성장과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 성장은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데에는 그렇게 큰 공헌을 한 것 같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 선 것이다. 이 자체는 국민 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정치 비리나 경제 비리, 장애인 시설 설립에 대한 집단 항의, 통합교육을 위한 시도에 따른 부모들의 아이들 집단 결석 항의는 물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전하다. ‘NIMBY’ 즉 ‘Not In My Back Yard’ 즉 ‘내 집 뒤편에는 안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다.<sup>1)</sup>

우리 국민이 보여주는 사회 질서나 시민 정신, 도덕이나 윤리의식 등의 실종은 비록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면이나 삶의 수준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일지는 몰라도, 아직 우리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 진입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에 극도로 팽창되어 있는 이기주의, 가진 자들의 횡포와 약한 자들의 설움, 도덕과 윤리의 혼란으로 빚어진 가치관의 혼란과 성적 타락 등에서 나타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우리나라의 정치수준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나 낙태와 미혼모 문제, 입양이나 고아와 노인 문제,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 사회 제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내에서 차지하는 교회의 위치와 비중을 가늠할 수 있

1) 한중식, “넘비 증후의 원인과 치유,” 한국 기독교와 윤리, 273-274.

게 된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의 바탕위에 세워졌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잘못된 유교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토양 위에 기독교적 사고와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 정의 및 평등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기독교인조차 잘못된 문화 전통 아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들-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기업 없는 자-보다는 기득권 편에 한국 교회가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지체장애아동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정신장애를 지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기껏해야 동정과 자선의 차원에서 감싸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했다.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통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단절당한 인간은 창세기 4장에서 '강자의 논리'로 사회를 조성해 나간다.<sup>2)</sup>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결코 장애인은 우리가 '강자의 논리'에서 동정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한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동정받기보다는 자신들을 보다 잘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의 영혼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음 받은 존재이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인식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복음 앞에는 민족, 종교, 사회, 성, 건강의 정도 등 모든 것이 편견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평균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며, 교회나 성도가 따라야 할 신앙의 완성이다.

이제 교회는 장애인 특히 장애인 가운데 교회교육에 1순위로 제외시켜 그들의 영혼에 운명마저 교회가 나름대로 결정해버린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하여 구원과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이 말한 것처럼 이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은사가 없이는 교회가 온전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이들이 받는 고난을 단지 위로하고 고통을 잘 참아 내도록 돕는

2) 아라이 다카시, 장애인 문제와 교회의 책임, 박천만 역 (서울: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3), 39-45.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술이 필요할 때 진정제나 파는 잡상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sup>3)</sup> 요즘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 귀족임을 자처하고 사명을 망각한 ‘노블(noble) 교회’는 아닌가?<sup>4)</sup> 장애인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자 의무가 있다. “값지 않으면 안 될 부채”(롬 1:14)다.<sup>5)</sup>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생각할 때, 교회야말로 참으로 장애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곳이라고 믿어진다.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곳이며, 또한 알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교회가 결코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한 노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이유는 오신 목적이 인류의 전인적인 구원에 있었고, 장애인들 역시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sup>6)</sup>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삶의 권리와 영적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다루셨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과거의 숙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살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에로 복귀시켜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장애인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완전히 긍정되었으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다.<sup>7)</sup> 주님의 남은 사역<sup>8)</sup>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 같은 오늘의 교회의 책임에 따라 지난 3년간 ‘Living Church’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선교와 특히 사랑부의 정신지체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내용과 결과를 토

3)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9).

4) 요즘 한국의 잘사는 특정 지역에는 ‘노블 베이비’ 붐이 일고 있다. 어린이 유아가 먹는 이유식이 맞춤 이유식으로 40만원에서 180만원을 호가하고, ‘노블 베이비 스포츠센터’에서는 승마, 크로켓, 롤러 등 한달 수강료가 200만원 정도이고, 아동용 전문가구점에서는 침대와 옷장 등 기본세트를 구입하면 428만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한다. 이 아이들이 자라 어떤 사람이 될까? 일반 소시민의 자녀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마치 이런 현상이 오늘 교회에 있지는 않는지? 너무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결코 장애인들이 다가 설 수 없는, 건들어서는 안 되는 장벽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5)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14.

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장애인 정책 세미나 (1992), 10.

7)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6), 49.

8)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마 28:18-20; 막 16:15; 행 18 등)을 말한다.

대로 본 논문을 기술했다고 한다. 특별히 본 주제 연구를 위한 자료가 많지 않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자하는 이유는 본 연구자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그 가운데 작은 경험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교회가 급히 회복해야 할 부분이기때문에 본 교회와 같은 규모의 여러 교회에 모델로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자 함이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본 교회의 정신지체장애 아동의 부서인 ‘사랑부’의 정신지체아동들로 제한하며 연구자의 관찰과 그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 정의와 분류 그리고 판별기준을 알아보고, 서양과 한국의 관점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성경적인 면에서 이해를 돕고, 3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한계와 극복에 대해,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과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연구해 보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필히 해야 할 인식전환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4장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의 교회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신지체의 분류, 정의, 원인, 특성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교회교육의 목적, 환경, 예배, 공과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 등 그들을 위한 주일환경을 다뤄보고, 5장에서는 요즘 특수교육에서 가장 적합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교회교육에서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그러나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지체아동의 경우는, 교회교육의 단계에 맞춰볼 때 출발은 분리나 부분 통합이 필요하며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6장에서는 최근 3년간 이루어진 본 연구자의 목회지인 ‘Living Church’의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신앙교육의 내용과 결과들을 토대로 교회가 정신지체아동들의 교육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일들을 통해 소형교회의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장애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신지체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먼저 그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상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해 장애인의 존재와 정의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유형 분류와 그에 따른 특성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의 그들에 대한 이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요즘 ‘장애’란 말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얼마 전만해도 이원론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선입견에 근거한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장애는 저주이고 그러기에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다. 근래에는 그런 극단적인 면은 조금은 완화된 듯 하나 아직도 그런 선입견에 의한 편견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障碍人)’ 그러면 ‘장애자(障碍者)’ ‘장해자(障害者)’ ‘장해인(障害人)’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왔는데, 굳이 차이를 밝힌다면 ‘장애(障碍)’는 선천성으로 ‘장해(障害)’는 후천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구분이었으나 사전적 정의는 큰 차이가 없다. 근래에 와서는 ‘장해인’이나 ‘장해자’ 보다는 ‘장애인’ 혹은 ‘장애자’를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불구’와 ‘장애’는 개념상 구별이 뚜렷하다. ‘불구’는 단순한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함께 사회, 문화적 조건까지 포함된 개념이다.<sup>9)</sup>

9)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 그리고 그 정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서 정의와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에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sup>10)</sup> 또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리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sup>11)</sup>를 보여 주기에 역시 단순한 정의가 어렵다.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박약인 권리 선언'에 이어 채택된 13항 목의 장애인 권리선언 제1항은 장애인에 관하여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자력으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3년에 재활법 제7조 6항에서 장애인을 "주요 생활 활동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sup>1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장애인 규정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의 결과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 받은 개인"<sup>14)</sup>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1990)은 좀 더 세분하여 열 가지로 분류하고,<sup>15)</sup> 국립교육연구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와 사회적 특성에서 소위 정상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성장발달의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 이탈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키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sup>16)</sup>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연구가인 사무엘 커크와 제임스 갈라

10)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5), 105.

11) Ibid., 7.

12) 보건사회부 기획실,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1993년 4월호, 25.

13)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106.

1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1991년 호, 34.

15)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s including deafness), 말, 언어 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s),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s including blindness), 심각한 정서장애(seriously emotional disturbance), 지체장애(orthopedic impairments), 자폐(autism),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기타 건강상의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s),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등: Ibid., 34 참조.

16) 김흥규, 장애인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89), 17.

거(Samuel A. Kirk and James M. Gallagher)는 “장애아는 지적특성, 감각능력, 신경 근육, 신체적 특성, 사회, 정서행동, 의사소통능력, 복합장애 영역에서 평균 또는 정상 아동으로부터 그 벗어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최대의 능력으로 발달하기 위한 교육 실제의 수정이나 특수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sup>17)</sup>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6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장애개념의 국제 분류(ICIDH)를 채택했다.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불이익 또는 불리(handicap) 등으로 분류하여 정의된다<sup>18)</sup>. 유엔의 통계국에서 인구조사와 설문조사를 위한 장애분류표의 국가별 분류에 사용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다.<sup>19)</sup>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1장 2조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sup>20)</sup>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진흥법(1994년)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 7가지 유형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sup>21)</sup>

이처럼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입장이나 분야에 따라서 혹은 문제 접근이나 해결 또는 정책에 따라서 대상의 폭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는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22)</sup>.

17) Samuel A. Kirk and James M. Gallagher,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6), 5.

18)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조사 연구, 1990년 3월호, 22.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이나 이상을 말하고, 기능장애는 인간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말하는 것이며, 불이익 혹은 불리는 손상이나 기능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으로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회적 역할 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WHO, Disabilit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1981), 1-14 참조).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손상은 전문가적 결정으로써 증후나 증상, 검사실 소견 혹은 심리적 검사에 입각해서 평가된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나 의의 있는 행동상의 변화를 말하며, 기능장애는 손상으로 초래된 사회적 혹은 직업적인 기능수준의 변화라고 정의한다(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1984), 7-16 참조).

19) 유엔 인권위원회 편, 인권과 장애, 이익섭 역 (서울: 한국DPI, 한국장애인협회체육회, 1992), 43-44

20) 법제처 편,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38권 (1993), 863.

21)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한국 장애인 연합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장연, 1998), 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크게 5가지로 대별하여 범주를 정하고 분류하고 있다.<sup>23)</sup>

## 2. 장애 원인과 장애인 분류 및 판별 기준

### 가. 장애 원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경우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전적(선천적)이든 아니면 환경적(후천적)일 것이다. 유전성의 장애란 사람이 개체로 형성되기 이전, 즉 임신 전 이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조건이나 문제에 의하여 출생시 또는 출생 후에 나타나는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염색체 이상이나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적 변화나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모의 염색체가 방사선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중금속 물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sup>24)</sup>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과거에는 여기에 속한 장애 원인이 90퍼센트 정도였으나 최근에 의학의 진보에 의하여 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대비로 유전에 의한 장애 발생은 5-5.5퍼센트 수준 정도라 한다.<sup>25)</sup> 아이가 태내에 있는 동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태아나 산모의 영양 상태, 심리 상태, 약물 중독, 질병 감염(AIDS, 매독 등) 및 기타 충격 같은 물리적인 여건 등이다.<sup>26)</sup>

22)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장애인 등급이나 기준이 보건사회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따라 다 다르다. 장애인 복지법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의 기준 및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이 장애인의 분류 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있음에 비해 그 분류가 덜 구체화 되어 있다.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외형적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신경, 정신계, 심장계, 생식계, 악성종양 등을 모두 장애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음성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하겠다(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1992, 34 참조).

23) 한국장애인연구소, “아름다운 예배 만들기,”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서울: 한장연, 1998), 13.

24)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17-18.

25) 김일태,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7.

26) 산모가 풍진이나 매독 등의 성병을 앓았을 때 태아가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더욱 큰 영향을 준다. AIDS는 최근 들어와 선천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운경,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장연, 2003), 40 참조.

환경적(후천적) 원인은 아이가 출생시 분만실의 환경에 의한 영향이나 출생 후에 생의 모든 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장애 발생 원인을 말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분만실의 환경이 출생 후 아이의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들이 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시력에 손상을 주고, 아이가 분만되자 곧 거꾸로 들고 등이나 엉덩이를 때려 울리는 행위는 유아기 경기의 주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sup>27)</sup> 출생 후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 역시도 만만치 않다. 대기 및 수질의 오염, 농약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재배된 음식의 영향,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병,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 및 자연 재해 등이 원인이다. 이런 원인 중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은 43퍼센트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고, 자동차의 급속한 파급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10퍼센트가 영구 장애를 입고 있다.<sup>28)</sup>

위에서 살펴본 장애 원인들을 보면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 노력하는 만큼 장애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전적 원인도 이제는 많은 의학적, 과학적 발전으로 많은 부분의 예방이 가능해 졌다. 환경적인 원인도 개인이나 정부가 보건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 나. 장애인 분류 및 판별 기준

세계보건기구가 1976년에 세 가지 장애개념의 국제 분류를 채택하여 장애인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일률성을 주고 국제적으로 기준을 표준화 하는 등 기여를 하였고 특히 통계적 목적에서는 그 유용성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리의 정의 요소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와 상당한 중복이 있고, 또 분리의 변인이 되는 장애 정도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못하고 장애 등급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 영역에 분리와 손상의 경계를 짓는 데 문제가 있다.<sup>29)</sup> 종래는 생물학적, 기능적인 장애(impairment)가 곧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이어졌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

27) Predrik Revoier, 폭력 없는 탄생, 주정일 역 (서울: 샘터, 1992); 장애인운동위원회 편, 1993년 장애인 주일 자료집, 1993, 27; 1985년 당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조사 바로는 장애 원인 중 출생 전 원인이 6.9퍼센트, 출생시의 원인이 3.0퍼센트로 보고 있다.

28) Ibid., 29.

29) 유엔 인권위원회 편, 인권과 장애, 43-44.

이나 재활, 그리고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으로 사회적 불리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장애인 분류는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크게 5가지로 대별하여 범주를 정하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다분히 의학적인 분류로써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현상 장애 결과로 판별함으로써 특수교육이나 재활교육 그리고 재활선교에 한계가 있다.<sup>30)</sup>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분류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이다. 이들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나 한 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골지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한 다리를 리스 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sup>31)</sup> 원인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뇌성마비나 간질 등을 유발하고 근골격계 이상으로는 내반족(clubfoot), 소아류마티스관절염, 진행성 근위축증이 올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를 정해놓고 있다.<sup>32)</sup>

둘째,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은 두 눈의 시력을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이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며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혹은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이다.<sup>33)</sup> 미국에서는 맹과 약시로 나누어 구분한다. 법적 맹인은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로 규정한다. 교정 후 더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상이라도 20/70 이하이면 약시로 규정한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약시(partial sightedness)라는 용어는 상용되지 않으며, 저시력(low vis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30)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1998, 13-14.

31) Ibid.

32) 이소현 외,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2001), 223.

33)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3-14.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약시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34)</sup> 원인으로는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녹내장, 백색증, 안구진탕증, 망막 박리, 망막 색소 변성, 사시, 시신경 감퇴, 임산부의 감염 등으로 보고 있다.<sup>35)</sup> 특히 중도장애의 경우는 신체의 안정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상실-신체의 완전함의 상실, 남아있는 감각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 환경과 현실적인 접촉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빛으로 인한 혜택의 상실-과 기본적인 기술의 상실-이동 능력의 상실, 일상생활의 여러 기술의 상실-과 의지전달능력의 상실-문서에 의한 의지전달 능력의 상실, 대화에 있어서 의지전달 능력의 상실, 정보의 진보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실-즐거움을 보는 것이나 미적인 것을 보는 관상 능력의 상실, 직업, 경제적 안정의 상실, 전인격에 일어나는 상실 즉 인간으로서의 독립심의 상실, 사회 존재로서의 상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을 상실, 전인격적 구조의 상실 등 상실감이 크다.<sup>36)</sup>

셋째, 청각장애인이다. 이들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이거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말한다.<sup>37)</sup> 청력의 상실이나 이상의 정도에 따라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는데, 농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90데시벨 이상의 손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난청은 대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잔존 청력이 청각을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즉 청각이 남아있어 보청기를 착용하든 안하든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보통 24데시벨 이상 90데시벨 이하의 청력 손상의 경우를 말한다.<sup>38)</sup>

34) 이소현, 특수아동교육, 195-196.

35) Ibid., 198-200.

36) 민은식 외, 장애자와 교회 (부산: 도서출판 광야, 1987), 39-41.

37)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3-14: 청력은 음의 강도(dB: deci Bell 데시벨)와 고저(herz나 cycles)에 대한 청능학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청력의 손실치는 음의 압력(dyne/cm<sup>2</sup> 단위로서 단위 면적에서 받는 음의 압력)을 나타내는 로그리즘 시스템인 데시벨치에 의해 청력계(audiometer)로 측정한다. dB이란 음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상대적인 비율척도 단위인데, 음량은 물리량이므로 이를 표시할 때는 보통 음압의 단위인 bar 또는 dyne per cm<sup>2</sup> (dyne/cm<sup>2</sup>)로 쓰는데 이것을 음의 강도(intensity)라 부른다. 이 강도라는 물리량에 대하여 감각(sensation)으로써 어느 정도의 크기로 감각되는가로 표시하는 것이 음의 크기이며 이것을 dB 단위로 표시한다. 원영조 외, 청각장애아교육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90), 10 참조.

청각 장애의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드문 경우 외이의 손상인 귀바퀴나 외이도가 형성되지 않거나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외이염(external otitis), 고막이 파열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중이의 이상은 외이의 경우보다 좀더 심각한 청력 손실을 가져온다. 농보다는 난청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소골의 기계적 작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며 의학적 처치로 교정이 가능하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한 중이염을 아동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흔히 발생된다. 치명적인 청각장애의 원인은 내이의 손상이다. 그 밖에도 뇌막염이나 뇌염, 세균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당하는 경우이며 뇌의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귀의 구조 중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에 따라 청각장애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전음성 청각장애(conductive hearing loss)는 외이나 중이의 이상으로 인해 내이에까지 도달하는 소리의 양이 줄어들어 일으키는 장애로 주로 중이염이 원인으로 의학적인 처치로 곧 없어지는 일시적인 장애이다. 감음신경성 청각장애(sensorineural loss)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전음성보다 청력손실 정도도 심하고 예후도 좋지 않다. 풍진, 뇌막염, 홍역, 수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RH 부적합, 또는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 초래된다. 노화현상이나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음량을 최대로 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오래 들음으로 인해 이러한 난청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의학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안 되기에 재활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sup>38)</sup>

청각장애가 다른 신체적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동기능면에서 평형감각이 뒤떨어진다. 언어 습득의 제한과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에서나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적응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언어 능력 부족은 개념 학습에 문제를 발생시켜 추상적 개념이나 도덕적, 종교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sup>40)</sup> 개념 형성의 부족은 지능이나 지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결국 이들은 사회적 접촉을 꺼리게 되고 사회 성숙도가 떨어지는 등 사회적응에도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오로지

38) 김영환 외, 특수교육학해설 (서울: 학문사, 1986), 19; 이소현 외, 특수아동교육, 172.

39) Ibid., 174-175.

40) 송정혁, "청각장애자를 위한 교회교육의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7), 15.



시각으로만 판단하려는 성향은 심리나 성격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자기중심성, 창의성 결핍, 경직성, 내적 통제력 결핍, 감정이입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sup>41)</sup>

넷째, 언어장애인이다. 이들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나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sup>42)</sup> 언어생활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너무 차이가 심해서 주위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게 하거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 불편과 부적응을 체험하게 되는 상태로<sup>43)</sup> 규정하고 있다.

원인은 혀, 입술, 치아, 후두 등 음성기관의 고장, 청각기관의 고장, 뇌의 고장, 지능발달의 지체, 신체발육의 이상, 정서의 불안정, 언어발달의 지체,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이나 언어 환경 등이 언어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언어 장애의 종류는 구음장애, 음성장애, 말더듬, 언어발달지체, 구개파열, 뇌성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청력 손실로 인한 언어장애, 실어증 증으로 분류한다.<sup>44)</sup>

다섯째, 정신지체인이다. 이들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sup>45)</sup> 미국 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Deficiency)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1992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는 현재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성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교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sup>46)</sup>

정신지체를 규정하는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

41) 안교성, "장애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 교회교육, 1991년 4월호, 57.

42)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3-14.

43) 김흥규, 장애인 교육의 이론과 실제, 51.

44)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 28.

45)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3-14.

46)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53.

적 기능<sup>47)</sup>과 적응 행동상의 장애<sup>48)</sup>가 동시에 존재할 것과 이러한 두 가지가 모두 발달기간인 18세 이전에 일어날 경우를 말한다는 점이다.<sup>49)</sup> 그러나 이들의 발달이 영원히 중지된 것은 아니다. 단지 느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정상인들과 똑 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나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정신지체를 말하는 용어들은 다양하다. 셀린(D. F. Sellin)은 정신지체를 묘사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정신지체(mentally retarded)는 태어나면서부터 잠재능력 발휘에 곤란을 겪는 지적 능력상의 결함이 있거나 측정된 지능과 사회적응 행동이 연루된 4가지 수준(mild, moderate, severe, profound) 등을 고려한 용어, 정신박약(feble-mindedness)은 영국에서 유래된 용어이지만,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신체적인 준거 및 잠재적 성인의 성취력을 강조한 용어, 정신장애(mentally handicapped)는 약정된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 못하는 자를 묘사하는 법률적인 용어로 미국에서는 주로 학생층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 저능아동(mentally subnormal)은 세계적으로 또는 UN에서 주로 쓰이는데 실제 성취력과 연령에 강조하는 기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묘사하는 용어, 정신손상(mentally impaired)은 행동 상의 명시된 출처로서의 인지과정을 강조하는, 어느 면에서는 좀 의미가 모호한 용어, 정신결함(mental deficiency)은 유전, 정신질환, 뇌 손상에 의한 지적능력 상의 결함(intellectually defective)이 있는 사람, 정신발육지체(oligophrenia)는 정신박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sup>50)</sup>.

정신지체인의 분류는 미국정신지체협회(AAMR)가 1973년에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로 구분하였고, 1992년도에 개정된 분류에서는 정신지체아에게 요구되는 지원(support)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간헐적

47) 지능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지능지수(IQ)로 구분되는데, 정신지체의 경우 70 미만인 경우로 보고 있다: Rober P. Ingalls,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김정휘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87), 26 참조.

48) 적응기술에 대한 관심은 1970년에 미국에서 보고 된 "6시간 정신지체아"에서 촉발된다. 학교에 있는 6시간 동안은 정신지체아로 분류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집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정신지체로 분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와 지능검사만으로 정신지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55 참조.

49) Ibid.

50) D. F. Sellin, Mental Retardation: Nature, Needs and Advocac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9), 4.

(intermittent) 지원, 제한적(limited) 지원, 확장적(extensive) 지원, 전반적(pervasive)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간헐적 지원은 필요한 때에 기초한 지원, 간헐적 성격으로 특징되며 개인은 항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인생에서 전이 시기 동안 단기간의 지원, 예로 직업 상실 혹은 심각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간헐적 지원은 고강도 혹은 저강도로 제공되어진다.

둘째, 제한적 지원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그러나 간헐적인 것이 아닌 시간제한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예로 시간제한적인 고용훈련, 혹은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이적 지원제공 등이다.

셋째, 확장적 지원은 적어도 몇몇 환경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으로 특징되며 시간제한적은 아니다. 예로 장기간의 가정생활 지원을 들 수 있다.

넷째, 전반적 지원은 항구성과 고강도의 지원으로 전반적 환경들에 걸쳐서 제공되며 잠재적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것으로 특징된다. 전반적 자원이란 전형적으로 확장적 또는 시간제한적 지원보다 더 많은 수의 요원과 개인에게 더 개입적(intrusive)일 수 있는 지원을 포함 한다.<sup>51)</sup>

정신지체의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대체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는 질병과 두뇌손상<sup>52)</sup>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며, 경도의 경우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sup>53)</sup>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으로 염색체 수가 정상인은 46개이나 이들은 21번째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가 됨으로써 이를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이다. 정신지체인의 5-6퍼센트가 이로 인한 것이다. 또는 유전인자의 전위(translocation)현

51)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57-59. 일반적으로 분류기준은 IQ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경도정신지체는 IQ가 대략 55-70, 중등도는 40-55, 중도는 25-40, 최중도는 25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에 3단계로 구분하던, 교육가능급, 훈련가능급, 요보호급의 분류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Rober P. Ingalls,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26.

52) 두뇌 손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산모가 풍진, 매독을 앓았을 때, 특히 임신 초 3개월 내에 풍진에 걸리면 치명적이다. 풍진이나 AIDS는 머리가 작고 끝이 뾰족한 소두증(microcephaly)을 초래한다.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61-62.

53) Ibid., 59-60. 현재 90퍼센트 이상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알려진 요인으로는 200여 종에 달한다.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 (서울: 여수론, 1994), 107.

상으로 21번째 염색체 일부가 다른 염색체 쌍과 자리를 바꾸는 현상, 혹은 모자이시즘(mosaicism)으로 수정된 후의 초기 세포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 21번째 염색체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현상 역시도 다운증후군을 유발한다. 요즘 조기교육이나 특수교육의 발달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약체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은 23번째 성염색체의 X 염색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정신지체와 함께 머리가 크고 얼굴이 길고 좁으며, 이마와 턱이 약간 튀어나오고, 코가 넓은 등의 신체적 이상을 보인다. 산전의 요인으로는 풍진과 매독, 약물중독, RH인자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시에는 과정에서 난산, 가사상태, 조산, 인공분만 등이며, 산후의 요인으로는 뇌염, 뇌막염 같은 고열성 질환과 불의의 사고 등을 들 수 있다.<sup>54)</sup> 이들의 출현율은 약 1퍼센트로 본다.<sup>55)</sup>

정신지체의 특성은 주의력과 기억력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배우는 모방학습, 우연학습의 능력도 부족하다. 학습동기가 높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sup>56)</sup> 초인지에 있어서도 낮은 능력을 보인다. 초인지란 특정과제를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와 효과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57)</sup>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은 거의 모든 정신지체인에게 볼 수 있고, 언어를 통해 자기표현이나 주변환경의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때는 문제행동으로 표현하곤 한다.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낮아져서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up>58)</sup> 그러나 이들에게 성적 욕구나 정서적 반응은 정상적인 경우가 많다.<sup>59)</sup>

이같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는 다분히 의학적인 분류로써 장애발생원인에 대

54) 김일태,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9-11;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60-61.

55) 구본권 외, 특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3), 162.

56) 이들은 누적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수동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24.

57) D. P. Hallahan & J. M. Kauffman,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4), 14.

58)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64.

59) Gene Newman and Joni Eareckson Tada, An God's Children: Ministry to the Disabled (Michigan: Eerdmans, 1981), 43-45.

한 분석 없이 현상 장애결과로 판별함으로써 특수교육이나 직업재활 그리고 재활선교에 한계가 있다. 내부기능장애인이거나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뇌손상장애인(TBI: Traumatic Brain Injury), 근이양증, 자폐증 등 고도산업사회에서 양산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바른 개념조차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장애 영역에조차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좁고, 한정적인 분류로 인해 재활을 위해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직업적, 선교적 중증 장애인은 소외되고 의료적 관점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에 초점이 모아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sup>60)</sup> 특수교육진흥법상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지닌 아동으로 나눠 정의하고 있다.<sup>61)</sup>

##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장애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시각과 태도가 어떤 진화를 걸쳐 왔는지를 말해주며 그들에 대한 바른 조율을 위해 절대음 같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서구의 역사는 장애인에 대한 유기, 말살, 학대로 요약되는 고대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의 기독교 이념의 자선적 성격의 보호주의와 18-19세기의 시설에 분리하여 격리하던 시기, 20세기 후반의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sup>62)</sup> 배타적, 부정적인 견해였던 것이 자선적, 긍정적인 견해로 변천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

### 1. 서양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 변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는 것을 악령이나 마귀가 붙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도시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착보다는 유랑생활을 하던 환경이라 부양능력에 도

60)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4.

61) 이소현,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20.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①-⑥까지는 우리와 같고 자폐, 외상성 뇌손상, 기타 건강상의 장애, 특정학습장애 등은 우리와 다르게 포함하여 열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Ibid. 참조.

62) S. A. Kirk & J. G. Gallagher,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13.

음이 될 수 없는 병약자나 노약자는 유기 되었으며, 부족이나 공동체에 무익하거나 심지어는 유해한 존재로 취급하여 장애인들을 박해하거나 추방하고, 재난이 생기면 장애인을 처형하기도 하였다.<sup>63)</sup>

그리스 로마시대에 장애자는 식충(食蟲)이라고 하여 산야에 버리고 자살을 방임했으며 진(眞), 선(善), 미(美), 성(聖)을 가치기준으로 존중하였고 특히 스파르타에서도 미과 건강을 가치기준으로 보고 장애인을 굶사등이, 난장이, 절름발이, 맹(盲)자, 농아자 등의 표현으로 조소하였다.<sup>64)</sup> 출생시에 뚜렷한 장애로 보이는 아동을 광장에 목을 베어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고, 출생 직후 건강하였으나 3세 이전에 장애를 수반한 아동의 경우 살해를 허용했다.<sup>65)</sup> 스파르타의 리쿠르드 법전에는 장애인과 허약자를 산중에 유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66)</sup> 심지어 고대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부정적 장애관<sup>67)</sup>을 가졌을 정도로 그 시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과 미신에 의해 인격을 말살한 학대, 조롱, 유기에 대상 정도로 취급했다.

니케아 종교회의(325년) 이후 기독교의 발전과 급속한 보급으로 기독교의 자선 정신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에 대해 자선적, 동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의하면 청각장애를 농과 농아로 구분하고 청력손실 시기에 따라 선천농과 후천농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 한계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청각장애의 이해에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sup>68)</sup> 4세기경 성 니콜라스(St. Nicholas)와 크리스소스톰(St. Chrysostomus) 등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극빈자, 병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적어도 방 하나씩을 만들도록 하여 보호를 위한 자선 시설이 산발적으로나마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1, 12세기에는 독일의 바바리아(Bavaria)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맹인을 위한 구세원 숙박소, 병원 등이 세워졌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루이 9세에 의해 1260년 십자군 전에서 맹인이 된 군인을 위해 설

63)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108-109.

64) 대한 장애인 복지회, 선진복지정책 (서울: 대한 장애인 복지회, 1988), 164: 성경에서도 인간의 외모나 미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워서 연애했다 (창세기 29장 17,18절)는 성서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6) 참조.

65) Ibid.

66) 조운경,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30.

67)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230.

68) 김영환 외, 특수교육학해설, 22.

립된 군인원은 맹인을 위한 최초의 공적 노력의 결과물이다.<sup>69)</sup>

중세에는 전 세계를 통하여 종교적으로 크게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이 그전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보호를 받아, 어떤 지역에서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귀족의 총애와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들의 일탈된 행동의 원인이 점차적으로 사탄의 영향을 받아 악마가 들린 것으로,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사상이 강하게 퍼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고대와 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종교개혁시대에 대표적 인물인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지도자도 무능력자를 악마가 붙은 자라 할 만큼 과학적 무지와 미신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sup>70)</sup> 이 시대의 장애인들은 무능력자, 귀찮은 존재자로 취급되어 천시, 방임, 학대, 유기, 조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적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sup>71)</sup>

근대사회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기계화, 대량생산의 시대로 실용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인간의 유용성, 생산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를 노동 생산적인 입장에서 영속적인 결손노동력으로 보았다.<sup>72)</sup> 개인책임이 강조된 사회였기에 장애로 비롯된 문제는 모두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다. 이 시대의 장애인관 역시 근대사회 이전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고,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모습만 달랐지 존재했다.

14-16세기에 전개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 사상의 등장과 종교 개혁의 추진,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장애를 미신과 편견에 의해 정의되어 온 것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 전환의 시작을 가져왔다. 일부의 선각자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성과 가능성은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이 때까지 사회 전반의 의식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청각장애인을 관찰하여 독화의 기능을 분석하였고, 독일의 인문주의자 아그리콜라(R. Agricola)는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은 감각가능의 대치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에 따

69)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85), 23.

70)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231.

71) 송준만 외, 특수아 지도 (서울: 교문사, 1997), 27.

72) 조운경,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31.

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sup>73)</sup>

16-17세기에 정신지체 장애는 미친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분리하게 되었다. 17세기에는 더욱더 일반인과 분리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차별하며 소외시키고 격리 보호했던 것에 치증해, 유럽의 여러 곳에서 이들을 수용한 수용소가 출현 한다. 18-19 세기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유럽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베이컨(F. Bacon)이 인간에 대한 선입견 일소를 주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미신 등을 타파하고 전통적 장애인관을 시정하는 사상적 기반을 놓자<sup>74)</sup> 프랑스 의사인 피넬(Pinel)은 정신병에 관심을 갖고 정신병자나 백치에 대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기여하나 치료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치료를 분리 수용으로 보게 된다. 분리수용시설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시설규모는 커지고 재정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적 통제가 증가하고, 가치절하의 인간적 규제 이를테면, 개인소유물 불허, 시설복 입히기, 개인에게 이름 대신 번호나 꼬리표 부착, 시설 문 잠그기, 창문에 창살설치, 주변 세계가 보이지 않도록 벽 높이기 등이 심해졌다. 조직화된 치료 프로그램은 쇠퇴되고 결국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은 더욱 많아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했다. 당시의 현실은 시설 확장과 수용소 건물 신축에 치증하게 되었다.<sup>75)</sup>

피넬(Pinel)과 경험주의 철학자 로크(Locke)의 영향을 받은 이타르(Itard)는 아비론의 늑대 소년(Wild Boy of Aveyron)인 빅터(Victor)를 연구해 완전한 학습 불능이라고 규정된 사람조차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습 가능론과 교육 가능론을 주장하게 된다.<sup>76)</sup>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1760년 파리에서 미가엘(C. Michael)에 의해 청각장애인 학교가 세워져 종래의 수화를 문법체계에 따라 조직화하여 수화법이라는 교육방법을 확립하였다. 그 이후에 시사드(Sicard)가 계승하여 유럽 각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77)</sup>

영국은 1783년 빈민 청각장애인의 부양과 교육을 위해 런던에 브라이드우드(T. Braidwood)에 의해 청각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sup>78)</sup> 미국은 1817년에 홉킨스에 의해

73) 김영환 외, 특수교육학 해설, 23.

74)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36.

75) 조운경,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31.

76) 김영환 외, 특수교육학 해설, 24.

77) Ibid.



세워져 무상으로 교육이 시작되었고, 1869년에 호레스 만(H. Man)이 보스턴에서 최초의 통학제 청각장애인 학교를 세웠고, 1900년까지 10여개의 통학제 학교와 22개의 기숙제 학교가 세워졌다.<sup>79)</sup> 19세기 말 독일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난청, 약시, 언어장애,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분화된 특수교육의 체제가 이루어졌다.<sup>80)</sup> 그러나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장애인에 대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모습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칼텔(Caldell)은 20세기를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잊어버리고 감추는(forget and hide)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선별하고 분리하는(screen and segregate)시대를 걸쳐 발견하고 도와주는(identify and help)시대로 발전해 간다고 표현 한다.<sup>81)</sup> 이때 장애인에 대한 지능측정(1905년, 비네-시몬 지능검사)에서 과학적 방법이 적용 되었고, 공립학교에 학습장애, 시각손상, 청각손상 등 특수학급이 편성되었으며, 이미 있던 정신병원들에 대한 개혁과 1950년대 정신지체아동의 부모회가 발족 되어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sup>82)</sup> 그러나 여전히 일반아동을 위한 공교육에 비하면 특수교육은 아직도 법적 제도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며<sup>83)</sup> 장애인에 대한 공포나 분리가 여전하여서 유전적,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결혼금지, 강제불임 관련 법안이 통과하여 인권유린이 지속되었으며, 분리된 특별보호 시설이 증가하였다.<sup>84)</sup>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인본주의가 강하게 대두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이

78) Ibid., 25.

79) Ibid.

80)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136.

81) 이소현,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특수교육논총, 1997년 12월호, 37-60.

82) 1950년대 초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 의해 전국 300여개의 정신 병원을 조사, 평가해 치료적 중재의 부족과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정신지체아동의 부모회가 창설되어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모임은 모든 연령의, 모든 장소 -가정, 공동체, 시설, 공립 사립학교, 종교재단 학교 등-에서의 정신지체인의 일반적 복지를 도모하려는 운동이다; J. M. Kauffman,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Boston: Prentice-Hall, Inc., 2001), M. Beirne-Smith, R. Ittenbach & J. Patton, Mental Retardation (Boston: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2002).

83)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138.

84) J. M. Kauffman,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21.

해가 시작되었다. 이전처럼 장애인들을 의학적이거나 표면적 체제에 의하여 구분, 분리하지 않고 실질적 현상과 효과에 더하여, 정규학습에 통합하고 개인별로 확인된 교육적 필요에 입각하여 교육하는 통합체제의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이 체제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행정가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가정에는 모든 장애인이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분리해질 수 없으며, 교육에서의 제한적 환경이 극소화되고, 개인 요구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권리로서 이러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85)</sup> 이때부터 생태학적 접근이 등장하고, 환경과 학습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이론이 지지되었다. 이상행동을 내부의 질환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고,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대처능력과 연합하여 심리적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sup>86)</sup>

장애인에 대한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구조를 보면 아직도 차별의식에 근거한 동정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태도 역시 위장된 편견이나 차별로 그들을 바라본 고대 이후의 전통적인 부정적 장애인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재활은 물론 영적 재활을 포함한 “전인적 재활”(holistic rehabilitation)로의 접근이 전제되어야만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장애든, 어느 정도의 장애든 불문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위장된 차별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2.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 변화

서구의 장애인에 대한 역사를 통한 관점은 매우 긴장감을 느낄 만큼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사의 기록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삼국시대에 병자와 엄격한 구별 없이 장애인을 구휼했던 것을 볼 수 있다.<sup>87)</sup> 고

85) 윤점룡, “한국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장애우대학자료집, 1994년, 110.

86) 조운경,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33.

려시대에 와서는 불교의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장애인 구제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제도화된다.<sup>88)</sup> 성종 7년(988년)에 재면법(災免法)이 제정되어 이재민에게는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의료구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제를 하였다. 성종(982-1009년)때 의학교육기관으로 대의감(大醫監)이 설립되고 부속 약국을 설치하여 의료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고려 광종 14년에는 제위보(濟危寶)라는 최초의 재단법인격의 구제기관이 설립되고, 예종 4년(1110년) 구제도감(敕濟都監)은 빈민, 기민, 병약폐질자에 대한 관립 구제기관의 기능을 감당했으며, 충목왕 4년(1348년)의 진제도감도 구빈구료의 기관이었다.<sup>89)</sup> 조선조 세조 12년(1425년)에 특수교육기관인 관상감(觀象監)이 최초로 세워져 이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시작되었고 부설로 운명, 길흉,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인 명고학에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과시와 명과명, 관현명의 발탁에 응하여 주로 잡직 기술관인 종9품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 임용하도록 되었다.<sup>90)</sup>

구한말 개화사상의 보급으로 신교육운동이 전개되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sup>91)</sup>, 고종 31년(1894년) 미국 선교사 부인이자 의사인 홀(R. S. Hall)에 의해 평양에 여맹(女盲)학교가 설립되어 시각장애아동 보육 교육이 시작된다.<sup>92)</sup> 이어서 고종 34년(1897년)에 장로교 선교사 모퍼(Mrs. Moffer)가 평양에 男盲학교를 설립하고, 영국인 패쉬(Mrs. Pash)와 페리(Pery)가 서울에 맹아보호소를 세운다. 1909년 이민인을 홀(Hall) 여사가 중국 땅 “체후”에 유학시켜 시각장애인 교육방법을 연수하게 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13년에는 맹아부가 설치되어 공적 특수교육이 시작된다. 1923년 맹아부 교사인 박두성에 의해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점자가 시작된 후 1926년 6점 한글점자를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안한다.<sup>93)</sup> 1934년에 맹아보호시설 2개소와 장애아 특수학교로서 평양맹아학원을

87) 이 시대의 진대(賑貸)사업이 빈민구제사업으로 유지 발전해 왔다. 이 사업은 곡식을 비축해서 춘궁기나 재해로 인해 지해빈민이 발생할 때 대여하여 가을이나 풍년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시대 크게 발전한 것을 보면 빈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구제가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권도용 외, 현대 장애인 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1997), 59.

88) Ibid.

89) Ibid., 59-61.

90) 황원영, 특수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7), 26.

91) 문교부, 특수교육백서 (서울: 동부, 1981), 16.

92) 김영환 외, 특수아지론 (서울: 학문사, 1986), 22-23.

93) Ibid., 28-29.

설립한다.<sup>94)</sup> 1937년에 서울 동대문 초등학교에 신체 허약아 양호학급이 세워지고<sup>95)</sup>, 1938년(소화 13년)에 원산맹아학원을 설립한다<sup>96)</sup>. 1945년 제생원(濟生院) 맹아부가 국립서울맹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6년제 초등교육 과정으로 하면서 보건사회부에서 1948년에 문교부로 관리가 이관되고, 서울맹아학교와 서울농아학교로 분리된다. 1947년 이영식 목사에 의해 대구맹아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대구영화학교와 대구광염학교로 분리되어 있다.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1950년에는 후생시설의 총수가 153개소에 수용인원이 1만 469명으로 확대되었고, 1955년 2월 7일 법률 제23호로 독립되었던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했고 1956년까지 모자원 62개소, 영아원 32개소, 육아원 396개소, 요양원 37개소로 증가한데 비해 장애인 시설은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15개소, 맹아자(盲啞者) 시설 7개소에 불과했고, 특수교육도 1960년대 이전에 인가된 특수학교 9개교(초등학교 2개, 공립학교 1개, 사립학교 6개)에 불과하며 1960년도에 인가된 학교가 4개교였다.<sup>97)</sup> 1964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에 소아재활원 초등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인 학교로, 1966년 대구 보명학교가 최초의 정신지체 학교로 설립되었다.<sup>98)</sup>

1971년 대구 칠성 초등학교에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1974년에는 각 시군에 1개 학급씩 정신지체아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 1977년 말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됨으로써 특수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sup>99)</sup>. 1999년 10월 현재 106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중 국립이 3개교, 공립이 31개교, 사립이 72개교이다.<sup>100)</sup> 사립학교가 전체 대비 70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94) 권도용 외, 현대 장애인 복지개론, 65.

95)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29.

96) 권도용 외, 현대장애인 복지개론, 65.

97) Ibid., 65-67

98)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29.

99) 김영환 외, 특수아지론, 24. 1994년 1월에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가속을 가져온다.

100) 윤점룡, “특수교육의 발전전략,”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논문집, 1995, 425.

### 제 3 절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장애라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사회)과 환경(문화)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메어슨(Meyerson)은 장애를 이렇게 정의한다. “장애란 한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것”<sup>101)</sup>이다. 권도용은 어떤 사람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적 장애요인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적 불리<sup>102)</sup>를 정의하면서 장애와 사회, 문화의 함수관계를 말한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사회나 문화 속에 있는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 1. 한국의 문화가 보여준 장애인 이해

##### 가. 가족 중심주의

한국인의 전통 사회는 가족을 핵심으로 삼았고 그 윤리 또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가족의 개념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개인이라는 개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소멸된다. 이 가족주의에 의하면 가문 전체의 이익이 가족의 성원 각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입신양명은 그가 속하는 가문 전체의 영광이며, 한 사람의 수치는 그 가문 전체의 치욕이라고 본다<sup>103)</sup>. 이규태는 “한국인은 나라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도 집이나 가문을 위해서는 손쉽게 죽을 수 있고, 또 죽어 왔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보다 가문을 위해 죽은 사람을 보다 훌륭한 것으로 우러러 왔다”<sup>104)</sup>고 한다. 어느 개인이 나쁜 짓 하면 그 개인이 나쁘기보다 그가 속한 가문 전체를 나쁘다고 보고 또 어느 개인이 잘나면 가족 모두의 영예로 돌리는 가족과 가문 중심 사회에서 어느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현실적으로

101) 김흥덕 외,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58.

102) 권오용,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 편, 장애우 대학 자료집, 1993, 23.

103) 김태길,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11 (서울: 문음사, 1986), 62.

104)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1993), 235.

농경사회에서 그 가정은 심각한 노동력 결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런 부담보다 더 큰 것은 가문 전체가 불명예와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나. 서열 문화

한국사회는 500년 동안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의 권위주의 아래 철저하게 신분적인 충화와 차별을 이루는 서열 문화로 이루어져 왔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인정되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아래 모든 가족은 순응하여야만 했다. 이런 서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환 교수는 "효의 바탕은 유교이고,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조상에 제사하고 자손을 얻기 위해 혼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강조된 것이 곧 관례, 혼례, 상례 그리고 제례"<sup>105)</sup>라고 말했다. 이처럼 효를 강조하고 각종 예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장애 자체는 효의 봉양 여부를 떠나서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를, 죽은 조상에게는 제사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륜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sup>106)</sup>

한편 사회 전반에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상의 서열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신분상의 서열은 자기 억제와 인고 속에 울분이 누적되었고 그것은 한(恨)으로 맺히게 되었다. 이런 서민층의 불만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상소리와 욕설을 통해 분출하였다. 우리에게 그렇게 욕설이 많고 상소리가 심한 것은 그만큼 심리적 억압과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증거이다.<sup>107)</sup> 또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못하거나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에게 좋은 위안거리가 될 수 있었다. 장애인은 조금이나마 남보다 우세하기를 바라는 세속 인심에서 놀이감으로, 흥미 소재로, 욕설 자료로 등장한다. 적어도 저런

105) 김대환, 한국인의 자기 발견 (서울: 김영사, 1994), 95.

106) Ibid., 109-110.

107) Ibid., 64.

병신보다 나는 낫다는 상대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sup>108)</sup>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난히 우리 말 중에는 장애인을 뜻하는 말과 속담이 많다.<sup>109)</sup>

오늘날에 이러한 영향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병신 흉내 연기를 통하여 서민층들의 현실적 불만과 스트레스를 풀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옥진의 병신춤은 양반 계급에 억눌린 서민들에게 상대적 위안 감을 주었던 것으로 정부에 의해 ‘인간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을 불쾌케 하고 있다.<sup>110)</sup>

#### 다. 체면 의식

우리 사회가 가진 지나친 체면 의식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허하게 만들었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편없이 만들었다. 이규태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체면 때문에 굶주려도 참고, 배불러도 먹어야 하며, 추워도 옷을 못 입고, 더워도 옷을 못 벗는다”<sup>111)</sup>고 잘못된 선조들의 체면 의식을 꼬집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이시형은 체면을 가난한 역사의 유물로 보고 이전 형편이 다른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112)</sup> 이런 체면 의식은 요즘 분에 넘치는 혼상사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체면과 결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 손봉호는 “결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할 것들에 체면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고, 결혼이란 부모들이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도 안되며, 결혼에 있어서 체면을 중시 여김으로 혼수가 시원찮게 해 오면 체면이 짊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sup>113)</sup>라고 지적한다. 이 혼수 때문에 다 이루어진

108) 최래옥, “한국문화와 장애인,” 요육대 공개강좌집 (서울: 베데스다 선교회, 1993), 14.

109) 지적 저능인을 가리키는 말로 바보, 천치, 머저리, 얼간이, 팔푼이, 병신 등의 말이 있다. 속담으로는 “병신 육갑한다”, “바람맞은 병신 같이”, “사족 성한 병신”, “언청이 아니면 누가 병신이라 할까?” 등의 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110) 장애인들을 비방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병신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손봉호는 이것에 대하여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장애인을 흉내내는 ‘병신춤’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인간문화재로 보호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원시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손봉호, 약한 쪽 편들기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1991), 35 참조.

11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270.

112) 이시형, 배짱으로 살시다 (서울: 집현전, 1993), 17-18.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결혼 후에도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또한 우리의 지나친 체면 의식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소위 '일류병'과 연결된다. 자식이 일류 대학과 일류 직장과 일류 신랑과 신부를 얻어야만 부모의 체면이 서게 되고 집안의 명예가 올라간다는 것이다.<sup>114)</sup>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소위 일류 대학을 다니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류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심한 열등감과 낭패감을 맛 볼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대학에는 뚜렷한 서열과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입시 철만 되면 한국 사회는 온 국민이 큰 흥역을 치르게 된다. 사람의 됬됨이보다는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느 직장에 다니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물 평가의 모든 것이 된다. 이러한 지나친 체면 의식과 가족 집단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 어느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주위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겠는가? 또한 그 장애인을 위해 어느 가정이 다른 가족보다 신경을 쓰며 돌보겠는가?

우리의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한국의 겉치레 교육은 한국인들의 내면세계를 아주 허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지나친 간판주의는 아이들로 하여금 약자, 특별히 장애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였다.

## 2. 장애인 실태가 보여준 장애인 이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편견은 사실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선천적인데서 오는지 후천적인데서 오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를 100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으로, 400만까지 추론하는 사람도 있다.<sup>115)</sup>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갖게 된 것은

113) 손봉호, 꼬집어 본 세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0), 66.

114) 이규태는 이것을 체면 의식과 함께 부모들의 상향 의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향의욕을 충족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은 자기 계위보다는 높은 계위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 상향의욕의 투사 대상을 자기로부터 자기 자식에 옮겨 놓고 불태운다. 이 비장한 한국 부모들의 비원이 병적인 교육열과 일류 병을 빚었다.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58.

115)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장애자



50년의 6.25전쟁과 60년대의 월남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전쟁 상이용사를 양산해 냈고, 또한 50년대와 60년대는 열악한 보건 정책의 미비와 의료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발생하였다.<sup>116)</sup> 70년대부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산업 재해 등으로 장애인 인구는 계속 늘어만 갔다.<sup>1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보호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970년대 말까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sup>118)</sup> 1980년대에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장애 원인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들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다.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서를 보면 지체 장애인은 95퍼센트가, 시각 장애인은 93.7퍼센트

---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을 어느 범주에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장애 정의에 따라 혹은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장애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려는 우리 문화적 습관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도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문제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수를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400만으로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 보건 기구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 인구의 10퍼센트가 장애인이라고 정의내린 것을 기준해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노령 인구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116) 예를 들면, 5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소아마비 예방 접종도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실시하는 낙후성을 보였다. 오늘날에는 소아마비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어린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소아마비는 장애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1962년 조사에 따르면 81,321명의 장애 아동 가운데 소아마비 어린이 전체의 39퍼센트인 31,475명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 시기에 크게 번진 소아마비에 대해 국가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방백신은 언제나 모자랐으며, 재활 치료기관은 한군데 밖에 없었다. 청각, 시각, 정신장애도 예방과 치료를 강조하기만 했지 근본적으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지 못하였다.

117) 지난 1993년 통계만 보아도 약 14만 명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각종 산업 재해를 입어 이중 2천 2백 36명이 사망했고(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서울: 예찬사, 1993), 48),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한 해 평균 15만 명 정도가 사고를 당하고 3천 명 정도가 죽고 있는 현실과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는 불명예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구는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118) 그때까지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은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사업’이 전부다. 이것은 정부의 장애문제에 대한 거시적 관심의 출발이라기보다 전쟁 수행이라는 애국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과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미봉책이었다. 이들의 극박한 삶에 대한 시위는 과격성을 띄게 되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가 청각 장애인은 93.1퍼센트가 후천성 원인으로 장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언어 장애인의 경우는 77.1퍼센트가 정신지체인도 55.7퍼센트가 후천적인 원인으로 비롯되었다.<sup>119)</sup> 이렇게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것이라고 할 때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의 책임 또한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는 똑같이 이 일에 무관심하여 왔다. 우리의 무관심은 장애인들의 재활, 교육, 의료혜택의 미비에도 반영되어 있다. 장애인 전체의 77.9퍼센트는 재활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전혀 없고, 전체의 8.2퍼센트만이 의료 보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취학 아동 가운데 14퍼센트만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5세 이상 장애인들 가운데 26.7퍼센트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 재활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뇌성마비의 경우에도 85퍼센트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한다.<sup>120)</sup> 그러나 국민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설움의 일생을 보내고 있다.<sup>121)</sup> 사실 이렇게 후천적 장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장애 발생이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한국의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를 개인이 조심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사후 대책까지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22)</sup>

UN인권선언 헌장 제22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과 그의 인생을 자유로이 발전시키는 데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sup>123)</sup>고 되어 있다. 서철원은 장애인의 생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9) 이연재, 한국의 장애인 (서울: 한국 장애인복지 정책 연구회, 1993), 149-150.

120) 요즘은 한국에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교실이 많이 개설되었다. 뇌성마비를 포함한 정신지체 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교육만 제 때에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좌우 된다. 조기 교육 교실의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 교육의 기회를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선교적 시각으로 장애인들을 보며 장애인 교육의 잠재해 있는 교회의 교육적 역량들을 쏟을 때라고 본다.

121) 손봉호,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변화,” 제5차 장애인선교단체 정기총회 자료집, 1989, 11.

122) 이연재, 한국의 장애인, 126.

123) 민은식 외, 장애자와 교회 (서울: 도서출판 광야, 1987), 16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 9 조에도 장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애인의 교육, 의료, 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어느 사회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자기 생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체 장애인들과 무능력자들이다. 이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생되었으므로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그들의 생을 책임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기관이 이런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sup>124)</sup>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참다운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지난 1988년 장애인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장애인 선수촌 아파트 분양에 관한 공개 질의서”<sup>125)</sup>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보장되어 있는 생존권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장애인 선수촌 아파트는 평소에 장애인들이 이상으로 꿈꿔오던 온갖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들을 위한 보금자리이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계단 없이 넓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가 시원하게 달리 수 있는 넓은 복도, 복도 벽에 설치된 핸드 레일, 엘리베이터, 집안 현관문에는 문턱이 없었고, 실내 구조 등 모든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 전 구역의 보도 블록이 맹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보사부 당국은 이 장애인 아파트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분양 계획을 세웠고 장애인 단체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실행되어 아파트의 대부분은 비장애인들에게 돌아갔다. 장애인용 아파트를 비장애자에게 분양할 계획을 세운 정부 관계자나 분양받고 입주한 비장애인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결연문제를 통계로 보아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990년도 한국 어린이 재단에 따르면 전국 225개 일반 고아원과 수용된 1만 9천 1백 30명의 정상아 중 후원자들과 결연된 수는 1만 8천 59명으로 94퍼센트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0세 이상이 되었으나 뚜렷한 자립계획을 세우지 못해 고아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라 결국 결연율은 100퍼센트인 것이다. 그러나

124)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112.

125) 이 공개 질의서는 1988년 남서울교회에서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문제 교회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장애아의 경우는 전국 69개의 시설 7천 9백 97명 중 66퍼센트인 5천 3백 17명 만 후원자들과 결연되어 있었다. 정상아동들은 2중 3중으로 후원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아와의 차별을 더욱 심하다고 본다.<sup>126)</sup>

우리 사회는 지금 손봉호의 지적처럼 “개인이 얼마나 예의바르고 깨끗한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약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127)</sup> 미국사회는 1973년 경생을 위한 법률(Rehabilitation Act of 1973)을 통하여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이며 장애인을 격리하며 이등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차별임을 인정하였고, 1990년에는 장애인법안(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해 취업, 공공시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활동들, 교통, 그리고 통신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다각적이고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중요한 결실을 가졌다. 이 법안의 3항인 공공시설항목에서 장애인들의 출입이나 사용을 막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개인이라도 장애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8)</sup>

미국의 헬렌 켈러(Hellen Keller)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 등 장애를 극복한 자들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수용과 헌신적인 교사 그리고 교회나 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배려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우리 사회나 문화가 이들에게 배려의 차원보다는 인권의 차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의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129)</sup>

#### 제 4 절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163회 정도 언급되는데 구약 89회, 신약 74회이며, 구약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고 신약에서는 긍정적 관점이

126) 조선일보, 1990년 4월 20일자, 4면 1단.

127)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나비, 1989), 138.

128) 미주 밀알보, 1993년 1월호, 8.

129) 민종기, “사회평론,” 신앙계, 1999년 6월호.

우세하다.<sup>130)</sup> 성경 속에 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문자적인 경우와 비유적 상징적인 경우로 구분 된다.<sup>131)</sup> 구약의 장애 종류는 주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소개되고 신약 성서의 장애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애인이 소개 된다.<sup>132)</sup>

## 1. 성경에 나타난 장애 사례 원인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로 인한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구약에 나타난 89회의 장애인에 관한 기록 중 시각장애가 47회, 지체장애가 27회, 청각장애가 15회, 신약에서는 시각장애가 33회, 지체장애가 32회, 청각장애가 9회 등장한다.<sup>133)</sup> 장애 사례들을 볼 때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함으로 받는 형벌로서의 장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장애를 입는 경우이다.<sup>134)</sup> 그러기에 장애 그러면 죄와 그의 값으로 도식화하려는 경향은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함으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한다.

구약의 대표적인 장애인 사례는 야곱의 아내로서 시력이 좋지 않던 레아(창 29:17),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개됨으로서 지체 장애인이 된 야곱(창 48:10),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 아히야(왕상 14:4)는 시각장애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고, 삼손(삿 16:21)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렘 52:11)는 적들에게 눈이 뽑힌 채로 살았던 시각장애인들이다. 구약의 지체장애인으로서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으로 죽은 때에 다섯 살의 아이를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치다 말에서 떨어뜨려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나(삼하 4:4-5) 후에 다윗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다(삼하 9:11). 북 이스라엘의 첫 왕이던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한쪽 손이 마르게 되는 장애를 입었다가 그 선지자의 기도로 회복된다(왕상 13:1-6).<sup>135)</sup>

130)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6), 16.

131)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3), 41. 비유적, 상징적 표현은 영적 장애를 나타내는 말로 '소경'이나 '귀머거리'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예로 사 42:18; 43:8(소경, 귀머거리); 시 38:13(귀 먹은 자, 병어리); 뱀후 18-9(소경) 등이다.

132) Ibid., 42.

133) 이계운,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1996), 55-56.

134)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41.

신약의 대표적인 장애인 사례는 시각장애인으로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 받았으며(마 20:29-34; 막 10:46-52; 눅 18:35-43),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주님으로부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된다. 그의 장애가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요 9:1-7). 청각장애인으로서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라는 말씀과 함께 고침받는 귀먹고 어눌한 자(막 7:32-35)가 있으며, 또 귀신들려 병어리된 자(마 9:32,33), 제자들에 의해 고침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병어리 귀신들린 아들(막 9:17-27) 등이 있다. 지체장애로는 한쪽 손마른 사람(마 3:1-5; 12:10-13; 눅 6:6-11), 십 팔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등 굽었던 여인(눅 13:10-17) 등이 안식일에 예수님에 의해 고침 받았으며, 베데스다 못가에 삼십 팔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요 5:1-9),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결인, 네 사람에게 의해 침상에 들려 온 중풍병자(마 9:2-7; 막 2:3-12; 눅 5:18-25),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마 8:5-13), 베드로에 의해 고침 받았던 중풍병자 애니아(행 9:32-34) 등이 있다. 중복장애인으로서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들 수 있다<sup>135)</sup>.

앞에서 살펴본 성경 속에 장애의 원인들을 보면 노화로 인한 경우,<sup>137)</sup>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sup>138)</sup>,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장애,<sup>139)</sup> 선천적 장애,<sup>140)</sup> 전쟁으로 인한 장애,<sup>141)</sup>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장애,<sup>142)</sup> 귀신에 의한 장애,<sup>143)</sup>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장애<sup>144)</sup> 등으로 다양하다.

135) Ibid., 42.

136) Ibid., 42-43.

137) 이삭(창 27:1, 23), 야곱(창 48:10), 엘리(삼상 3:2; 4:15), 바실래(삼하 19:35), 아히야(왕상 14:4, 6) 등이 있다.

138) 중풍병자(마 4:24), 문둥병자(마 8:2-4; 막 1:29-31; 눅 4:38-39), 혈루증(마 9:20-22; 막 5:25-34; 눅 8:26-39), 한쪽 손마른 사람(마 12:10-13; 막 3:1-4; 눅 6:6-10), 간질(마 17:15-18; 눅 9:38-43) 등을 들 수 있다.

139) 다름으로 인한 장애(출 21:26), 떨어져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삼하 4:4; 9:3-13) 등이 소개된다.

140) 레아의 시각장애(창 29:17-18), 나면서부터 앓은뱅이(행 14:8-18) 등이 있다.

141) 아도니 베섹(삿 1:6-7), 삼손(삿 16:21), 시드시아(렘 52:11) 등이 있다.

142) 신 28:28

143) 청각장애(마 9:32-33), 언어장애(막 9:17, 25), 병어리 귀신(눅 11:14) 등이 있다.

144) 지체장애를 입은 야곱(창 32:31), 삼손(삿 16:21),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무리들(왕하 6:18), 시각장애(슥 1:17, 요 9:1-3) 등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모든 장애인들을 들 수 있다.

## 2. 구약에 나타나는 장애인관

구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선택의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참 순종의 응답으로서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sup>145)</sup>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격적인 언약관계 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다.<sup>146)</sup>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실상 ‘삶’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출 19:5 이하).<sup>147)</sup>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생활의 표본을 정립하신 것이다. 이러한 율법을 어길 경우 여호와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징죄하셨고 이로 인해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또는 거룩한 삶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응징이라는 논리가 구약에 자리 잡게 되었다.<sup>148)</sup>

그러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참 의도는 장애를 발생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며, 율법의 중요한 일부분인 ‘정결법’(레 11-15장)은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식, 질병, 시체에 관한 위생적인 규칙이나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환자들을 격리하고 전염병을 옮기기 쉬운 동물들과의 접촉을 멀리하게 하여 이로 인한 질병과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sup>149)</sup>

인간에게 장애를 입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는 언급과 친

145)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21-22.

146) 박준서, “십계명 연구,” 제8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목회현장과 성서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88), 61-62.

147) Christopher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정옥배 역 (서울: IVP, 1990), 195-196.

148)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0), 24-38.

149) 김정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2년 봄학기 [오경] 강의안, 90 참조, “율법의 정결법이 병균을 방지한다는 이론이 사실상 레위기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어울리지는 않으나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병균방지에 기여했음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히 모세에게 미리암을 통해 보이신 것(출 41-17)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여호와와의 징계의 내용-홍작, 열병, 전염병, 전쟁과 기근은 장애를 일으킬 원인이다(레 26:14-17).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라는 가능성이 있다. 구약에서 실제로 제사장 계급인 아론의 자손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몸이 부정한 사람은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다.(레 7:19-21; 21:16-24).<sup>150)</sup> 이처럼 구약에 강하게 흐르는 장애자에 대한 격리 특히 레위기 13장 45-46절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규정된 격리되어 차별된 생활의 요구, 말라기 1장 8절의 제물이 상물(傷物)이었다는 것을 심히 꾸짖는 것이나, 레위기 21장 16-21절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육체에 상처가 한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규정의 참 의도는 무엇인가?<sup>151)</sup>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가신인 우리아의 살해와 그의 처 밋세바와의 간통(사무엘 하 11장) 후, 자기의 불의를 뉘우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시 51:7)라고 통회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적 문둥병 환자'임을 자각한 것이다. 당시 레위기 14장 4-7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우슬초로 피와 물을 찍어 발라야 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바울의 지적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즉 모든 사람은 영적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로 '문둥병자'를 격리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 죄와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격리되고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을 격리함으로써 자기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sup>152)</sup>

율법을 어기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되었다할지라도 율법은 분명히 장애인에게 이웃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여호와와 정결법을 통해서 부당하게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예방하셨으며 광야생활 중 항상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많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셨다. 율법 속에 완벽한 사회복지 제도를 포함시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가난한 자, 이국민, 장애인, 고아와 과부 등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며 이

150)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24.

151) 박천만 외,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인 (서울: 장애인 전도협회, 1989), 86.

152) Ibid., 87-88.



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명하신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저주나 생활의 방해를 금하시며(레 19:9-18),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을 율법화하셨다.<sup>153)</sup>

구약의 도처(예를 들어 사 35:5-6)에서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 사라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본래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장애자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예언이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다.<sup>154)</sup> 그러기에 장애가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까지 박탈하지는 않으셨다. 미리암이 비록 여호와와 응징으로 장애를 입고 모세의 간구로 고침을 받은 후 칠일 동안 진 밖에 갇혔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은 광야 길을 진행하지 않았다.<sup>155)</sup>

### 3. 신약에 나타난 장애인관

‘여호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새 계명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다. 율법의 불행이 재앙과 장애, 나아가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옛 율법과는 달리 새로운 언약은 ‘사랑과 용서’를 그 본질로 한다. 모세는 율법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원리를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주라’는 새로운 윤리로 대치하며(마 5:38-42)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곧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함이라고 하신다. 예수는 이 말씀으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대결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기만 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반해서 예

153) 김정우, “구약율법과 신약윤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1991 봄), 15.

154) 박천만 외,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인, 89-91.

155)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25-26. 구약에 십일조, 안식일, 희년 등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항상 장애인을 포함시켜 더불어 사는 생활, 평균케 하심을 본다. 이것은 장애인을 긍휼과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김일권, 사랑받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 장애인 (서울: 글로리아, 1989), 99-103).

수는 이혼 자체를 금하신 것이다.<sup>156)</sup>

죄를 짓는 사도들에 대해 예수는 정죄보다는 용서의 미덕을 행하시며 형제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두 소경이 소리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만져 주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고”(마 20:29-34), 또한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하셨다(눅 14:13). 신약의 장애인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요한복음 9장이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누구의 죄도 아니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sup>157)</sup>이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장애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애는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차이의 개념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동정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형제애와 실질적 평등에 입각한 것이었다.<sup>158)</sup>

이처럼 신약이 보여주는 장애인관은 구약과는 달리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 즉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장애인을 자선과 복음증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등이다.<sup>159)</sup>

3년 동안의 지상생활에서 예수님은 많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 이사야의 예언(사 35:5-6; 61:1-3)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장애인선교의 본질은 육신의 장애에 대한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회복을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sup>160)</sup> 특히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이유는 오신 목적이 인류의 전인적인 구원에 있었고, 장애인들 역시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sup>161)</sup>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

156) 김정우, “구약율법과 신약윤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32.

157)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29. 장애를 죄와 관련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그 장애인에게 주어진 삶의 독특성을 인식시켜 주신다.

158) Ibid., 30.

159)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 관,” 45-46.

160)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30.

161) 박수암, “신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 신학,” 장애인 정책 세미나, 1992년, 10.

들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삶의 권리와 영적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다루셨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과거의 숙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살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에로 복귀시켜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장애인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완전히 긍정되었으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다.<sup>162)</sup> 교회나 성도가 바라봐야 할 장애인은 결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

162)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49.

## 제 3 장

##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한계와 극복

한국의 장애인 교육의 출발점은 교회이다. 그러나 이를 계승하지 못한 채 이조 500년의 유교적 신분 차별의식과 성장일변도의 경제 정책,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상황에 동화되어 기독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일반사회의 인식을 넘지 못하고 있다.<sup>163)</sup>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교육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아직도 비장애인에게만 편중되어 계획되고 연구되고 투자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고찰하려고 한다.

## 제 1 절 장애인 교회교육의 문제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육의 기회 균등 사상이 민주적 교육 이념으로 부각되었다.<sup>164)</sup> 이제까지 소외되어온 소수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가능케 하는 유력한 수단이며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sup>165)</sup> 장애인 교회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한다. 김홍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교육적 봉사, 즉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의 일반 목적을 실현시키는 한편, 장애의 유형과 정도, 원인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호, 활용하며, 다른 부면(部面)의 능력도 최대한 발달, 신장시키기

163) 송기태, “한국교회와 장애자 선교의 현주소,” 빛과 소금, 1988년 11월호, 70-73.

164) 윤점룡, “한국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73.

165)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5), 313.

위해 특수한 교수 방법, 시설과 환경을 포함하여 주어지는 전반적인 교육봉사를 통칭한다.<sup>166)</sup>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00여년의 세월을 가진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달려왔다고 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7)</sup>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교육부 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담 부서 하나 두지 않았던 정부의 무관심, 15퍼센트도 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수혜율, 교사 1인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학급당 인원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연구 없이 경험에만 의존했던 교수 방법, 실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과는 먼 형식적인 직업 교육 등은 헌법 규정과 먼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sup>168)</sup>

영국의 워노크(Warnock, 1981) 보고서에서는 특수학교의 목표는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목표는 물론 특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동의 가능한 독립, 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아동생활의 지식과 상상적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가능한 독립, 자립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sup>169)</sup>

이런 목표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 교육은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 정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마련되어야 장애를 극복하면서 재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1993년 12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조기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육과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됨으로써 1967년 맹학교 교육과정과 농학교 교육과정이 법제화된 이후 약 30여년 만에 장애아 교육권 확대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변화는 급진적일 뿐 아니라 교육분야의 발전도 새로운 지식과 교육방법이 급진화됨에 특수교육과정도 특수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166) 김흥규, 장애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89), 21.

167) 권도용 외, 현대장애인 복지개론, 184.

168)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314.

169) Ibid., 183.

을 위해 국가책임주의적 특수교육 정책수립과 정책사업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체계화가 요구된다. 특수교육은 장애종류별로 구분하여 교육대상의 보편적 능력이나 학습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sup>170)</sup>

장애학생은 장애종류별로 보편적인 능력을 가진다. 장애별 보편적 특성에 따른 손실 또는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상의 문제에 대한 극복과 잔존 능력의 극대화는 교육과정에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는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보편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인의 특징에 따른 교육 방안이 요청된다.<sup>171)</sup> 특수교육에 개별화교육(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up>172)</sup>은 전제 되어야 한다. 즉 그만큼 교원의 수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의 교육은 아직도 사학(私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등과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수학교이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의무교육도 아니기에 장애아동의 가정은 교육의 경비에 큰 부담을 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특수 교사의 양성은 4년제 대학은 특수교육과에 의존하는데 그러다보니 현장에서의 특수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sup>173)</sup> 이들이 현장에서 잘못된 경험들이 굳어져 오히려 잘못된 편견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현장에 가기 전 많은 경험을 통한 이론정립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내용 및 방법 면에서도 개별화를 위한 준거가 부족하고 단지 장애별로 외형적인 시간 배당 기준만 본 지침에 따라 준칙으로 하고 있다.<sup>174)</sup>

재활훈련도 사회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에 통합되고 적응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기 교육부터 일관성 있는 교육되어야 하는데 무용지물의 것들이 대부분으로 사회로 진출되는 숫자도 미미한 현실이다.<sup>175)</sup>

170) Ibid., 184-185.

171) Ibid., 188.

172) 개별화교육은 일반아동이나 특수아동 모두에게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에 따라 개인차가 심한 장애아동의 경우에 이러한 개별화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교육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385.

173)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251-252.

174) Ibid., 315-316.

이들에게 개별화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애 종류나 장애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분류가 다분히 의학적인 분류로써 장애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현상 장애 결과로 판별함으로써 특수교육이나 재활교육 그리고 재활선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sup>176)</sup>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조치하고 교육함으로 더 극복이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판별 기준의 부족으로 장애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사회에 더 잘 적응할 기회를 잃는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특수아동의 독립적인 삶의 성취가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sup>177)</sup>은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1994년) 62조 6항에서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sup>178)</sup>을 말한다.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런 교육의 방법을 만들기까지 2세기 이상의 분리된 교육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체계화된 분리 교육의 경험도 별로 없이 당장 모든 시설에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다.<sup>179)</sup>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특수공교육현장인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특수아동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특수교육에 대한 교회의 이해부족과 교육부서 내에 전담 부서 하나 두지 않는 무관심, 극히 미비한 재정 투자, 교사 1인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학급당 인원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연구 없이 경

175) Ibid., 249-250.

176)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14.

177)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28. 장애인들을 의학적으로나 표면적 체제에 의하여 구분, 분리하지 말고 실질적 현상과 효과에 더하여 정규학습에 통합하고, 개인별로 확인된 교육적 필요에 입각하여 교육하는 통합체제로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 통합교육의 체제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행정가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178) Ibid., 29.

179)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317.

험에만 의존하는 교수 방법, 법적 장애 판별에만 의존하는 문제, 개별화교육은 꿈도 꿀 수조차 없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통합교육도 사실은 시설의 부족이나 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방치를 통합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있다.

##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인식 문제

### 1. 교회와 장애인 선교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킨은 “교회의 생활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sup>180)</sup>고 말하고 있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초창기의 한국 교회의 선교는 장애인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선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선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앞선 의료기술과 함께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교회의 시작 그 자체가 의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선교사들의 병원이나 치료를 통한 간접 선교의 대상자중에 한 사람이자, 그 전체는 아니었다.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교 교육은 1894년 평양에 도착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홀(Rosett Hall)여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선교사는 그 당시 선교방법을 모색하던 중 오봉레라는 맹인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오봉레에게 촉각 개발 등 잔존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털로 뜨개질을 하는 재활훈련을 실시했다.<sup>181)</sup> 그리고 생활훈련, 영어도 가르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홀 선교사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였고,<sup>182)</sup> 맹인을 위하여 점자법을 만들고 직접 기도문과 십계명의 일부를 점역하였다. 1897년에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최초로 ‘블구 아동을 위한 집’이 세워져 수십 명의

180)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18.

181) 홀 선교사에 의해 시행된 장애인 선교는 한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선교를 태동시키는 중요한 모체가 되었다. 김흥덕 외, *장애인* (서울: 두란노, 1991), 16-17.

182) 장애인 선교단체는 1894년을 장애인 선교의 원년으로 삼고 올해를 장애인 선교 100주년으로 기념하고 행사를 치루었다.



장애아동이 이곳에 수용되어 복음과 함께 재활 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장애인과 함께 출발하였지만,<sup>183)</sup> 그것은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교회 자체가 나서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교육시키고 시설을 지은 것은 불과 십수 년밖에 되지 못한다. 월간 '목회와 신학' 편집장인 송기태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의 신분차별 의식과 60년대 이후 성장일변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극단적인 배금주의와 철저한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은연중에 파고들어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일반 사회인과 거의 다르지 않게 되었다. 교회입장에서도 장애인들이란 경멸과 동정을 받아야 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로서 자선적, 시혜적 차원에서 구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해 동정을 베풀 수는 있지만 동등한 인격자로서 화합하거나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기엔 곤란하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이심전심으로 퍼져 있었다.<sup>184)</sup> 그 결과 70년대 중순에 장애인 선교단체가 생겨나기까지 한국 교회는 장애인 선교에 대하여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sup>185)</sup>

장애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은 전체 장애인 중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전 인구의 25퍼센트 이상이 기독교 인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애인중에는 기독교 인구가 불과 5퍼센트 미만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농아 중에는 1-2퍼센트만으로 추정된다.<sup>186)</sup> 신체적 장애의 고통과

183) 한국교회는 초기와는 다르게 장애인을 동정과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겨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는 있지만 동등한 인격체로서 화합하거나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기에 곤란해 하는 인식이 교회 안에 편만해 왔다. 장애인에 관한 한 그동안 한국교회가 쌓아올린 마음의 문턱은 '물리적 문턱'과 대체로 정비례해 온 것이다. 선교 초기에는 없던 문턱이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라지처럼 자라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안균환, "정신지체아 교육, 장애인 선교의 출발점," 목회와 신학 1993년 10월호, 221.

184) 송기태,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16-17.

185) 1976년 부천에 있는 서울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지체 장애인 양동춘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장애인 선교단체인 베데스다 선교회가 생겨났고, 그 뒤를 이어 1979년에는 총신대학에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이재서 전도사를 중심으로 밀알 선교단이 생겨났다. 이들 장애인 선교단체들은 1988년 장애인 올림픽 전까지는 그 조직이나 활동이 미비하였지만, 그 이후 한국 교회 안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고, 그 규모나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졌다: 양동춘,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가 (서울: 예찬사, 1991), 30.

186) 정형석,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 요육대 공개강좌 (서울: 베데스다선교회, 1993), 13. 김영길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선교회, 장애인 교회,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지역 교회 외에도 여러 선교단체와 선교기관 관련 연합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교회 총 수는 336개이며, 그중에 일반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는 고

이 세상의 소망이 보다 적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복음에 더 마음이 열려 있고 민감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크게 밀집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무관심이 그들을 복음에서 멀어져 있게 해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sup>187)</sup>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기독교는 한국에서 다른 어떤 종교나 단체보다도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서 손봉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역시 기독교다. 전국에 장애인은 약 150만에 달하나 그 1퍼센트도 안 되는 9,000여명만이 공공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그 외 모든 복지시설의 약 90퍼센트가 기독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비록 매우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의와 그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독교다.<sup>188)</sup>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공헌은 일부 관심 있는 헌신적인 몇몇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지 한국 교회 전체에 의해서는 아니다. 장애인 올림픽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역시 열악한 편이다. 베데스다 선교회의 이준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 48개 교회로 장애인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교회 총수의 경우 14퍼센트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3만 5천 여 개 이상의 전체교회 수로 따져 본다면 장애인 선교를 하는 일반교회의 비율은 전체교회의 거의 0퍼센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90-91. 한국의 장자교단인 합동예 교회들 가운데 장애인부를 두고 있는 수는 교회 수는 본 연구자의 교회를 포함해 25개 교회로 파악되었다. 이는 오늘 교회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장애인선교협의회, 장애인부서 현황조사서 참조.

187) 물론 장애인 선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고, 또는 장애자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많은데(53퍼센트)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은 도시에 집중되는 불균형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수화도 모르는데 농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무지와 무관심과 교회 시설 및 프로그램의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188) 손봉호,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변화,” 20.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선교활동은 전국적인 교단이나 초교파적인 지역교회의 연합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몇몇 선교단체나 개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회적인 자선행위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몇몇 대형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 선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 여겨진다.<sup>189)</sup>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 이해와 사역은 아직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형편에 있다.

## 2. 교회의 시설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은 장애인들이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교회마다 높은 계단과 문턱으로 건물이 이루어져 휠체어들이 오고 가는 것을 막고 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전용 화장실, 점자 성경, 점자 주보 등 예배나 그 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비록 한국 교회의 예배당은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장애인이 교회에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은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지만, 매주일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교회를 찾아 무려 한 시간씩이나 휠체어를 밀고 예배에 참석하였던 김두영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다녔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에 교회 관리하는 분들에게 “왜 이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문턱이 있으면 저 같은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 대개 대답이 우리는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 수 없다고 대답한다고 한다.<sup>190)</sup>

189)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36.

190) 김두영, “교회 찾아 만리 길,” 월간 밀알보, 1991년 7월호, 6-7.

이것은 분명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문제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장애인 신도는 원하지 않는다”<sup>191)</sup>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분명 한국 교회 안에는 장애인 교인을 원하지 않는 일반 교인들의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교회의 장애인들을 위한 열악한 시설과 따가운 시선은 결국 장애인들을 기성 교회의 문턱에서 몰아내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장애인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 3. 장애인 교회

현재 한국에는 일반 교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부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애인들에 의해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약 120여 군데가 있다. 1992년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가 펴낸 ‘한국장애인선교단체편람’에서는 농아인 교회가 61개, 지체장애인 교회가 35개, 시각장애인 교회가 16개, 일반교회 안에 있는 농아부가 18개, 장애인 선교단체가 95개,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가 14개가 있다고 한다.<sup>192)</sup> 이들 교회들은 장애인들의 영혼 구원과 더불어 그들의 인격 및 생활, 장애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 신앙 지도 및 직업 재활 훈련과 사회 적응 능력을 시킬 수 있다는 데서 많은 장점 및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장애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생겨나

191) 본 연구자의 교회에는 완전한 시각장애인 전도사가 계신다. 처음 대학 재학 중부터 그를 훈련시켜 신학대학원에 입학케 하고 그해 장애자주일에 처음 강단에 세우게 되었는데 뒤에 말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동정 반 호기심 반으로 넘어 갔지만 적잖은 잡음이 있게 되었다. 의외로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벽이 높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나 그 후 장애자부서인 ‘사랑부’를 세우고 전교인 300여 명 중 30명 가량의 장애인이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 속에 서서히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단 중 장애인이 2-3명이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과 같이 사는 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 같다. 장애인 전도사, 장애인 선교단, 사고로 장애인이 된 권사님과의 빈번한 교제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 후 더 이상 시각장애인의 케인이나 휠체어가 이상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성도들의 능숙한 모습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자성경, 점자찬송, 경사로 등 시설적 배려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과 찬송을 비치해도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더 친밀해 지면 그날 본문에 맞추어 해당된 점자성경을 찾아 주는 배려가 있게 되는 것을 보았다. 결국 친밀해지는 만큼 물리적 환경의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장애인에게 극복되어질 수 있다.

192) 진은현, “통합의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4), 34.

야만 했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연예인 교회라든가, 체육인 교회 같은 특수한 계층을 위한 교회도 있으니 장애인 교회라고 해서 없으란 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손봉호의 지적처럼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 따로 모이는 것에는 이유의 차이가 있다. 연예인들과 체육인들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을 피하여 조용히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의 차별대우가 싫어서이다. 농아인들의 경우는 수화가 필요함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외의 장애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sup>193)</sup>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따로 예배당을 세우고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장애인 성도들이 아주 불안하게 느낄 정도로 일반 성도들이 그들을 따갑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그 편견이 싫어서, 기쁨에 의한 자발적인 동기에서가 아닌, 거의 반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sup>194)</sup> 요즈음 특수 교육의 흐름은 가능한 한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고 일반 정상인들과 통합시켜 교육하는데 있는데, 교회야 말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통합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야 말로 어느 사회 구성원보다도 장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전도와 기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해서 교회 성장이 제일 빠른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남자와 여자, 헬라인이나 유대인, 자유자나 매인 자, 즉 사회 신분과 성, 종족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의식의 많고 적음 때문에 인간의 인격이 다르게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동등 됨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동등 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제일 되는 가르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된 관심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과 편견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정상인들을 피하도록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세계로 가두어 버리게 되었다. 결국 장애인들의 은사가

193) 손봉호, 교집어본 세상, 206-207.

194) 노블 교회, 노블 성도들 사이에, 없고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너무 다르고 차이가 심해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없는 비장애인 교회나 비장애인의 은사가 없는 장애인들만의 교회는 모두 다 장애가 된 것이다. 장애인 교회는 교회 한계의 결정체다.

### 제 3 절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단순히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신적인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sup>195)</sup>고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신분 고하와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원칙이 더 잘 지켜져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의 물질적인 평등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그들의 영적 평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영적 해방, 영적 재활”<sup>196)</sup>이 궁극적이며 우선적이어야 한다. 복음전파와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이것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교회의 지난날은 그렇지 못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이나 가치관, 문화 전통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 안에 안주할뿐더러 교회도 함께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제 교회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장애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잘못된 가치관, 윤리, 문화전통, 악습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만열이 지적하듯이 “한국 기독교는 문화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문화가 뒤따르지 않는 기독교의 평창이 민족,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은 새롭게 결단할 때가 되었다.”<sup>197)</sup>

손봉호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95)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31), 27.

196) 박천만 외,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인, 111.

197)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문화, 한국의 문화와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3), 87.

위치에 와 있다.”<sup>198)</sup> 그러나 기독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니 이것은 한국 교회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어느 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문화 전통을 계몽하고 바꾸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sup>199)</sup>. 교회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질서 있고 진정하게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에 대하여 정부나 사회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 된다.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약한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우리의 구제나 자선의 대상이라는 오해와 교만에서 벗어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뉴비긴의 “만약 교회가 장애인은 자신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교회의 증거는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활동하지 않은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장애 교회임을 보여 주는 것”<sup>200)</sup>이라는 지적은 장애인 문제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인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맞는 선교적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야 한다. 비록 장애를

198) 손봉호, 약한 쪽 편들기, 92.

199)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책임지려고 나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여러 부조리와 사회적 병리 사상, 도덕적 타락 등에 대하여 정부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나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을 아끼는 모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좋은 운동들이다.

200)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189.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교회는 그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신앙 및 선교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은사가 교회에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 모든 일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급격한 외형적 교회 성장 속에 교회의 참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이러한 것들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이겨 내고 교회의 참다운 사명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애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특수선교라는 영역에 포함시켜 놓고 특수하게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미뤄 놓고 있는 일 정도로만 인식해 왔으나 이 정도의 인식 가지고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고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지도자들의 설교나 성경공부,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sup>201)</sup> 말씀에 근거해서 장애인에 대한 교인들의 편견과 잘못을 고쳐주어 교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어 주는 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실체를 밝혀줌으로 그들의 편견이 합리적 생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막연한 생각에 연유되어 있었다는 지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어야 한다. 교인들의 바른 인식 속에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는 교인들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회 내에 장애인이 늘어나서 그들과 교제하기까지 정기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을 가진 가정을 방문하

201) 성경은 장애인이나 병자를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의 장애인 사역이나 치유를 소개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교회는 단지 예수의 치유의 대상으로서의 병자만을 가르치고 있다.



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가정이나 구역 모임 등에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들이 장애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가졌던 막연한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는 물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 등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조명해 보는 것이다. 만약 교회 내의 시설물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을 당하고 지장을 초래한다면 교회가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반 교인들은 잘 느낄 수 없지만 장애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배려해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도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사회에 대해 요구한다는 것은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모든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갖는다는 것은 큰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문턱을 없앤다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보지나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농아들을 위해 큰 보청기나 강대상 위에 큰 조명등을 설치하고 앞자리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202)</sup> 혹은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교회 출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차량으로 도와주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심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구역식구들이 가정으로 찾아가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하는 일들은 교회가 조금만 배려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 가정이나 장애인 시설, 장애인 선교단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시설 자체를 장애인 복지나

202) 본 연구자의 교회 장애인 중 청각 장애로 농아인이 있다. 그는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다. 그러나 설교자와의 거리, 강대상의 높이, 또는 그가 설교자를 보는데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들에 따라 많은 애로를 갖는다. 수화통역이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교자가 잘 보이는 자리를 배려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옆에 컴퓨터를 가진 자가 그를 위해 설교의 내용을 축약해 기록해 줌으로 모니터를 보며 듣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검증되었다.

교육, 재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이나 그들의 부모들의 지망을 조직하여 주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결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힘 있게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하게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제 4 장

### 정신지체아동의 교회 교육

최근까지 장애인들은 사회는 물론이요 교회에서 마저도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비사회적 인간으로 그리고 바보로 낙인찍혀서 교회의 교육대상에서 소외당하고 극히 주변적인 존재로 대우받아 왔다.<sup>203)</sup> 비장애인의 정상적 인권이 즉 의료적인 행위는 병원으로, 교육기회는 학교로, 신앙행위는 교회로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장애인에게는 종종 예외적인 것이 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당연히 되어 왔다. 아직도 장애인 문제가 그 탄생에서부터 사회화되지 못하여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이다.<sup>204)</sup> 이런 결과에 교회가 부정적으로 협력해온 장본인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 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부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30개 교회에 32개 부서다.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육부서가 27개,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부서가 5개, 시각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학습장애아동, 정서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부서는 발견할 수 없다.<sup>205)</sup> 진은현은 그 이유를 학습장애아동이나 언어장애아동, 자폐증을 제외한 정서장애아동 등은 자연스럽게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상태라고 짐작하는데 본 연구자도 동의한다. 아직도 교회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장애의 구분도, 그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그로인하여 장애인의 구원과 교육에 많은 열정을 가지나 그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203)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237.

204) 양동춘, "장애아 어린이 캠프," 어린이 교육, 1994년 6월호, 110.

205) 진은현, "통합의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47.

## 제 1 절 정신지체아동의 이해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아동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정신지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치의 병으로 오해하여 구원의 대상, 그리고 보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의 대상보다는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 제한한 시선을 수 없는 오류를 교회가 범해왔다.

### 1. 정의 및 분류

흔히 정신지체 그러면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는 잘 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아동들의 집단도 다양한 정도와 특성을 가진 아동들의 집합이다. 단순히 지능뿐 아니라 연령에 맞는 적응행동의 발달 여부도 정신지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즉 학령기에는 학습행동, 성인기에는 직업이나 주거에 관련된 행동들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지능지수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지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적응행동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일 때 비로소 정신지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정신지체인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주어지는가의 여부도 정신지체를 정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206)</sup>

미국 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ed)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1992년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는 현재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성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 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교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206)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53.

유의하게 평균이하인 지적 기능이란 IQ 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1973년부터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표준편차 2 이하(70 이하)를 정신지체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지능검사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결정 요소가 아니기에 조금 융통성을 두어 지능점수의 기준을 70-75 사이로 적용하고 있다.<sup>207)</sup> 이는 지능검사 점수 1, 2점보다는 적응기술<sup>208)</sup>에 대한 전문가와 주위의 임상적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로 IQ가 70점이라도 적응기술에 문제가 없다면 정신지체로 판별되지 않고, 역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적응기술을 정신지체 판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6시간 정신지체아'에서 시작된다. 학교에 있는 6시간 동안은 정신지체아로 분류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집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정신지체아로 분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업 성취와 지능검사만으로 정신지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sup>209)</sup>

미국 정신지체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능도 다면적인 개념으로 보고 개념적 지능(conceptual intelligence), 실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세 측면으로 나누었다. 개념적 지능은 주로 IQ검사로 측정하며, 실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은 정신지체 정의의 적응기술의 측면의 기초가 된다. 실제적 지능은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지능은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210)</sup>

1992년 미국 정신지체협회가 신지체의 정의에 포함한 적응기술영역은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교과, 여가 직업기술 등이다.<sup>211)</sup>

정신지체의 분류와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것이 있다.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 1973

207) Ibid., 54.

208) 적응기술(adaptive skill)은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이 포함되며 지적 능력과 함께 정신지체의 주요 요인이다. 이것은 대개 적응행동검사로 측정한다. 이것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미국에서 보고된 "6시간 정신지체아"에서 촉발된 것이다. Ibid., 50 참조

209) Ibid., 55.

210) 박승희,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24.

211)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55-57.

년에 분류한 것으로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로 가장 많이 쓰이던 분류이다. 1992년도에 개정된 정의 및 분류에서는 정신지체아에게 요구되는 지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간헐적(intermittent) 지원, 제한적(limited) 지원, 확장적(extensive) 지원, 전반적(pervasive)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기준은 IQ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경도 정신지체는 대략 IQ 검사 점수가 55-70, 중등도는 40-55, 중도는 25-40, 최중도는 25미만인 경우를 말한다.<sup>212)</sup>

장애정도	발달특성		
	학령전기(만0-5세)	학령기(만6-20세)	성인기(만21세 이상)
경도	진단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적 학업기술과 직업전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정신지체로 낙인찍히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중등도	임상적 진단 (예: 다운증후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조기술과 기능적 학업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감독 하에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경쟁고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도	운동 발달이 늦다: 약간의 의사소통 가능: 지체장애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 필요를 스스로 돌볼 수도 있다: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다	직장과 주거환경에서 감독 하에 기능할 수 있다
최중도	반응이 별로 없다: 복합장애가 흔히 있다	운동발달이 느리다: 기초적 자조기술을 배울 수 있다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기초적 필요를 돌볼 수 있다

표 1> 정신지체의 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sup>213)</sup>

미국 정신지체협회(1994년)는 요구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정신지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sup>214)</sup>

212)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서울: 학문사, 1997), 32. 이전에 사용되던 교육가능급(EMR: educable mental retardation), 훈련가능급(TMR: trainable mental retardation) 등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분류하는 것을 많이 쓴다.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57.

213) Ibid., 58.

&lt;표 2&gt; 요구되는 지원 강도에 따른 분류

분류	지원의 강도
간헐적 지원	필요할 때에 기초한 지원, 간헐적 성격으로 특징되며 개인은 항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인생에서 전이 시기 동안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예: 직업 상실, 심각한 의료적 위기)한 경우, 간헐적 지원은 고강도 혹은 저강도로 제공되어진다.
제한적 지원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그러나 간헐적인 것이 아닌 시한 제한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예: 시간제한적인 고용훈련, 혹은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이적 지원제공 등).
확장적 지원	적어도 몇몇 환경에서(직장 또는 가정)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으로 특징되며 시간제한적은 아니다(예: 장기간의 가정생활 지원)
전반적 지원	환경구성고 고강도의 지원으로 전반적 환경들에 걸쳐서 제공되며 잠재적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것으로 특징된다. 전반적 지원이란 전형적으로 확장적 또는 시간제한적 지원보다 더 많은 수의 요원과 개인에게 더 개입적(intrusive)일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

현재로는 전통적인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 생각하는 것은 정신지체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지체를 규정하는데 적응행동의 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준이 없기에 자칫 잘못하면 IQ지수만을 가지고 규정하기가 쉽다.<sup>215)</sup>

## 2. 원인과 특성

정신지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정신지체인 중 20퍼센트 이하에서 밝혀진 것은 100여종이다. 그러기에 정신지체아동 중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정신지체인 대다수는 신경학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며 신체적 흔적이나 정신적 지체에 관련된 임상적 실험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정신지체인들은 경도정신지체인들이고, 그 원인은 심리적, 사회적 또는 유전적 요인과 상호관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sup>216)</sup>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들은 특정한 질병이나 두뇌손상에 기인한

214) 박승희,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48.

215)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58-59.

생물학적 경우가 많으나 발생률은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좀더 지원이 덜 필요한 경우도 정신지체아동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217)</sup> 라메이(Harney)와 핀켈스테인(Finkelstein)은 사회심리적 원인과 연관되는 확인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모성적 요인들(IQ 80 이하 또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들과 적극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어머니), 둘째, 가족요인(혼란된 가정, 많은 자녀 수), 셋째, 출산 전의 주의 부족, 넷째, 낮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있는 복합적 언어패턴의 환경 등이다. 의학적인 분류의 유형은 감염과 중독(풍진, 매독, 약, 알콜, 담배, 세균 감염 등), 외상 또는 신체적 원인(저산소증, 방사선조사 등), 신진대사와 영양 장애(갑상선 이상, 이미노산 장애 등), 출생 후 중증 뇌질환, 원인불명의 출생 전 영향(무뇌증, 소두증, 수두증 등), 염색체 이상, 태아기 발병(조산, 만산, 난산, 체중과다 등), 정신병적 이상, 환경적 영향(심리 사회적 불리한 조건, 감각 기관 사실 등)이다.<sup>218)</sup> 각각에 대한 주요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은 염색체의 이상, 즉 21번째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인데, 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몽고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몽고리즘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요즘은 다운증후군으로 부른다. 출현율은 정신지체 전체의 약 5-6퍼센트에 달한다. 외모적 특징을 보면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서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며, 코가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눈이 약간 위로 올라갔으며 난시나 사시가 많다. 입이 작고 입천정이 낮아 혀가 입에 꽂 차는 것처럼 보인다. 쉼 듯한 목소리가 많고 언어발달도 느리다. 또한 손이 작고 네모진 것이 특징이며, 키는 평균보다 작고 종종 비만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심장기형, 시각장애, 호흡기 질환, 백혈병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산모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나 40세 이상인 경우에 이런 아이의 출산율이 높다.

둘째,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PKU)은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바꾸는 신진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비정상적인 두뇌발달을 초래하게 되는 유전자 대사장애이다.

셋째, 약체 X 증후군은 23번째 성염색체의 X 염색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여성

216)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33-34.

217)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60.

218) Ibid.



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정신지체뿐 아니라 머리가 크고 얼굴이 길고 좁으며, 이마와 턱이 약간 튀어나오고, 코가 넓은 등의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

넷째, 두뇌의 손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풍진이나 매독 등의 질병을 산모가 앓았을 때에는 태아가 정신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풍진은 임신 초 3개월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다. 뇌막염, 뇌염, 소아 AIDS, 약물남용, 영양실조, 방사선, 조산, 출생시의 뇌 손상, 담배, 술, 카페인 등의 영향이 이를 발생시킨다.

정신지체인은 지체의 정도,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의 범위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대략적인 특성 밖에는 언급될 수 없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인지 및 학업성취,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이들의 행동특성은 충동이나 긴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판단력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경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상인과 상이한 행동특성이 나타난다.<sup>219)</sup>

## 제 2 절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회의 태도

앞에서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와 분류, 원인과 특성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정신지체는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프공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본 연구자가 제한하여 연구하는 Living Church에 장애아동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정신지체장애를 안고 있다. 예배시간에도 그 가운데 설교시간에도 세 아이의 엄마인 정신지체 자매는 10분도 앉아 있지를 못한다. 아이와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한다. 이런 특성의 정신지체인들을 교회는 그동안 어떤 인식을 가졌으며,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복음서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종류의 속박이든지, 그것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착오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물이 서서히 죄어왔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못박혀 죽으셨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도 선교사역을 위해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으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은 여전히 속박당하고 투옥되고 반대에 부딪혀 죽게 되었다.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갖지 못한 사람

219)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34-35.

들에 의해 옮겨지고 전파되었다.

사도바울의 서신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 바울은 모든 반대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고전 2:3) 수행된다는 것은 이러한 위임의 특징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약함과 무기력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의 특징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의 진실성 여부는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였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사실에 달려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의 인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후 6:4). 바울의 '몸의 가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고통을 겪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로마서 8장에서 보여 주듯이 모든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난에 얼마나 참여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고통 가운데서 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롬 8:22).

교회가 강하다고 선포될 때 약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약함에 동참할 때 진정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된다. 교회의 생활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어디인가? 장애인들이 가진 은사 없이는 교회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기는가? 주님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결코 그들의 질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취급하시고, 능력의 말씀과 행동으로 원수를 좇으시며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죄에 속박되고 하나님과 불화한, 평범한 인간들과 동일시 될 것을 받아들이셨다. 바울도 약함에서 강하게 되는 역설을 보인다. 골로새서 1장 24-29절의 "바울도 돌보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매우 열심히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포기하는 믿음과 싸우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보여준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한계에 저항하는 믿음 둘 다가 있는 곳이다.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회는 저항하는 믿음과 수용하는 믿음 둘 다를 가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교회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해 단순히 치유하고 정의를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저 치유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증거와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증거가 전체 교회 증거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한 부분이 될 때에야 비로소 이 증거가 다시 사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다시 사신 주님이라는 복음이 사실이 된다. 강한 사람이 스스로를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주변인물로 본다면 그것은 강자의 착각이다. 교회는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만약 교회가 장애인들이, 사람에게 손이나 팔같은 긴요한 지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통치하시는 분, 다른 사람은 구하였으되 자신은 구하지 못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다.<sup>220)</sup>

성경과 주님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장애인이 없는 교회나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는 예배 자체를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을 만큼 장애인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받았는데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 부정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전체 수에 대한기독교인의 수, 5퍼센트 미만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장애인을 만날 확률은 비장애인 신자 천 명 당 장애인 신자 서너 명 꼴이다.<sup>221)</sup> 여전히 무관심과 차별의 편견이 심하고 그들을 단지 동정이나 구제의 대상

220)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18.

221)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956,00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추정하며, 이중 정신지체인은 약 84,000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제보건기구(WHO)나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구의 10퍼센트가 장애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장애출현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장애출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장애적용기준의 차이와 사회적인 편견으로 실태조사시 장애인구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400만이라는 수는 엄청난 숫자임에 틀림없다.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복음화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 10퍼센트 미만이며, 정신지체인의 경우 5퍼센트 미만임이 밝혀졌다.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로 잡고, 총 기독교신자수 대비 장애인 기독교 신자를 볼 때 천 명 당 3, 4명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장애인선교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 보고서, 1993, 참조.

으로 국한하려는 고집이 여전히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부족 또는 그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회의 무언의 배척이다. 최근 한국의 제일 큰 교단 총회장의 여성 비하 발언 소위 '기저귀 발언'<sup>222)</sup>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무력했다.<sup>223)</sup> 우리나라의 유교적 배경을 가진 농경사회의 특성은 이질성을 배척하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농경문화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와 대자연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했고, 노동력을 결집하여서 자연을 일구어야 했다. 따라서 농경문화에서는 노동력의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즉 오체구족(五體俱足)한 사람만이 그 시대의 보편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224)</sup>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 맞춰 보편인간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띤 사회는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전품일절주의(全品一切主意)가 판친다. 쓸모 있거나 없거나를 따지지 않고 세트로 구입하는 세트주의가 판을 친다.<sup>225)</sup> 요즘 현대 사회의 생존 전략과 남들과의 경쟁에서 좀더 우위에 설 수 있는 하나가 독특한 개성이다. 스타일, 패션, 장기, 재능 등 남들과 달라야 인정받고 성공한다. 그런데 그 예외의 대상이 있다. 그들의 다름은 환영이 아니라 냉대이며 박수갈채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장애인이다.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100여개 되는 장애인 선교 단체가 특수선교라는 이름으로 주로 감당하고 있다. 장애인 선교는 그 누군가만 하는 제한적인 선교인가? 특별히 소명 받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선교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경영논리나 상업논리에 따라 성장 위주 일변으로 달려왔다. 성장의 속도가 더디는 사역은 뒤로 미뤄왔다. 지금까지 장애인 선교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성장 즉 외적 팽창인 큰 건물

222) 여성안수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나 한국의 가장 큰 교단에 총회장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성스러운 임신의 가능성과 관련된 생리를 암컷의 정도로 분류하는 단어를 선택한 비인격적인 발언이다. 기독신문, 2003년 12월 10일, 2.

223) 안교성, "장애자는 교회교역의 문제이다," 22-24.

224) 신현기, "경도장애아동의 학습이론과 교수법의 실제," 제7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2003, 7.

225) Ibid.

이나 많은 성도, 많은 헌금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성장의 정체 아니 하향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제야 저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특히 앞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듯이 정신지체인에 대해 교회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거둬낼 수 없는 사람들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대상이다. 이들 중 85퍼센트 정도는 경도 및 중도의 사람들로써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이며, 나머지 15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발달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2-3퍼센트의 최중도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불치의 병으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도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나름대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며 교육적, 사회적, 훈련 면에서 재활이 가능하다.<sup>226)</sup> 에드워드 세귄(Edward Seguin)은 많은 정신지체자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교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sup>227)</sup>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가,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이들은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위한 봉사의 즐거움에 함께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sup>228)</sup>고 말한 것을 보면 이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다. 메리 테오도레(Mary Theodore)도 “정신 연령이 3-7세 정도 되는 심한 정신지체인도 선악에 대해 제한된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는 어떤 도덕적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의 책임의 정도는 작은 것이다”<sup>229)</sup>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가능성을 지적해 주었다. 이제 교회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성경의 선교보편주의(마 28:18-20; 막 16:15; 행 1:8 등)에 입각해서라도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자 역시 3년째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관찰한 결과 정신지체인들 역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있는 자들이다. 교회는 어떤 편견도 없이 저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고, 교육하여 저들에게 말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26) 조운경,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1992), 29.

227) Robert Ingalls, 정신지체아교육의 원리와 실제, 김정휘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4), 148.

228) Edward Seguin, Idiocy and Its Treatment by the Physiological Method (New York: Columbia, 1907), 47.

229) Mary Theodore, The Challenge of the Retarded Child (Milwaukee: Bruce, 1959), 153.

### 제 3 절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회 교육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을 마치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부르러 나간 집주인에 비유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아침 일찍이 선택되어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지만 일을 마치는 시간에서야 선택되어 일하러 온 사람도 있다. 아마 허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아니면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인은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간 것이다. 일이 마친 후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것도 늦게 들어온 사람들 순서로 주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철저히 기회균등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sup>230)</sup>. “어떤 장애라 하더라도 권리의 확보는 무차별 평등이어야 한다”<sup>231)</sup>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균등을 외치고 있다. 이제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교회교육도 비장애 아동들의 교회교육의 기회에 조금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1.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교회 교육의 목적과 원리

제임스 스마트(James Smart)는 그의 저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에도 주력해야 한다”<sup>232)</sup>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책임은 교회전체 위에 지워진 일이다.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다. 교회학교하면 주일학교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는 극히 제한된 교회교육이해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제한이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신지체인들을 단지 구제의 대상에만 제한하고, 결정론적인 생각으로 교육할 수 없고, 교육의 효과도 없기에 교육할 필요도 없는 자들로 간주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를 보게 된다. 산업사회로

230) 신현기, “경도장애아동의 학습이론과 교수법의 실제,” 9.

231) UN인권위원회 편, 인권과 장애, 이익섭 역 (서울: 한국DPI,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2), 95-96.

232) James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11.

인한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공교육마저도 인격적인 만남의 학습이 불가능하게 된 이때에 교회 공동체중심의 교육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의 정도를 불문하고 다 주님의 몸으로써 한 몸 의식을 세워줘야 한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 그들은 기존 바알문화권의 막강한 힘 앞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사실을 그들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공동체를 이룩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했던 사실을 본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지상에서 그의 제자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오늘까지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거하고, 더불어 살도록 교회공동체(그리스도의 몸)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sup>233)</sup>

주일학교에 국한된 교회교육은 교회교육의 영역을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었고, 학교식(schooling) 교육체계의 제한성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교육구조에서 탈피해서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회교육을 제안했다. 복음주의 교육신학자인 리차드(L. O. Richards)는 교회가 세상의 기관(organization)과 구별되는 것은 유기체(organism)란 점이다. 즉,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체를 이루는 신자들과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 신앙생활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교육이란 전통식 학교식 교육에서 강조되는 지식(내용)전달보다, 하나의 몸(organism), 곧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산출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34)</sup> 생명을 지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동력은 관계성(relationship)에 있다. 그러기에 교회교육은 항상 이 유기체의 “관계성”에 유의해야 한다. 생명의 교류가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기독교 교육의 방법 역시 상호인격적(interpersonal)이어야 한다.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재양식은 사랑과 친교에 있다. 따라서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 전체, 신자 상호간의 행동 전체를 교회의 교육적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sup>235)</sup>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장애인들, 특히 정신지체장애자는 상호인격적인 관계

233)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151-152.

234) L.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The Zondervan Co., 1978), 117.

235) Ibid.

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당연히 해왔다. 결국 그들을 교회의 교육적 사역에 대상에서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제외시켜 왔다. 또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관과 같이 생각하고 경제성논리로, 강자의 논리에 의해 이 문제를 풀었던 것이다.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는 그의 책 Will Our Children Have Faith?에서 미국의 교회학교를 비판<sup>236)</sup>하면서 교회교육의 학교화 현상을 교회교육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교회학교 중심 교육이 기독교교육을 희생시켰고, 세속적 교육(pedagogy) 안에 기독교교육을 감금시켰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faith community)를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맥락과 내용과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동화된 신앙 안에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Christian Identity), 신앙공동체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사회화과정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sup>237)</sup> 니버(H. Niebuhr)도 공동체의 전 생활이 가르치는 기능을 갖게 되고, 공동체 멤버 전체가 가르치는 책임을 받아 드린다고 보고, 동시에 연령, 성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학습자로 가정했다. 학습은 일생 중 특정 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과정이 곧 학습이다. 공동체의 생활 자체가 곧 기독교교육의 내용이다. 배움의 자리(setting)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된다고 모든 이들의 주장을 요약한다.<sup>238)</sup> “교회의 교육적 목적에 있어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sup>239)</sup>이 중요하다.

흔히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답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sup>240)</sup>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의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236) John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Dress, 1976), 1-25.

237)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157.

238) C. R. Foster, The Faith Community as a Guiding Image for Christian Education,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63.

239) Ibid., 70.

240) 딤후 3:17



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번연(H. W. Byrne)은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이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행위를 배우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241)고 본 것이다. 그는 이 기본적인 목적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목적에 관심을 모았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 존엄성을 기초로 개인이 가지는 능력의 정도와 장애의 종류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장애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데 근본이념을 두어 아동의 내면의 소질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개발시켜주자는데 찾았다. 이는 일반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베이커(Baker)도 특수아는 장애와 결손, 이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육목표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고, 가튼(Garton)도 “장애아 하나하나가 그들의 능력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기회를 주어, 아동이 가진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독립 자활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본다.”(242)

정신지체자의 기독교교육 원리는 앞에서 주어진 목적 즉 “상호인격적인 유기체의 관계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인격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243) 앞에서 교회를 유기체로 본 것은 교회 존재의 기본요소 중 발달(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교회는 개체의 발달과 몸으로서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능수행 상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레이브(A. W. Graves)가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말보다는 교회자체가 곧 하나의 프로그램”(244)이 되는 것이다. 윌리(R. L. Worley)는 교회교육을 어떤 특정 프로그램

241) H.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1988), 105. 천정웅은 이것을 기초로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4가지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들어 세분한다. 첫째는 “그 키가 자라며”에서 신체적 목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적 목표, 셋째는 “지혜가 자라며”에서 정신적 목표, 넷째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며”에서 사회적 목표를 들고 있다: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 (서울: 지혜문화사, 1986), 43.

242) 구본권 외, *특수교육학*, 13-14.

243)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157.

244) M. J. Tayler, ed.,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램이라기보다 “전체 회중의 표현”(an expression a total congregation)<sup>245)</sup>으로 규정한다. 결국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교회 안에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상호 작용을 줌으로, 서로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는 목표를 향해 성장해 간다. 장애인이 통합된 환경 가운데 교회에서 세움 받음으로써 온전해 지는 교회의 유기체적 성향에 극히 일치되는 교육 원리이다.

특수교육학에서의 정신지체자를 교육하는 원리는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인지능력을 살펴 이에 맞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개별화 교육을 중요하게 본다. 교육목적은 이미 살펴본 대로 일반교육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 특수아동들은 정상성에서 벗어난 점 때문에 특별한 시설과 특별한 교육방법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교사와 많은 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 특수아동을 발견하여 효과적인 교육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특수아동들은 동일 영역의 장애라도 개인차가 심하므로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많은 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대다수의 특수아동들은 의학적인 서비스, 특별한 시설, 특수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훈련과 학급의 크기를 필요로 한다. 특수교육의 과정에는 선별, 진단, 교수, 평가의 4가지 요소가 있다. 특수아동은 필요한 만큼만 특수교육전문 영역에 배치하여 교육받게 하되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게 한다.<sup>246)</sup>

최근 특수아동들을 통합교육(main-streaming)시키자는 움직임과 함께 학교 학습에 문제점을 가진 아동들에게 개별지도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같이 이루어졌다. 다른 명칭으로 개인별 처방지도(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라고도 하는데 아동들의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진단하고, 배운 것은 행동적인 용어로, 아동이 인식하거나 느끼는 것에 대하여 보다 구체의연하고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아동이 직접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 즉,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신지체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들로는 단순하고 간결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산만한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107.

245) R. L. Worley, "Church Education as an Organization Phenomenon,"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137.

246)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82-83.

하며, 한번에 한 가지씩만 지도하고, 구체적인 실례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반복훈련을 시켜야 효과적이다. 뇌 손상에 의해 단기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강화<sup>247)</sup>를 통하여 행동이 발생한 후에 제공되어 그 행동의 미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입식교육 보다는 청각, 시각, 촉각 등을 포함한 다감각적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안아주고 두드려 줌으로써 사랑과 승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며,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이 쓰여 질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 2.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앞에서 특수교육은 인간 존중 사상을 토대로 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고 개성을 신장시켜 사회에 바람직하게 참여토록 함으로써 특수아동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요구된다. 던(L. M. Dunn)은 특수교육에서 “특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자문으로 다음과 같이 이들의 학습 환경을 “특별히 잘 훈련된 전문적인 교사(special trained professional educators), 특별히 설계된 교육과정(specially methodology), 특별히 고안된 교수매체(specially instructional materials)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이루어지는 것”<sup>248)</sup>이라고 하며 강조한다. 이는 결코 교육목적이 일반교육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수아동이 갖는 일반아동과의 공통성을 살려가면서, 대상아동의

247) 바라던 행동이 발생된 후 그 행동의 미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유쾌한 사건이 강화다. 정적강화와 부적강화가 있다.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의 예로 칭찬, 자유놀이 등의 특별한 기회제공, 좋아하는 놀이시설 이용하기 등이 있다.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도 행동의 미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앞으로 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예로 교사나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숙제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잔소리라는 싫어하는 자극의 제거를 통해서 숙제하는 행동이 부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소현,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지도,”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서울: 한장연, 1998), 29-30.

248) L. M. Dunn, ed.,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3), 60

특수성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만 특수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249)</sup>

교실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학습 활동에의 참여와 습득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실내 온도나 조명, 소음 등 환경적 변인들은 아동의 행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로 입증되었는데, 대부분 교사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쉽게 수정될 수 있다. 교실 내의 공간과 교재 배치, 학생의 수에 의해서도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교실에서의 규칙은 학생들의 행동을 조절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후속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의 역할도 한다. 아동들은 규칙이 자신들을 조절하려는 성인들의 규제로 생각할 때보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으로 생각할 때 규칙을 더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0)</sup>

사회적 환경은 아동 주도의 학습시 성인의 역할에 대해서 국한해서 볼 때, 던스트(Dunst) 등은 어린 아동들의 상호작용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성인은 아동의 주의집중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의 행동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 성인들은 아동의 행동은 상호작용을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수활동이 아동행동의 의도가 이해될 때 가장 잘 수행되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물리적, 사회적)은 아동의 행동에 반응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적응 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행동들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성인들은 아동의 진행 중인 상호작용을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좀더 복잡한 행동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아동에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탐구하게 하며, 반응을 다양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비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sup>251)</sup> 이 두 환경조건이 적절히 맞아야만 교육의 효과는 더욱 나타날 것이다.

아동들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덜 도피적인 행동을 보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249) 구본권 외, 특수교육학, 14-15.

250) 이소현, "장애인 교수 방법론," 334-336.

251) Ibid., 27-28.

서 교육자들은 특정 교재나 놀이친구, 활동 등에 대한 아동의 선호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252)</sup> 물리적인 공간과 활동은 학습될 행동과 학습할 아동의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놀이 활동의 구성도 개별화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아와 장애아 모두에게 상호행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놀이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sup>253)</sup> 앞에서 교회교육의 목적을 “상호인격적인 유기체의 관계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인격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sup>254)</sup>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책임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상호행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1이다. 물리적 공간이 전체 인원에게 비해 너무 좁거나 넓은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편의시설이, 화장실, 주방, 수면실 등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으로 지향해 갖춰야 한다. 실내의 채색이나 인테리어는 집과 같은 느낌을 주는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지면 더욱 좋겠다. 난방기구는 열기구 보다는 보일러가 좋겠고 카펫보다는 장판이 좋다. 교육 부자재들은 다루기가 쉬워야 한다. 음향은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편안하게 들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좋고, 무선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교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신지체장애아의 다감각을 자극하는<sup>255)</sup> 교사의 모든 기관을 이용한, 풍성한 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으로 끊어 반복 교육을 하는 환경은 주의가 산만하고 단기 기억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설교를 포함한 전체 예배를 20-25분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도는 서너 문장이 넘지 않는 단문으로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포옹이나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사용한다. 이들에게 이런 신체 접촉은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교회를 위해 이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 헌신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가끔 학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교육도 효과적이다.<sup>256)</sup>

252) Ibid., 28.

253) Ibid., 29.

254) 오인택, 기독교 교육론, 157.

255) 시청각 교육이 제일 효과적이다. 미각은 교육효과가 1퍼센트에 그치고 감각을 통한 교육은 1.5퍼센트, 후각은 통해서는 3.5퍼센트, 청각을 통해서는 11퍼센트, 시각은 83퍼센트, 시청각은 94퍼센트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해용, “효과적 설교,” 제1회 장애인선교 지도자 세미나, 47.

256)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흥성사, 2003), 159-161.

교사는 프리맥 원리(Premack Principle)<sup>257)</sup> 같은 강화물로 아동들의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강화물이 주어질 행동 반응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 행동 반응이 있는 즉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회적 자극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특정 서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up>258)</sup>

### 3.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주일 환경

이미 살펴본 정신지체의 분류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한 경도나 중등도에 해당하는 정신지체장애가 전체의 85퍼센트 정도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회균등의 원리’(마 20장)는 교회가 주일에 비장애아동들을 교육한다면 당연히 장애아동들도 교육해야 한다. 저들에게 배려하듯 이들에게도 배려해야 한다. 비장애아동들을 교회가 지체로 대우하고 유기체의 구성원으로 대우하듯, 장애아동들 역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85퍼센트의 경도 장애아동 외에도 최중도의 장애아동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장애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sup>259)</sup>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표시가 십자가라면, 교회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한계에 저항하는 믿음 둘 다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용기 있게 대항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속박을 수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싸워야 하고 언제 어디서 져야 하는지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싸워야 할 때 지고, 져야 할 때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sup>260)</sup>

인간들은 타락함으로써 자기보다 나은 자, 뛰어난 자와 자기를 동일화시킴으로써

257) 프리맥 원리는 자주 발생하는 행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행동에 뒤따라 일어날 때 낮은 발생율의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로 한 장애아가 단체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그가 자주 트럭과 집짓기를 한다면, 교사는 단체활동을 했을 때만 트럭과 집짓기를 가지고 놀도록 허용한다면 단체활동의 참여는 증가할 것이다: 이소현, “장애인 교수 방법론,” 31.

258) 주스가 강화물이라면 아이가 컵을 들고 “더, 더”라고 말한다면 “주스 더”라는 분명한 명시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행동반응이 있는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대한 행동보다 후속예 다른 행동을 위한 강화물로 착각할 수 있다. 칭찬이 사용될 때 “잘했다”보다는 “퍼즐을 잘 맞추었구나”라고 특정서술을 해야 효과적이다. 가능하면 강화물은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bid., 32.

259) 한성기, 하나님의 가족 (서울: 잠언, 1997), 25.

260) Geiko Muller-Fahrenholz,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18.

자기만족을 얻으려 하는 반면에, 자기보다 낮은 자, 없는 자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어 버렸다. 주님은 시대적 사상이라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sup>261)</sup> “함께 하는” 생활이야말로 붕괴하고 있는 문명 중에서 우리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sup>262)</sup> 사천 명의 무리에게 떡을 먹이실 때 떡을 무리에게 나누는 것이 제자이고 나머지 일곱 광주리의 떡을 모은 것도 제자들이다. 즉 곤궁한 자, 굶주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실천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sup>263)</sup> 이제 교회는 장애인들, 특히 지금까지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주일환경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잘 훈련된 전문적인 교사(special trained professional educators)’, ‘특별히 설계된 교육과정(specially methodology)’, ‘특별히 고안된 교수매체(specially instructional materials)’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sup>264)</sup> 특수아동이 갖는 일반아동과의 공통성을 살려가면서, 대상아동의 특수성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만 특수교육적 조치를 취해,<sup>265)</sup> 주일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신지체아동들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기숙학교들이 많이 있기에 학교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갖는 것도 주일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여 비장애아동들과 같이 교회에 머물며 생활하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그들의 눈높이로, 최선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 가. 정신지체아동들이 드리는 예배

261) 박천만 외,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인, 98-99.

262) Ibid., 108.

263) Ibid., 136.

264) L. M. Dunn, ed.,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28.

265) 구본권 외, 특수교육학, 14-15.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지체인들과 통합 예배가 가능할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며,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교회에도 정신지체 12명 중 장년부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나 중등도 정도나 되는 자매만이 주의가 산만해 자주 자리를 뜨는 것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정신지체인들 중에는 85퍼센트 정도가 학습이 가능하다. 결국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음 새 신자들도 몇 차례 계속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는 예배의 환경들이 낯설 것이다. 그런 후 점차 적응하듯, 이들 역시도 적응 기간이 좀 긴 차이뿐이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당연한 행위이다.<sup>266)</sup>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존 헉스 러블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대화이며 응답의 현장이라고 말한 것이다.<sup>267)</sup> 클락(Neville Clark)은 “예배는 신의 행위와 인간의 응답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속적 만남의 장소”<sup>268)</sup>라고 했다. 아바(Raymond Abba)는 “바로 계시와 응답의 가장 실감나는 현장”<sup>269)</sup>이라고 말했다. 정일웅은 “기독교의 예배란 그 낱말의 의미가 뜻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봉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봉사는 곧 공적인 예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봉사로써 섬김의 신앙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sup>270)</sup>으로 정의했다.

구약의 예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내산 사건, 성전과 회당, 그리고 절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지면관계상 시내산 사건만으로 예배의 요소를 살펴보고 한다.<sup>271)</sup> 첫째, 이 만남을 소집한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와 이스라엘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각기 한 가지씩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를 무

266)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71.

267) Ibid., 67.

268) Clark, Neville, Call to Worship (London: SCM Press Ltd., 1960), 12.

269) 허경삼,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5.

270) 정일웅,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말씀사, 1993), 129.

271)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4-26.



론하고 각기 맡은 역할을 전원이 참여하고, 각 개인들은 합하여 하나의 조화된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본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조건들을 수락하기로 인정,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각자가 굳게 약속했다. 끝으로, 언약에 인(印)을 치는 비준의 극적인 상징으로 그 절정에 이른다.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듯이, 교회는 저들을 지체로 받고, 섬겨야 한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맡겨야 한다.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교단 기타 연주를 하며, 다른 시각장애인은 찬양 솔리스트로 사역하고 있다. 정신지체 자매는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역해주고 있다. 그들이 자기의 은사 활용을 함으로써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예배의 기능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sup>272)</sup> 첫째, 교육적인 면이다. 예배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한 가르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신앙고백이 중심을 이룬다. 예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이다. 그것은 삶의 지표로써 선포되고, 개개인의 신앙강화에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둘째, 예배의 기도적 기능이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돌림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도 기도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예배의 축제적 기능이다.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축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장애인들, 특히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예배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예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유무를 확인하고 결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아들에게는 초인지가 부족하기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장애아 반으로 들어가기 전, 용변 상태를 확인해 보고 물리적 환경부터 예배드리기에 알맞은지 확인해본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자기 아이의 심리 상태도 간간히 확인해야 한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가라 앉아 있으면 좀 템포가 빠른 것으로, 좀 들떠 있으면 잔잔한 찬송을 선택하여 같이 부른다. 예배의 세 가지 기능적 의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배를 들어가는 신호를 알리는 찬송은 지정하여 부름으로써 예배 시작을 인지시

272) 정일웅, 기독교예배학 개론, 131-136.

킨다. 예배에 가장 큰 비중을 해당되는 설교할 때나, 기도적 기능면에서 즉, 찬양을 선택하거나 부를 때 저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예배 성격에 맞춰 준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지체아동은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에 비해 좋지 않기에 반복적인 설교나 가사의 찬송이 효과적이다. 또한 전체 예배 진행이 반복적일 때 효과가 크다. 즉 시작 전 찬송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중간 중간 전하는 말씀, 설교 말씀, 헌금 찬송이나 폐회 찬송 등이 그날 주제에 맞게 일관성을 띄우는 것도 반복의 효과를 가진다. 찬양할 때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율동을 하며 인도하는 것은 주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굳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일도 도울 수 있다. 가사를 율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해를 돕는다. 율동을 인도하는 자는 완전히 율동을 익힌 후 가르쳐야 하며, 반복되는 표현이나 쉬운 표현을 정확히 동작해야 한다. 한 단어에 많은 동작을 하지 말고, 청중을 바라보며 자신 있는 동작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짧게, 천천히,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발음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헌금은 미리 예배 전 헌금 봉투를 찾아 놓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아동 중 헌금 위원이 봉사할 때 헌금하도록 돕는다. 여러 가지 헌금 종류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십일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축약하면 좋을 것 같다. 정신지체의 특성에 맞게 예배의 소요 시간도 조절되어야 한다. 대체로 설교를 포함해서 20-25분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sup>273)</sup> 주일의 모든 환경이 저들에게도 배우고, 찬양하고, 축제에 같이하는 경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교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남이요, 말씀 안에서의 만남인 것이다.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sup>274)</sup> 말씀 선포를 통해 회중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시내산 사건'(출24:1-8)에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273) 김해용, "정신지체아 예배의 실제,"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서울: 한장연, 1998), 6-8.

274) 정일웅, 기독교예배학 개론, 147.

을레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한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설교의 기본도구이다.<sup>275)</sup>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신도들에게 이해가 되느냐하는 명확성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환경(physical context)이 영향을 미친다. 설교자와 성도의 상호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명확성을 위해서 메시지의 기호화(encoding a message)<sup>276)</sup>가 필요하다. 또한 메시지가 신도들에게 관련성이 있도록 기호화해야 한다. 설교 언어는 신도들이 쓰는 평이한 말로, 가장 간단한 말로 표현해야 한다. 메시지의 주요 개념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소음’(nois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메시지의 양과 전달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sup>277)</sup>

정신지체아동들이 성도일 때 설교는 더욱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야 한다. 설교 때 아이들의 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들의 심리적 한계점에서 관점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메시지가 그들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간단한 그들 수준의 단어들로 설명하는 것이다. 내용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단계별로 전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한다.<sup>278)</sup> 서울 사랑의 교회 김해용은 “개념화 교육(animation, slide, video, 인형극, 연극 등)-그림자료 설교-animation 반복상영-공과 교육-연결활동-대그룹운동 등 동일한 주제를 4-6회 정도 반복교육을 할 수 있는”<sup>279)</sup>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신지체아동들은 특성상 산만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언어 장애나 자폐 같은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천태만상이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시청각 교육이다. 시청각 교육은 교육자가 교육 내용을 피교육자의 오감을 통해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명확성이 뛰

275) 차원호,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4), 13.

276) 기호화란 한 사람의 생각을 전달에 적합한 메시지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각이 ‘기호화’ 되었을 때, 그것은 청취자에게 ‘애매성’을 주지 않고,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Ibid., 88.

277) Ibid., 79-99.

278)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다룰 수 있다.

279) 김해용, “정신지체아 예배의 실제,” 8.

어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며 관심과 흥미를 일으켜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뛰어나고 학습의욕을 증진시킨다.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경험을, 즉 객관화된 메시지를 객관화 성질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과거를 현실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추상화된 학습을 구체화시켜 산 경험을 준다. 교육효과를 위한 인간의 감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미각 1.5퍼센트, 후각 3.5퍼센트, 촉각 11.5퍼센트, 시각 87퍼센트, 보고, 듣고, 만지는 효과가 92퍼센트로 나타났다.<sup>280)</sup>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설교나 교육을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시각을 자극해야 하며, 시각도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청각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회 형편에 따라 선택이 다르겠지만 본 연구자가 경험해본 결과 인형극이 보다 큰 효과를 나타냈다.<sup>281)</sup> 비디오나 슬라이드, OHP, 프로젝트를 통한 대형 스크린의 만화영화 등도 많은 효과가 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35퍼센트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퍼센트 이상은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sup>282)</sup> 메러비언은 감정이나 태도를 남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보다도 비언어적 행동(nonverbal behavior)이 훨씬 효과가 있다. 표현된 감정=언어(7퍼센트)+목소리(30퍼센트)+얼굴표정(55퍼센트)라는 공식을 만들었다.<sup>283)</sup> 비언어적 기호는 음성언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사람의 인격, 느낌이나 감정 등도 비언어적 기호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인간관계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잠재적 효율성이 크다.<sup>284)</sup> 그러기에 설교자는 자연스런 동작과 적합한 손짓, 몸짓으로 목소리의 고저와 강약을 이용한다면 전달 효과는 더 커진다. 제스처나 얼굴표정 같은 행동 언어나 포옹, 악수 같은 접촉 언어도 커뮤니케이션에 큰 효과가 있다.

280) 이선희, 교회학교 교사교육 (서울: 나침반, 1994), 152.

281) 본 연구자가 목회하는 Living Church 주일학교에서는 매월 1회 인형극을 통한 예배를 드린다. 사실 정신지체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 실시된 교육 방법이었는데, 통합이 아니라 그저 무관심으로 섞여 있던 정신지체아동과 자폐아동의 집중을 보면서, 그리고 유치반~초등학교 전 학년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확연하게 효과를 느끼게 되었다. 그 후 교회 근처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주관 장애아동 캠프가 여름과 겨울, 1년에 2번 있는데 4차례 인형극을 통한 선교를 통해 특수교육학과 교수님들을 통해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282) 차원호,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107.

283) Ibid., 112.

284) Ibid., 120-124.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설교를 위해서는 특히 물리적 환경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인 시청각적 설교를 위해 자석식이나 용판식 설교판과 아이들의 시각을 자극해 줄 조명시설, 비디오카메라를 통한 녹화 시설 및 녹음시설, 프로젝트와 대형 스크린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 다.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과교육

정신지체아동을 구별 짓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학습, 사고, 언어적 기능(verbal skills)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이 약하거나, 느리거나 또는 결핍된 데 있다. 엘리스(Ellis)는 정신지체는 신경 계통의 손상(nervous system damage)이 기억력을 더욱 급속히 감퇴시킨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기에 새로운 학습문제를 처리할 때 실패를 기대하기 쉽다. 실패를 기대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학습결함을 지닌 것으로 보이게끔 된다<sup>285)</sup>. 이들과 정상아동과의 학습속도나 학습결함은 중요한 변인이 아니며 차이는 주의집중력과정(attention processes)에 기인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정신지체에 대한 결함이론(defect theories)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신지체아동들이 동일 정신 연령에 있는 정상 아동만큼 언어적 중개수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과제에 있어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sup>286)</sup> 이들의 특이성 가운데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STM)은 매우 제한적 저장 능력밖에 없으며 한번에 단지 두세 가지만을 수용할 뿐이다. 단기기억은 전화번호부를 보고 다이얼을 돌릴 때 잠시 기억하는 정도의 것이다. 단기기억에 있는 것들은 신속히 잊어버려지나 반복암송의 과정(process of rehearsal)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다. 엘리스는 정신지체아동은 이 단기 기억력에 결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경계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기억흔적이 보다 급속히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기억(LTM: Long-Term Memory)은 정상아동과 다르지 않다.<sup>287)</sup> 그러기에 정신지체아동에게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반복해주는 것이다.

285) Robert P. Ingalls,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335-339.

286) Ibid., 341-357.

287) Ibid., 362-370.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인지 발달을 도와주는 자극제가 되며, 경험과 인지 구조 사이에 균형을 확립하는 것은 인지 능력의 발달을 조성시키는 효과가 크다. 사람은 발달기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사실상 생애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지 구조를 경험에 맞추어 재조정시켜 나간다. 불균형 상태의 경험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유발의 역할을 발휘한다. 만일 어떤 경험이 너무나 친숙한 것일 경우이거나 인지 구조와 너무 밀접히 연관된 경우에는 아동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서 실증을 느낀다. 반면에 아동의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거기에 전혀 동화(同化, assimilate)하지 못하거나 어른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경험들이 많다.<sup>288)</sup>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공과지도에서 교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인지구조와 경험의 적절한 불균형, 인지 구조와 가장 이상적인 정도만큼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정신지체아동에게 공과교육을 가르칠 때 교육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목표는 예수님을 찾고, 그를 본받아 그에게 까지 자라는 것이다.<sup>289)</sup>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과내용은 52주를 통일성 있게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위한 성장이란 주제로 다양하게 반복 교육하는 형식으로 꾸며지는 것이 좋다. 쉽고, 짧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에는 아직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공과가 많이 개발되지 못했고, 몇몇 선교단체에서 개발한 교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다.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공과 진행은 주입식의 전형적인 교육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단기기억을 좀더 깊게 자극하고, 반복 작업화하여 장기 기억에 저장토록 보조 자료<sup>290)</sup>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내용 연구를 많이 함으로 주위 산만한 이들이 짧은 시간 집중하는 기회를

288) Ibid., 421-422.

289)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5)고 하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지체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149.

290) 보조자료는 연극이나 인형극, 그림자료, OHP, slide, CD-ROM title, animation 등 1차원, 평면적인 교육보다는 2차원이나 3차원, 입체적인 설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효과가 높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라는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하지 말고, 이보다 풍성한 ‘비언어’<sup>291)</sup>를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교사는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시청각 학습이나 다양한 학습교재는 인지능력이 약한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3차원의 대상물 곧 입체적인 사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2차원적, 그 다음은 평면 그림에 주의를 집중한다. 따라서 시청각 교육은 이들에게 높은 감성적 자극을 주어 흥미를 일으키며, 주의를 집중시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self-appreciation)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입체적 학습교재는 학생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꾸며볼 수 있어 대소근육 운동의 효과에 협응력을 높이게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sup>292)</sup>

<표 3> 시청각 교육의 효과

의사소통법	3시간 후 회상	3일 후 회상
시각만 사용	72퍼센트	20퍼센트
청각만 사용	70퍼센트	10퍼센트
시청각 동시 사용	85퍼센트	65퍼센트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먼저 정신지체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와 발달특성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 심방을 통한 여러 가지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신체적, 생리적, 습관적, 유전적, 사회적, 심미적, 학습적, 언어적 특성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교육의 효과적이다.

정신지체아동의 학습지도 방법에서 유의할 것은, 세권의 주장에 의하면 “감각교육은 심성(心性)의 교육에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 아래 모든 학습의 이전 단계로서 감각 근육운동과 신경 감각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은 신경계의

29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외모, 복장, 몸짓, 돌연한 행동, 음성, 눈짓까지도 해당된다. 말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35퍼센트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퍼센트 이상은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고 한다.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과 특별한 습관을 고쳐야 하며, 눈의 위치나 입의 모양, 특별한 손짓, 몸짓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자연스런 동작이 필요하다.

292) 김해용, “정신지체인 시청각 공과교육의 실제,” 제3회 장애인선교 지도자 세미나 (서울: 한 장연, 1999), 53.

결함 때문에 의지통제나 신체기관이 열약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근육운동 및 감각기관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지적 결함을 수반한 정신지체 아동의 교육방법은 감각행동을 통한 감각적, 체험적 학습이어야 하므로, 보다 발달 가능하고 효과적인 학습 수단으로서의 감각 운동의 향상 강화는 학습의 기초기체의 형성으로서 보다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293)</sup> 이런 의미에서 공과에 앞서 특히 굳어 있는 대소근육을 이완시키고, 감각 기관들의 서로의 협응을 키울 수 있는 운동과 같이하는 찬양이나 접촉언어(포옹, 악수, 등 가볍게 두들겨 주기 등), 간단한 ‘따라 하기’의 감각교육은 뒤 따를 심성교육이나 학습에 효과를 준다. 혼계할 때도 먼저 손을 꼭 잡아 주는 감각이 선행된 후 혼계는 치료적 효과가 더욱 크다.

그밖에 학습 지도상 유의할 점은 첫째, 치료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 지적 능력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할 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치료 효과가 있다. 둘째, 인간관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들은 지적 능력도 약하지만 사회적 적응능력도 약하다. 그러기에 공과 지도에서 아동상호간의 우정을 조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개인차에 유의해야 한다. 정신지체아동은 같은 장애라도 그 원인과 유형에 따라 발달이나 경험의 방법이 달라 개인차가 매우 심하다. 넷째, 자주성과 자발성을 증시해야 한다. 매사에 타율적이고 의타적이며, 욕구가 빈약한 이들에게 능력에 맞는 과제를 주어 성취에 의한 만족감과 성공감을 맛보게 해줘야 한다. 다섯째, 신체적 활동이 추가된 학습을 증시해야 한다. 학습이 감각이나 행동을 통하여 활동적, 작업적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들이 배운 내용을 ‘섬김’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 여섯째, 효과적인 환경정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인적, 물리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물리적 환경을 정비할 때, 자주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것으로 해야 하고, 묵은 작품이나 자료의 보관 방법을 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작품집을 같이 만들거나, 공동의 스크랩북을 만들도록 한다. 일곱째, 평가는 항상 개별적 평가를 해야 한다. 목표지향적이어야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의 평가가 중요하다. 여덟째, 소집단 활동이 증시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아동의 지도는 집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집단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 서로 친애, 신뢰하면서 협력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또래 친구를

293) Robert P. Ingalls,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637.



또래 교사로 활용하는 또래 주도적 학습<sup>294)</sup>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 증진시켜 심리적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된다. 아홉째, 다종다양한 반복연습이 필요하다. 이들은 한 가지 지식이나 기능도 숙달된 지식이나 기능으로 정착시키는 능력마저 열약하다. 그렇다고 단순한 반복의 연속으로는 흥미를 잃어 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은 열려있는 책이기는 하나 늘 성경이 내용이기에, 그러면서도 일반 아동들보다 제한된 내용으로 반복해야 하는 교육이기에, 연구하지 않고는 단순한 반복밖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된다.<sup>295)</sup>

#### 라. 정인지체아동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

우리는 앞에서 정인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교회 교육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해 사역하는 교육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장애아동 중 특히 정인지체장애아동을 교육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지능력과 적응력이 떨어진 이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기능하도록 인도하기란 더욱 어렵다. 특수교육이나 치료교육 같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자의 헌신이 먼저 장애인 부서가 조직되고 기능되는데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땡과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적인 자질로는 전문 지식보다는 사명의식과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최적이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복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그를 훌륭하게 교육하였다. 그는 전문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인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나 교수 방법을 익힌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애인 교회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맞춰 장애인부 교사는 그들이 장애를 극복

294) 정인지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연습과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방법으로 또래 교사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복습, 피드백 강화를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소현, “장애인 교수 방법론,” 67.

295) Ibid., 640-643.

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과의 상호인격적 교제를 통한 유기체의 일원이 되며, 나아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명의식과 헌신적인 사랑 위에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문 강사나 교회 안에 관계된 전문 인력을 통한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 정신지체장애아동의 교육은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 반복이 아닌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반복이기에 창의적이어야 한다. 부모나 가족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된 교육이 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장애 아동의 가정과 그 가족들의 영적 관리도 겸해야 하기에 세례 받은 신실한 성도이어야 한다.

보통 교회학교의 교사는 1년마다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부 교사는 그러서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특별한 일을 예외하고 최소한 2년 이상을 사역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맡아서도, 맡겨서도 안 된다.

정신지체장애아동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첫째,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296)라는 말씀처럼 특히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자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혹은 아비로, 혹은 어미로 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심한 관찰과 보호를 통해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둘째,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유기체의 일원으로써 기능하는 자로 세워 놓아야 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들의 삶에 치료를 통한 다른 지체들과의 통합이 전제되어 있다. 교회에서의 삶, 사회나 가정에서의 삶에 자신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깨우치기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며,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모델’(297)이 되어 주기도 해야 한다. 언어나 행동, 모든 것들이 아동들에게 시범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사 자체가 정신지체아동들에게 ‘모델’이 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영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활

296) 고전 4:15

297) 정신지체아동들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가운데는 교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링(modeling)의 방법’이 있다.

동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관심과 요구 그리고 흥미를 자세히 관찰한 후 적합한 교재 교구와 교육활동을 마련해 주고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화나 피드백이 이들의 교육에 효과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기에 그렇다. 넷째, 특수교사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특수교사는 개별지도나 그룹지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인지, 언어, 근육, 신변처리 훈련을 담당한다. 따라서 주일의 특수교사도 신앙교육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에 다섯 가지 영역을 고려해서 자주성과 자발성을 개발하는 계획 가운데 부분적인 도움을 줘야 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정신지체아동은 문자, 언어, 사고방식 등이 일반인과 다르기에 타문화권으로 본다면 이들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의 일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교사가 관할 기관에서 명부와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전도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사업가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물질적, 의료적, 환경적인 배려를 위해 일해야 한다.<sup>298)</sup>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콤스(A. W. Combs)가 말한 훌륭한 교사의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한다. 첫째는 교육과목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관한 정확한 지각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자아에 관한 정확한 지각을 가져야 한다. 넷째는 학습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교수방법에 관한 인간적 지각을 가져야 한다.<sup>299)</sup> 여섯째, 매주일 공과자료를 잘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분 사용 가능하도록, 누구나가 사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평면자료보다는 입체자료로 준비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일곱째,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98) 정형석, 장애아동 교회교육의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1994), 21-24.

299) 김일권, 사랑받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 장애인, 156.

## 제 5 장

###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로 보았다. 교회교육이란 전통식 학교식 교육에서 강조되는 지식(내용)전달보다, 하나의 몸, 곧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산출해야 한다.<sup>300)</sup> 생명을 지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동력은 관계성에 있다. 그러기에 교회교육은 항상 이 유기체의 '관계성'에 유의해야 한다. 생명의 교류가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기독교 교육의 방법 역시 상호인격적(interpersonal)이어야 한다. 교회 생활 전체, 신자 상호간의 행동 전체를 교회의 교육적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sup>301)</sup> 정신지체자의 기독교교육 원리는 앞에서 주어진 목적 즉 "상호인격적인 유기체의 관계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인격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sup>302)</sup> 그레이브가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말보다는 교회자체가 곧 하나의 프로그램"<sup>303)</sup>이 되는 것이다. 윌리는 교회교육을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전체 회중의 표현"(an expression a total congregation)<sup>304)</sup>으로 규정한다. 결국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교회 안에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상호 작용을 줌으로, 서로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목표를 향해 성장해 간다. 장애인이 교회에서 세움 받음으로써 온전해 지는 교회의 유기체적 성향에 극히 일치되는 교육 원리이

300) L. O.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Co., 1978), 117.

301) Ibid.

302) 오인택, 기독교 교육론, 157.

303) M. J. Tayler, ed.,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107.

304) R. L. Worley, "Church Education as an Organization Phenomenon," 107.

다. 최근 특수아동들을 통합교육 시키자는 움직임과 함께 학교 학습에 문제점을 가진 아동들에게 개별지도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같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교육의 목적을 사회통합에 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은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은 그 중요성이나 당위성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하지 못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스스로 외면했던 부끄러운 수치이다.

여기에서는 주일학교에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주일학교에서의 구체적인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제 1 절 통합교육의 이해

### 1. 정의

통합교육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정의들은 모두 비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안에 장애아동을 함께 배치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되며,<sup>305)</sup>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카우프만(Kauffman)은 통합은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물리적 통합과 교수활동적 통합, 사회적 통합으로도 통합하는 것”<sup>306)</sup>으로 정의함으로써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구분했다. 물론 장

305) S. L. Odom & M. B. Karn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an Empirical Base (Baltimore: Paul H. Brookes, 1988), 241-268.

306) 물리적 통합이란 시간적 통합(temporal integration)으로 일정 시간 동안 비장애아동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활동적 통합(instructional integration)이란 일반학급의 학업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통합되는 학급의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E. L. Meyen, G. A. Vergason, & R. J. Whelan, eds., Alternatives for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Denver: Love, 1975), 35-54.

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란 마지막 사회적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2. 통합교육의 배경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는 법적, 윤리-철학적, 교육적 등 3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이 발달된 미국의 법률을 보면, 비장애아동들의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 안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소제한환경(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07)</sup>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로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삶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sup>308)</sup> 시간제 특수학급(또는 자료실)에서 충분히 특수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해서는 안되며,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을 분리된 특수학교나 수용시설에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회교육에서도 비장애아동들과 같이 예배나 공과지도를 받을 수 있는 아이를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만의 제한된 집단에 분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이다.

최소제한환경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침에 의해 장애아동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최소제한환경은 개별 아동의 필요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을 분리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통합 환경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계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통합교육만 있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필요에 따라 특수교

307) Ibid.

308) D. P. Hallahan, and J. M. Kauffman,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94.

육의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최소제한환경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아동의 또래들의 필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가 장애아동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학생들의 필요를 무시함으로써 수업 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아동이 좀더 제한된 환경에 배치될 때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배경과 더불어 성립되는 윤리-철학적 배경에서 보면 '최소제한환경' 조항은 '정상화'(normalization) 철학을 반영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통합이 최상의 실제적 방법으로 생각되었다.<sup>309)</sup> 정상화원리란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믿음으로 1960년대 중반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이 원리를 장애인에게 적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목적과 수단이 가능한 한 비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 및 수단과 같아야 한다.<sup>310)</sup> 장애아동의 비통합교실 배치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과 분리되고 따라서 장애아동들을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장애아동들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문화에서 생활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측면에서의 통합교육의 당위성은 다음 세 가지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첫째는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분리교육이 장애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합교육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아직도 많이 있는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합교육으로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sup>311)</sup>

교육적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장애아동의 조기 통합교육의 중요한 배경이

309) L. J. Vincent, L. Brown & Getz-Sheftel, "Integrating Handicapped and Typical Children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 Definition of Best Educational Practi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81, 17-24.

310) W. Wolfensberge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1972), 23.

311) M. Guralnick, ed., Early Intervention and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78), 3-26.

되고 있는데, 교육적 배경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배경과 윤리-철학적인 배경을 위한 기초가 되기에 교육적 배경은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통합된 환경 안에 배치되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발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통합환경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은 장애아동들에게 나이에 적합한 행동의 모델이 될 것이고, 느리게 발달하는 아동들은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할 것으로 보았다.<sup>312)</sup> 장애아동들은 더 발달된 교육환경을 통해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촉진될 것으로 보았다.<sup>313)</sup> 이런 예측들과 연구결과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장애인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강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장애인들을 분리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움직임을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라 부른다. 이런 움직임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한 것이다. 탈수용시설화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의견은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의 수용시설도 장애인들에게 해가 되는지를 먼저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의견은 탈수용시설화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sup>314)</sup>

수용시설이 전혀 무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용시설의 크기나 위치 등 이런 물리적 환경보다 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계획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가 주요한 초점이 되어야 하고,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단지 저들의 돌봄이 어려워 수용하는 것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315)</sup>

### 3. 결과

그동안에 이루어진 통합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들의 진보는 통합 프로그램과 분리 프로그램에서 동등하게 나타났다. 둘째, 장

312) D. D. Bricker, & S. Sandall, Mainstreaming in Preschool Programs: How and Why to Do It, Education Unlimited, 29.

313) P. Strain ed., The Utilization of Peers as Behavior Change Agents (New York: Plenum Press, 1981), 31-68.

314) 이소현, 장애인 교수 방법론, 32.

315) Ibid.



애아동들이 통합됐을 때 그들은 사회적 행동과 구조적인 놀이를 보였다. 셋째, 통합 환경 안에 있는 비장애아동들에게서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sup>316)</sup> 넷째, 통합된 아동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실안의 성인들이다.<sup>317)</sup> 장애아동과의 단지 접촉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되거나 이해가 증가될 것이라는 확실한 결과는 없다. 긍정적인 태도는 통합 경험의 질, 정보의 전달, 아동에 대한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들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장애아동은 또래들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 표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다. 비장애아동들도 장애아들과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의 현실적 측면을 학습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혜택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적절하고도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전형적인 장애스러운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sup>318)</sup> 통합교육을 통한 가장 큰 혜택은 사회성 발달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학습장애, 정신지체, 정서 및 행동장애를 포함한 많은 장애아들이 비장애또래들에 비해서 또래들로부터 무시되고 거부되는 등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인지발달보다 사회성 발달이 더 심하게 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의 사회성발달 촉진은 장애아동 교육의 가장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통합교육을 받은 학령 전 장애아동의 발달적 성취는 분리교육에서 얻은 것보다 최소한 그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중도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sup>319)</sup> 학업성취면에서는 특히 경도장

316) S. L. Odom, M. Deklyen, and J. R. Jenkins, "Integrating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Developmental Impact on the Non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vol. 51 (1984), 41-49.

317) D. B. Bailey, & M. Wolery,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New York: Merrill, 1992), 23.

318) S. L. Odom, & M. A. McEvoy, "Mainstreaming at the Preschool Level: Potential Barriers and Tasks for the Field,"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1990), 48-61. 사실 통합교육을 통해 관찰해보면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한다. 물론 부정적인 행동들을 모방하기도 한다.

애아동의 경우 비장애포래들과 거의 다름없는 학업적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0)</sup>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도 있다. 장애아동들은 통합 교육시 그들에게 필요한 강도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고, 장애아동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해 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통합된 환경 안에 배치된 장애아동들은 모든 면에서 능숙하고 독립적인 비장애아동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들에게 발달적, 행동적, 학업적 성취를 촉진하는 비교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의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의 운영이나 교수의 질, 즉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의해서 좌우된다.

비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sup>321)</sup> 통합교육은 사회성을 증가시켜 주었다. 학업성취와 언어발달도 장애아나 비장애아 서로에게 지속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합 환경을 통해 비장애아동들은 장애아의 은사가 비장애아인 나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한 개인으로 수용하게 되며,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장애아들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학습하는 기회가 된다. 그로인해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sup>322)</sup> 통합된 교실에서 비장애아동들은 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고, 나눠주고, 도와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곤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발달적 진보는 통합프로그램과 분리프로그램 모두에서 유의미했다. 둘째, 장애아동이 통합됐을 때, 그들은 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이고, 더욱 구조적 놀이를 한다. 셋째, 통합된 환경 안에 있는 비장애

319) M. J. Guralnick, "Social Integration among Preschool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 Psychology* 31 (1980), 115-130.

320) L. A. Truesdell, & T. Abramson, "Academic Behavior and Grades of Mainstreamed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8 (1992), 392-398.

321) Ibid.

322) 이소현, 장애인교수 방법론, 40-41.

아동들에게서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통합된 환경 안에 있는 어른들은 아동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단순히 통합프로그램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통합교육은 아동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해야 통합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제 2 절 주일학교에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 1. 통합교육의 당위성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몸’ 즉 ‘유기체’에 둔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주일학교에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은 그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특수교육의 목표가 특수환경에 분리된 삶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사회로의 통합에 있듯이, 교회의 통합교육 역시 저들만의 분리된 환경에서의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동등하게, 장애인 자기에게만 주어진 은사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교회되는 교회의 지체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아동이 그들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소속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최소한 방해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데 헌신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당연히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미 앞에서 통합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연구된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회가 통합교육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살펴보자.

#### 가. 성서적 입장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이유는 오신 목적이 인류의 전인적인 구원에 있었고, 장애인들 역시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을 모두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sup>323)</sup>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께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우리 육신의 장애와 영혼의 장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온전케 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것, 즉 통합(integration)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사업이었고, 이는 오늘날 그의 제자된 교회나 성도가 계속 완성해야 할 그분의 뜻이다.<sup>324)</sup> 하나님과 죄로 장애된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은 교회나 성도가 소금과 빛이 되어 영적으로 장애를 입은 자와 육적으로 장애를 입은 자들에게 완전성의 회복<sup>325)</sup>으로의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 나. 예배적 입장

성경에서 교회의 통합예배나 통합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는 풍부하게 찾을 수 있다. 예배에 대한 근거도 그렇다. 특히 신약이나 초대교회사를 보면 장애인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 근거한다. 성도는 구원에 있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존재하기에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배는 존재한다. 이 예배는 언어적 표현과 움직임의 측면에서 예배는 가능한 한 명료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적이어야 한다. 예배의 실제적인 특징은 함께 존재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배 구성은 공동체 안에서 단지 특수층의 표현 형태만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예배는 삶의 관계성이다. 바울이 진술한 것처럼(롬 12:1) 전 삶과 관련이 있으

323) 박수암, “신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 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장애인 정책 세미나, 1992, 10.

324) 박신경, “함께 사는 삶, -우리사회의 완전성의 회복-,” 교회교육, 1991년 5월호, 86-87.

325) ‘통합’이란 ‘integration’의 번역이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보면 ‘integratio’ (완전성의 회복), ‘entagoros’ (건드려지지 않은, 손상없는, 온전한, 결점없는, 전체의)로 해석이 된다. 어의사전에서도 ‘integration’의 뜻은 ‘분리되었던 것에서 완전성을 다시 회복함, 보다 더 큰 완전함으로 통합하는 것, 통합된 상태’ 등으로 완전성을 이루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이 ‘integration’은 주로 자연과학분야(수학,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차차 사회과학분야(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도 전문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Ibid., 81.

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이다. 이런 예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과 관련 맺어야 한다. 예배는 일상생활 안에서, 삶의 특별한 정황 안에서 그리고 인간적 삶을 결정하는 정치, 경제, 인간사적인 결과 안에서의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sup>326)</sup>

#### 다. 인권적 입장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에 '완전 참여와 평등'이라는 구호가 인권적인 입장에서 사회통합으로서의 장애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UN 총회는 1982년 12월 3일 결의 37/52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같은 날 결의 37/53에서 '장애인 행동 계획' 시행을 위한 1차 기간으로서 1983-1992년을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였다. 이것이 끝나는 해인 1992년 4월에 제48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198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으로 결정하고 12월 북경 ESCAP 에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 결의하였다.<sup>327)</sup>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로 이해 받게 되었다.

사실 진정한 통합의 노력은, 또한 교육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 비장애의 여부를 가리기 전 인간의 존엄성을 우위에 둘 수 있는 관점에서의 사회 인식의 방향 전환과 개인의 욕구들이 그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삶의 구조가 재조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sup>328)</sup>

#### 라. 장애아동의 입장

이미 앞에서 보았듯 통합교육은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의 목표가

326) 김상구, 일상생활과 축제로서의 예배 (서울: 이레서원, 2002), 41-66.

327) 이익섭 외,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자료집, 1993, 163-164.

328) 박신경, "함께 사는 삶, -우리사회의 완전성의 회복-,", 83.

사회로의 통합에 있다면 더욱더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관련 연구에 의하면 통합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통합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의 인지발달 향상을 보고하고 있는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은 통합된 환경을 떠나서도 서로 친구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sup>329)</sup>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됨으로 인해 모두가 보다 더 사회화됨을 보았다.<sup>330)</sup> 교회교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를 만드는데 있기에 장애아동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인식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다.

#### 마. 비장애아동의 입장

위에서 본 장애아동의 입장과 같다. 이들 역시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유기체'를 이루는 지체로써 반드시 장애성도와 더불어 '한 새 사람'(one new man)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통합교육은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장애인이 있음으로 비로소 온전해 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체험케 된다.

#### 바. 장애아 부모의 입장

장애아 부모들은 통합 프로그램이 장애아동들의 사회성과 정서를 발달시키고 나중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경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 장애아가 같이 살아야 할 사회, 즉 비장애아와의 우정을 싹트게 하며, 장애자녀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을 촉진하고, 현실세계에 아이들을 적응시키며, 더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흥미있고 창조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통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반면, 부모들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장애 아동들로부터 장애아동들이 거절당하는 것

329) G. H. Shames & E. H. Wigg, eds.,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 (Ohio: Merrill/Macmillan, 1986), 291-330.

330) S. L. Odom, & M. A. McEvoy, "Mainstreaming at the Preschool Level: Potential Barriers and Tasks for the Field," 48-61.

과 전문가의 문제 등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다른 통합 환경보다 부모들에게 장애아동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덜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동체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일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소명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며 경험해야 할 과제이며 현실이다.<sup>331)</sup>

#### 사. 교회 교인들의 입장

성경에 가르침은 분리나 소외, 격리가 아니라 '유기체적 연합'이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육신하시는 것으로 연합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며 그를 찾아 나셨다(요 10:1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생명체의 특성이다. 그런 생명체는 바로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 모두는 다 문둥병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원하신다. 교회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을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행적 경험을 주는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 아. 목회자의 입장

교회는 완전한 일치, 화해와 완전성의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과제 속에서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 가르침을 전수받은 초대공동체는 과부와 고아, 연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함께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통합환경을 보여준다.<sup>332)</sup> 사도바울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331) 안교성, "장애인은 경험의 문제이다," 교회교육, 1990년 12월호, 43.

332) 김재홍, "한국교회의 시각장애자 선교방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신학대학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고 선언했고, 그럼으로 교회는 “한 몸”(고전 12:27) 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성경의 지향성을 목회자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교육의 정책과 방법까지도 책임져야 할 목회자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가 없어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동등한 관계로 세워주고, 존중받는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어린시절 신앙교육 현장에서부터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 2. 주일학교 통합교육의 방법

앞에서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기독교교육의 목표에 맞게 ‘유기체’로의 지향을 가져오는 사회성의 발전은 분명했다.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혜택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적절하고도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과 사회적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전형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sup>333)</sup> 통합교육을 통해 관찰해보면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한다. 물론 비장애아동들의 사회성도 같이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이는 단지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들로 이루어진 주일학교에 같이 참여케 하여 예배를 드리고 공과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의 결과들이 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아동들은 분리된 환경에서만큼 통합환경에서도 혜택을 얻고, 특히 비장애아동들에게서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개개인의 발전은 통합환경 자체보다 잘 계획된 교과과정과 실력 있는 교사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이다.<sup>334)</sup> 교회교육의 장애아동 통합에

1986), 59.

333) S. L. Odom, & M. A. McEvoy, “Mainstreaming at the Preschool Level: Potential Barriers and Tasks for the Field,” 48-61.



있어서 교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수집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 교육 현장의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된 아동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실안의 성인들이기 때문이다.<sup>335)</sup>

#### 가.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

##### (1) 교사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는 통합교육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들의 출발과도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적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교사와 관련해서, “인간의 태도는 정보에 의해 형성되거나 수정된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개념과 이해를 수정해 주고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sup>336)</sup> 주일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사나 비장애아동들이 많이,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통합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위해서 교회학교 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 전문가를 강사로 청빙하거나 실재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초청해 간접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을 견학하는 방법, TV에서 방영된 관련 프로그램<sup>337)</sup>이나 이미 교육용으로 제작된 장애아동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교육, 실재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몇몇 교회들의 방문이나 홍보자료 등을 통한 정보 습득도 유익하다.

334) S. L. Odom, M. Deklyen, & J. R. Jenkins, "Integrating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Developmental Impact on the Nonhandicapped Children," 41-49.

335) D. B. Bailey & M. Wolery,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23.

336) 이소현, "주일학교에서의 장애아 통합교육," 제3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자료집, 1993년, 14.

337)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2003년 10월 22일 오후 11시 방영된 KBS2에서 방영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방송 테이프를 입수해 장애인들의 현실문제, 그러나 비장애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나눴다. 이같은 꾸준한 질문과 정보전달이 없이는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감각을 민감하게 세워놓을 수 없다.

또한 교사들의 선입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앞에서 통합교육에 있어서 '최소제한의 환경'에 대해 연구했다.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sup>338)</sup> 그런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그 부족을 사랑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교회교육의 환경에서 교사들은 쉽게 장애아동의 능력을 가시적인 부분으로 제한해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된 결과는 결국 교사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 최근에 발달된 특수교육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지역사회에 통합된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sup>339)</sup> 그러나 교사가 그 아이의 외모로만 평가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교사는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아동이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이를 너무 많이 제한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장애아동이 지닌 장애를 비장애 아동과 비교하여 '부족한 자'라는 선입견보다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아이만의 특징이나 장점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과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을 훨씬 더 많이 지니고 있다"<sup>340)</sup>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2) 장애아동

통합교육에서 물리적인 통합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보았다. 통합환경이란 가장 장애인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교육의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 오히려 분리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때도 있다. 비장애아동들에 의한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사회통합에 있고, 교회교육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에 있는데, 그것과는 정 반대방향으로 가는 꼴이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장애아동이 통합 환경에서 비장애아동들과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다. 아동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놀이와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즉, 사회성, 주의집중,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동안 학습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338) S. L. Odom, & M. A. McEvoy, "Integrating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Developmental Impact on the Nonhandicapped Children," 41-49.

339)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60-61.

340) A. P. Turnbull & J. B. Schulz, Mainstreaming Handicapped Students (Boston: Allyn & Bacon, 1979), 48.

한다.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술 교수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별이나 소집단 중심의 구조화된 학습이다.<sup>341)</sup> 이런 학습은 모델링이나 연습 등으로 분리된 상황이나 통합된 상황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장애아동 현재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교회 통합교육의 현장에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로는 어렵기에, 평소 아이가 소속되어 교육받는 시설이나 학교 교사들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분석된 장애아동들에 대한 개별화 작업들은 교회교육에서도 효과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 (3) 비장애아동

앞에서 정확한 정보는 사람의 태도를 수정하여 바르게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 비장애아동들은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결국 통합환경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견과 비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차별의식까지 학습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에 앞서 교사는 비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될 장애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342)</sup>

유치원에 다니는 비장애아동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훈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6명의 비장애아동들에게 그들의 프로그램에 자폐아동이 들어오기 전 2주 동안에 자폐아동의 다른 점, 장애상태,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가르쳤다. 그 결과,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자폐아동과 더 잘 상호작용하고 그 아이를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sup>343)</sup> 장애나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는 개인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듯 장애 역시도 하나의 개성으로 이해 시켜야 한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료들은 쉽게

341) R. McIntosh, S. Vaughn, & N. Zaragoza, "A Review of Soci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24 (1991), 451-458.

342) 본 연구자의 교회는 대표성을 띤 자인 전도사가 시각장애인이며, 찬양 사역자들 중 장애인들이 몇몇 사역 중에 있고, 예배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휠체어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들 등의 보이는 정보로 연구자의 관찰 결과 장애인에 대한 비수용적인 태도가 상당부분 격감되는 것을 보았다.

343) S. L. Odom, & M. A. McEvoy, "Integrating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Developmental Impact on the Nonhandicapped Children," 41-49.

찾을 수 있다.<sup>344)</sup> 특히 비장애아동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 교회에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야 하며, 그래서 전 교인들이 유기적으로 장애인들과 통합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4) 부모

베일리(Bailey)와 윈튼(Winton)은 부모들이 통합 전에 통합에 대해 갖는 기대심을 평가하고 통합 경험을 하는 동안 그 기대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통합의 이점으로는 장애아동의 현실 세계에의 노출과 지역사회에서의 수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두 집단 부모 모두 교사와 관련된 영역, 즉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교수 효과성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의 불편한 마음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은 교사나 다른 아동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장애아동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비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되었다.<sup>345)</sup> 이런 결과는 통합교육에 앞서 반드시 장애아동 부모나 비장애아동 부모 모두,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제시한다. 부모들끼리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 하도록 해야 한다. 비장애아동부모는 장애아동들과의 통합으로 학습에 방해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교사의 관심이 장애아동에게만 편중될지 모른다는 염려나 장애아동부모는 따돌림 당하거나 나쁜 행동 모방에 대한 염려 등에 대해 통합 전 부모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연구된 통합을 통한 사회성 발달, 언어능력의 발달, 인지발달 등의 효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 부모들에게 교육의 목표가 사회통합에 있고, 특히 교회교육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인한 가능한 염려들을 버릴 수 있

344) 인터넷에서 장애인만 탐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들어가 볼만한 곳으로는 '한국장애인 연구소', '비전21 장애인선교정책연구소', '밀알' 등이다.

345) D. B. Bailey & P. J. Winton,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s' Expectations about Mainstreaming,"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 7 (1987), 27.

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교육과 부모들 상호간의 의사교환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 일반 교인들의 준비

교회 일반성도들은 통합교육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들이 통합에 대한 목표로 교육을 받고, 처음 장애아동이 접하는 사회, 또는 환경이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일반성도들이다. 이들이 장애아동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장애아동은 통합교육환경에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성도들은 장애아동부모들과 같은 교회에 같은 예배와 교회생활들에 속해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태도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장애아동부모는 비장애아동부모가 이런데 혹시 우리 아이가 통합환경에서 '따돌림 당하지나 않나' '이상한 행동을 모방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일반아동부모들은 '장애아동들로 인해 자기 아이들의 학업수준이나 환경에 불이익 당하지나 않나'하는 불신들이 조장될 수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들이 장애인들을 기피하거나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합교육에 앞서 해야 한다. 본 연구자도 정확한 특수교육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무조건 통합교육이 좋다는 정보만 가지고 전체통합을 시작했으나 비장애아동들의 이해부족과 심지어는 비장애아동 교사들의 사전교육 부족 그리고 비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부정적인 태도와 심지어는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성공적인 통합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교역자를 초청해 전교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하거나, 통합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 부모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 장애인 교역자를 청빙하여 교회 대표적인 사역부터 통합적으로 한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통합교육환경이 조성된

다고 본다.<sup>346)</sup>

#### (6) 교회 행정

교회통합교육을 위해 행정의 준비는 가장 기초적이라고 본다. 교회 구성원들의 자세나 언어 그리고 건축 구조나 교회 행사 등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특히 비장애인들만을 배려한 행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이런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의 외적인 건강함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

교회의 행정은 모든 사람, 모든 장애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로 세워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sup>347)</sup>을 위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버리고 찾는 심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여 나갈 수 없다. 저들이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가도 교회 건축물 구조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실족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교회 행정은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입구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예배당까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성경과 리드블럭을 설치하는 등 교회 건축물을 개조하는 의지적 결단을 펼쳐야 한다.<sup>348)</sup>

346) 본 연구자의 교회는 청년부가 2부로 구별되어 있다. 제1청년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로 구성되고, 제2청년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전인 자들이다. 해마다 교회 축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마다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Renewal & Mission'이란 주제로 제1청년부는 축제를 했다. 그런데 모든 순서들이 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이 같이 어울려 이루어진 순서들로 준비된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특별행사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장을 여는 것도 좋으나 목회자들의 구성부터 통합적일 때 이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었다.

347) 마 18:12; 눅 15:4.

348)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에는 30여명의 장애인들이 출석한다. 특히 휠체어나 엎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이 5명이었으나 1명은 소천하셨다. 이들에게 물었을 때 교회가 1층 건물이고 계단이 없는데다 조그만 한 경사도 경사로를 설치되어 있기에 찾아왔다는 소리를 모두가 하는 것을 들었다. 소극적으로 교회가 경사로만 잘 되어 있어도 장애인들은 쉽게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 나. 통합교육의 다양한 형태

통합교육은 장애, 비장애의 여부를 가리기 전 인간의 존엄성을 우위에 둘 수 있는 관점에서의 사회 인식의 방향전환과, 개인의 욕구들이 그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삶의 구조가 재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가 새삼 새로운 목표로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라, 원래 본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그동안 잃고 있었던 삶의 자명성이며, 반면에 함께 살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어 사는 지금의 삶은 일그러지고 조각나버린 불완전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된다.<sup>349)</sup>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비장애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리로 이루어져야 맞다.<sup>350)</sup> 요즘 특수교육 영역에서 '완전통합'<sup>351)</sup>에 대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완전통합이 장애아동을 위한 단 하나의 적절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지 않고 윤리적인 논리만을 앞세운 완전통합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협회인 특수아동협회(CEC: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는 통합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합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의미 있는 목표이고 특수아동은 가능한 한 일반학급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수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교육 서비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연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sup>352)</sup> 이는 완전통합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완전통합이라는 특수교육의 목표를 두고 보다 조심스럽고 충분히 계획된 상황에 맞는 통합교육들이 선행되어야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합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도 없는 무조건적인 통합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이다.

349) 박신경, "함께 사는 삶, -우리사회의 완전성의 회복-,", 79-90.

350) 이소현 외,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32.

351) 완전통합은 장애아동을 완전한 통합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병합하려는 것이다. 경도장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에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다: Ibid., 36 참고.

352) Ibid., 36-37.

교회학교 통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기존의 주일학교 체제에 장애아동을 완전히 포함시키는 전체통합이 있다. 즉 앞에서 본 완전통합이다. 예배나 분반공부 등 포레들의 반에 통합되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장애아동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완전통합의 경우라도 장애아동반이 구별되어 존재해야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면에서 장애아동들에게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에게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다.<sup>353)</sup> 개별화교육의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아동들 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아동반이 조직되고, 그 반에 특수교사들이 조직되어 이들을 진단평가하고 행정적인 면에서 이들을 관리해 주는 가운데 전체통합이 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부분통합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 분리된 부서를 운영하면서 특정 활동을 통해서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예배는 포레 반에 통합되어 통합으로 드리고 분반공부는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행사나 여름성경학교 등 일회적 통합이나 일반아동을 장애아동반에 보내 일정기간 통합하며 교육의 효과를 누리는 역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분리교육의 경우는 독립된 장애인부가 있어 독자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마치 교회에 새신자부를 두고 소정기간 교육을 마친 후 통합시키듯, 장애인 새신자를 교육하여 소정기간 적응 훈련프로그램을 마치고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부서라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분리만을 위한 기관이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교회에 게토화(ghettoship)<sup>354)</sup>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교회교육의 목표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이다.

353) 박은혜, “장애아동의 개별화 교육,” 제2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자료집, 1998년, 54-55.

354) 세계 2차대전 때 유대인들만을 구별하여 격리시켰던 지역이 게토(ghetto)이다. 교회의 게토십(ghettoship)이란 마치 유대주의처럼 장애가 아닌 사람들만의 구별이나 어떤 소수가 자기들만의 모임으로 타인을 구별해 가는 성향이라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통합교육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 교회목표에 비추어 볼 때 ‘완전통합’이 가장 이상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각 교회가 선택해야 할 통합의 형태는 교회의 형편이나 장애아동들의 상황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은 통합예배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분통합을 완충단계로 두어 완전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회의 물리적 환경이나 인적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sup>355)</sup> 어떤 장애아동은 특히 정인지체아동으로 중도나 최종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적인 논리만을 앞세운 완전통합은 서로에게 득보다는 실을,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깊이 새겨 이후에 통합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통합교육의 다양한 형태 중 이런 점들을 고려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제한환경’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혹시 장애아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 환경에 배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하며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장애인이 필요로 느껴지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몸의 의식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평균케 되는<sup>356)</sup>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는 당연히 완전통합으로 지향해 나갈 것이다.

355) 교회 건축물 구조나 또한 특수교육에 헌신할 인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깊어 다시는 통합될 수 없는 경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

356) 고후 8:12-15; 출 16:17-18 참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자나 약한 자가 차별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여 줌으로 온전케 되는 것, 평균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

## 제 6 장

Living Church의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회 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금까지 정신지체아동의 효과적인 교회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교회교육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정신지체아동의 교육은 통합교육이며, 역으로 가장 어려운 것도 통합교육이다. 즉 교육의 분명한 의지가 없이 교회 아동의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정신지체아동에게 계획된 교육과 투자가 없다면 당연히 통합교육이라는 명명아래 사실은 무관심한 방치로, 구제의 대상만으로 대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한 교육의 의지로, 정신지체아동 역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의 환경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리교육은 최소한 앞에서 말한 쉽게 생각한 통합교육보다는 훨씬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나은 환경적 배려 일수도 있겠다.

교회는 계획된 통합교육이나 통합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교육에는 반드시 장애인부가 세워져 장애인들 각각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 특히 장애인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사랑과 구원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아직은 미약하고 내세울 만한 결과들이 아니지만, 교회들이 너무나 무관심해왔고, 그러나 너무나 시급한 일들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인을 위한 사역들과 특히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예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장애아동을 위한 '사랑부' 태동

본 교회 사랑부는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부서로 그들에 대한 개별적 정보나 교육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현재 아동부를 제외하고는 청년부나 장년부는 각각의 부서에 완전 통합되어 교육이나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12명의 청장년 장애인 중 청년부 장애인 2인과 장년부 2인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통합예배에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장년부 자매 정신지체인은 중등도 정도에 해당되는데 10분이상은 집중이 어려워 예배 시간에 자주 자리를 뜨기는 하나 그 이전에 강화물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상황이다.

### 1. 사랑부의 태동

본 연구자가 사역 중인 Living Church는 1998년 청빙되어 올 때 이미 장애아동 2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정신지체로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외형적인 장애가 판별되었다. 또 하나는 정신지체로 자폐아였다. 늘 책상이든, 자동차든, 밑으로만 파고드는 학령 전 이 아이는 조금의 전문적 식견이 없다면 판별할 수 없는 정도의 증후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최선이 기도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최선이란 기도와 개별화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교육이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다.

처음 완전통합으로 장애인들을 맞이했다. 사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장애아동들을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했던 것이다. 이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개별화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에 대한 의식은 전혀 전무했다. 무지했기 때문이다. 청빙 2년차인 1999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근처 우석대학교 3학년 학생인 장애인 청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졸업 후 총신대학원에 입학해 현재는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교회 사역들마다 저들이 소속되어, 그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청년장애인들은 거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사랑부'가 태동되어 아동들의 관리를 맡고 교육은 통합으로 이루어 졌다.

‘사랑부’가 조직이 되어 그들을 관리하기는 하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단순한 분리 관리에 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는 처음과 같은 통합을 통해 일반아동이나 장애아동 모두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선생님은 아이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반아동들에게 많은 피해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사랑부가 조직된 3년차인 2003년부터는 아동은 분리를 주로하고 부분 통합, 성경학교나 특별한 교회 행사에 통합으로 참여하며, 그 외에는 사랑부에서 분리교육을 통해 통합예배나 환경에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다. 제 5 장 제 1 절 2에서 본 것처럼 분명히 장애아동을 분리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 통합 환경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그것은 계획 없이 무분별한 방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장애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인 통합교육이 본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시행착오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의지 없는 통합환경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면과 본 교회 장애아동의 분포가 정신지체가 거의 대부분으로 무조건 통합에 들어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부분통합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 사역자로는 연구자 본인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간사 1명, 미술치료전공 교수 1명(part time) 그리고 8명의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들과 5명의 보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앞으로의 교육 환경적 기초를 놓고 있다. 교회 상황에 맞추어 개별화교육을 위한 작업도 꽤 진행 중에 있다. 분명한 것은 완전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환경에 모든 장애아동들과 일반아동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며,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 2. 사랑부 조직

Living Church의 사랑부는 한 명의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1:1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교육 목표로 하기에 3:3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도한다. 이 교육은 3명의 학생과 3명의 선생님에 소그룹이 되어 교육이 진행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아이들이 한 선생님에게만 상호

작용을 고착하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다른 교사의 교수에 적용시키는 의도와 통합에 대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의 결손시에 아이의 상실감을 없애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학생인원은 23명이고 성별로 하면 남자가 10명, 여자가 13명이다. 교사는 16명으로 목사 1명, 특수교육 전공 간사 1명, 미술치료전공 교수 1명(part time)에 정교사는 8명으로 특수교육학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조교사는 5명으로 집사 3명과 청년회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Living Church의 연령별 장애인 분포

연령	8세-15세	16세-19세	20세-30세	30세 이상
인원	7명	4명	8	4명

<표 5> Living Church의 장애유형별 분포

유형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	청각
인원	12	4명	6명	1명

### 3. 연간 설교 및 연결학습 계획

Living Church의 사랑부는 교회교육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적 연합’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핸드벨을 매월 한 주를 택해 공과공부를 마치고 연결학습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두가 잘해야 좋은 결과를 맺는 핸드벨을 선택했다. 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성탄절 전야가 되면 모든 기관들 가운데 사랑부의 핸드벨이 돋보이는 날이 된다. 또한 사랑부에서는 미술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을 전공한 교수 집사님을 강사로 한 달에 한주씩 운영되고 있다.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를 전공하신 분이기에 그림을 통한 아이들의 심리 읽기와 치료를 조심스럽게 접목하고 있다.

월	일	설교주제 & 공과주제	연결활동	교회행사
1	1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미술활동(색칠하기)	전교인 참여주일
	2주	하나님이 착한 노아가족을 살려 주셨어요!	게임과 함께 선생님 이름 외우기	
	3주	높은 하나님, 낮은 사람들	새해 인사 배우기(큰 절하기)	
	4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새찬양 배우기, 핸드벨연습	
2	1주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했어요(1)	레크레이션, 미술활동	
	2주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했어요(2)	대집단 활동(포크댄스, 체조 등)	
	3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교회 쓰레기 줍기	
	4주	삼손이 기도했어요	생일잔치, 핸드벨 연습	
	5주	용감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새학기 캠프(29-3월1일) 성경퀴즈대회	교사세미 나
3	1주	착한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	게임(소근육 운동 강화), 미술활동(만들기)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울동배우기	
	3주	요나가 기도했어요	새 찬송배우기, 핸드벨 연습	
	4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게임(대집단 활동 강화), 미술활동	
4	1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쓰레기 줍기(대근육 운동강화)	고난주간
	2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절 카드만들기, 인형극	부활주일 성례식
	3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울동배우기 및 통합예배 준비	장애인 주일
	4주	잃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생일잔치, 핸드벨연습	
5	1주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어버이날을 위한 카드만들기, 통합예배준비	어린이 주일
	2주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세요	꽃 달아드리기,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버이 주일
	3주	예수님을 따라 갈래요	색칠하기(소근육 강화, 두뇌활동)	
	4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야외나들이, 핸드벨연습	
	5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찬양경연대회	
	1주	예수님이 최고야!	간식차리기대회	
	2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미술활동(고민차훈 만들기)	

<표 6> Living Church의 2004년 연간 설교주제 및 연결활동 계획

4. 분리시 예배 프로그램

가. 예배 전 활동

예배 전 활동은 이러하다. 첫째, 전화로 심방하기로 교사는 교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자기반 아동의 교회출석 유무와 결석의 이유를 체크해 교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둘째, 교사회로 전체적인 인도는 담당교역자가 한다. 먼저 30분전에 모여 담당교역자로부터 예배 준비 현황을 체크 받고, 예배 순서에 대한 확인과 순서자 참석 여부를 확인 받는다.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과 선생님들이 가르칠 공과와의 연계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 밖에 주의 사항을 광고한다. 그리고 출석 가능 상황을 보고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먼저 성숙한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교사 자신을 위한 합당한 자세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 집을 떠나 교회를 향해야 할 아이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기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기도 한다. 합심하여 기도한 후 교역자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모든 시간은 20분 안에 마쳐야 한다.

셋째, 물리적 환경 체크로 아이들이 오기 전 교사는 교실의 예배드릴 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물론 전날 미리 준비해 놓았지만 혹시 악기, 마이크, 헌금 주머니, 조명, 책상 배치, 실내 온도 등 부족하거나 빠트린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아이들 맞이하기로 사랑부 현관에서 교사는 아이를 맞이해 준다. 분명한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대변이나 소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실로 인도한다. 아이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예배를 위하여 왔음을 인식하게 한 후,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아이의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아이가 예배 시간 5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전화를 통해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아이가 교회 가기를 거부했다면 교사는 부장이나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sup>357)</sup>

357) 본 연구자의 교회는 읍 단위에 소재하기에 장애아동 분포가 교회를 중심으로 차량으로 반경 5분 내에 거주한다. 그러기에 이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나. 예배 활동

전체적인 예배인도는 그 주에 담당교사가 사회를 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찬송, 예배 시작 전 서로의 인사를 위해 인사 찬송으로 '싱글 싱글 싱글'을 인도하고 몇 곡의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알리는 예배 찬송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를 부르며 아이들의 예배를 위한 준비를 유도한다. 사랑부에서 주로 부르는 찬송은 반복되는 가사로 된 찬송을 주로 부르며, 그날의 기후나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맞추어 선곡 한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그날 설교나 공과와 연관된 곡을 선곡하되 쉽고, 반복된 가사로 된 곡을 선곡한다. 헌금찬송은 '우리 작은 정성 모아'를 부르며, 아이 중 헌금위원이 봉사하도록 한다. 예배가 마치고 헤어지기 전 인사로 '안녕'이라는 노래로 서로 인사하며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헤어지게 한다.

둘째, 기도, 장애아동은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러기에 모든 기도는 간단해야 하며 쉽고 천천히 하여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이해시키고 암송케 하는데 있으나, 신앙고백을 아이에 맞게 한 두 문장으로 만들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한다. 본 연구자의 교회는 장애아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만들어 아이들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셋째, 설교, 설교시간은 3분-5분이 적당하다. 설교의 구성은 인형극,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설교와 동일한 주제를 사실로 먼저 다룬다. 그 후 설교자가 실물, 음판, 컴퓨터를 이용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이미 사실로 다룬 것들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다. 물론 예배 후에 있을 공과 역시도 설교 전에 있었던 사실과 설교를 통해 집약된 의미를 실제 아동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일련의 반복 작업으로 완전한 교육을 의도하는데, 설교는 그 과정의 일부로 진행된다.

넷째, 헌금, 아동 중 헌금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직접 봉사하도록 한다. 보통 교회에는 여러 가지 헌금 종류가 있으나,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십일조 등 3가지 종류의 헌금으로 정하고, 반복적으로 의미를 가르쳐 지키도록 돕는다. 헌금 기도도 아이들이 따라 하도록 한다.



다섯째, 축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 다. 예배 후 활동

첫째, 공과공부로 이 시간은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이의 능력에 맞게 준비할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설교에서 제시한 말씀에 의미를 아동의 삶 현실에 사실로 설명하며, 설교 전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본 사실에, 자기를 대입해 이해하도록,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예로 <표 7>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sup>358)</sup>이 주제라면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삶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한 주간의 범위로 만들어 체크해 오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을 1:1을 원칙으로 하나 한 달에 한 주는 3:3 공과를 실시하여, 동종그룹(homogeneous group)에 적응력을 키워주며 나아가 이종그룹(heterogeneous group)인 통합교육이나 더 나아가 공동체에 적응력을 키우도록 배려한다.

<표 7> Living Church의 사랑부 과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월	짜증내기	했다, 안했다
화	거짓말하기	했다, 안했다
수	욕하기	했다, 안했다
목	늦잠 자기	했다, 안했다
금	선생님 말씀 안 듣기	했다, 안했다
토	친구 때리기	했다, 안했다

둘째, 연결활동으로 이것은 공과를 마치는 시간들이 서로 다르고 통합을 위한 장소 이동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사랑부’에 핸드벨과 미술활동은 정규적인 연결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의 굳어지는 데, 소근육과 뇌 기능 그리고 심리적 우울 등의 치료를 돕는다. 이 활동에는 강화물을 적극 사용하며, 아이에게 실패의 경험보다는 절대적으

358) 교사가 주제에 맞추어 아이 능력에 맞게 일반아동들에게 요절을 암송시키듯,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배운 말씀에 맞게 매일 체크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로 성공의 경험을 갖도록 배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완성된 준비가 필요하다.<sup>359)</sup>

셋째, 간식으로 장애아동 중 특히 정인지체아동은 먹는 것에 많이 집착한다. 이 시간을 이용해 베푸는 것, 참는 것, 예의 지키는 것을 교육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보다 이 시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줄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건강한 아이들을 통해 좀더 심한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교육해 주어야 한다. 뒤처리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만 교사가 돕도록 한다.

넷째, 귀가지도로 아이의 소지품을 잘 챙기며, 아이의 용모를 정리해 돌려보낸다. 준비된 메모장을 통해 공지사항과 다음 주 준비물을 알려준다. 그리고 아이가 오늘 보였던 특이사항이나 발견된 부분들을 전달해 준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부모가 격려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다섯째, 교사회로 귀가지도를 마친 후 교역자의 주도로 교사회를 통하여 오늘의 모든 진행을 피드백(feedback)하고 다음 주 준비 사항을 전달한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 주일 작성해야 할 기록부들을 작성한다.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 교역자의 지목으로 교사 중 한 사람이 마무리기도함으로 마친다.

## 5. 통합시 예배 프로그램

본 연구대상인 교회는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이미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하는 환경에서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 서로에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서로 끼쳤다. 결과 2003년부터 부분통합으로 들어갔다. '사랑부'를 조직하고 장애아동들을 예배, 교육, 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절기나 교회 행정에 '전교인 참여 주일'이나 교회력에 따른 특별 예배에 통합하여 예배를 드린다. 물론 지향점은 완전한 통합이다. 장애인이 있어 비로소 온전한 교회됨을 온 교회가 인식하는 데 까지

359) 색칠하기를 한다면 미리 밑그림을 다 완성하고,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색칠할 부분도 교사의 배려가 필요하다.

나아갈 것이다. 청년부나 장년부의 경우는 완전한 통합이 되어 모든 면에서 서로의 존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까지 이른 것 같다.

#### 가. 예배 전 활동

예배 전 활동은 앞에 분리예배를 위한 예배 전 활동과 다르지 않다. 단지 교실의 물리적 환경 면에서 아이에게 좀더 세밀하고 상황화된 배려가 필요할 뿐이다. 통합예배의 경우에는 교사 각각은 장애아동의 또래에 맞추어 일반아동과 통합하여 자리를 앉힌다. 기도를 시킨 후 미리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헌금봉투를 전해준다. 약간의 대화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알아 둔다. 지난 주 일반아동교사들과 미리 있었던 회의 때 결정된 예배의 프로그램에 아이에게 선행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해 준다. 몇 곡의 찬양이 진행되면서 예배 준비가 이루어지고 사랑부 아이들의 입례송에 해당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를 부르며 예배가 시작된다.

#### 나. 예배 활동

통합예배의 경우 예배 활동 부분이 일반아동에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장애아동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입례송이 끝나면 바로 찬양을 인도하던 교사가 기도를 인도하되 모든 아이들이 따라하는 기도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짧고, 간결하고, 쉽게 이루어진다. 기도 후 바로 그 날 설교의 주제를 다루는 인형극이 진행된다.<sup>360)</sup> 인형극이 끝남과 동시에 설교자는 등단하고, 인형극에서 이미 다루어진 성경말씀을 아이의 언어나 수준에 맞추어 따라하도록 인도한 후, 주로 컴퓨터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설교에 들어간다. 설교의 예화는 조금 전 막 끝난 인형극이나 연극 속에 인물이나 내용이다. 통합으로 모인

360)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인형극과 연극으로 통합예배의 이 부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극은 청년회 연극영화과 지체들이 주축으로 청년회에서 수고해 주고 있다. 연극은 1년에 4차례정도 진행되고, 인형극은 한 달에 1-2번, 그 외에는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파워 포인트 등 가능한 시청각 자료를 총 동원한 예배나 설교, 공과가 진행된다. 일반아동부의 경우는 통합예배 때만 연극과 인형극을 통한 예배를 접하게 된다.

모든 아동에게 성경말씀과 삶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노력한다.

설교가 끝난 후 사회를 맡은 교사가 비로소 사회를 통해 헌금 순서를 진행한다. 헌금위원은 아이들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사랑부에서 위촉한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할 경우 교사가 돕게 된다. 헌금이 끝난 후 사회는 헌금기도를 인도하고 역시 아이들은 따라서 한다. 교역자나 부장이 나와 광고를 간단히 한 후 일반아동들과 사랑부 아동들과의 인사를 인도한다. 이때 이루어지는 찬송이 사랑부 아이들에게 익숙한 처음 주일에 만나면 주제곡으로 부르는 '싱글 싱글 싱글'이다. 인사가 마친 후 교역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 다. 예배 후 활동

이 부분은 분리예배 시의 예배 후 활동과 동일하다. 연결활동과 함께 사랑부 교실로 이동하게 되고, 주어진 공과가 진행된다. 마친 후 귀가 지도하여 보내고 교사회로 모이게 된다.

### 제 2 절 지역 장애인을 위한 '옥합선교회' 태동

'옥합선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회로 세워졌다.

#### 1. 옥합선교회의 태동

본 교회 옥합선교회는 교회 밖에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이다. 처음 사랑부가 조직이 되어 교회가 위치한 행정기관인 '삼례읍사무소'를 통하여 삼례읍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sup>361)</sup>

361) [www.wanju.go.kr/frameset02\\_07\\_04\\_07\\_03.html](http://www.wanju.go.kr/frameset02_07_04_07_03.html)

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뇌병 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간질	호흡 기	간질
수	857	494	89	85	64	62	2	33	14	1	3	8	3

&lt;

표 9&gt; 2003년 삼례지역 장애유형별 인구 분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결코 장애인이 제외될 수 없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교회들은 이들에 대한 구원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앞에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아직도 유교의 영향 아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구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연구자의 사역하는 교회가 위치한 환경은 인구 이동이 거의 정체되어 있고 작은 읍 단위에 소재한 교회이기에 새 신자들의 등록이 '가뭄에 콩 나듯' 했다. 이런 척박한 교회성장의 환경은 연구자에게 더욱 이들을 향한 열정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구원의 대상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결국 2001년 3월에 태동하게 되었다. 처음 4명의 여성들로 시작했다. 현재는 15명으로 조직되어 매주 1회 사역을 하고 있다. 옥합선교회의 손길을 받는 이들은 비록 거동이 힘들어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나 본 연구자의 교회 지체들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 2. 옥합선교회의 사역

처음 옥합선교회는 성도들을 통해 파악된 장애인들을 방문했다. 의외로 반응은 쌀쌀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 마음에 큰 담을 쌓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 속에 교회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기도와 이들을 향한 훈련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봉사기관인 완주보건소 재가 복지국과 연계해 사역을 시작했다. 요즘은 지역에 많이 알려져 주위에서 사역할 대상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 사역중인 가정은 7가정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교회로 모여 기도회를 가지고, 회장의 오늘 사역에 대한 설명과 가정 분배가 마쳐지면 2인 1조가 되어 출발하고, 사역지에 도착하면 처음 간단하게 기도로 위로와 축복을 하고 일을 시작한다.

첫째, 집 청소 및 소독 사역으로 오래 누워 계시며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이기에 집안 청소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오염이 심해 많은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옥합선교회가 사역지에 도착하면 먼저 집 청소와 주변 소독을 시작한다.

둘째, 식기 살균과 빨래하기 사역으로 특히 오랜 병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건강상태도 악화 상태인데 더구나 적절한 때에 살균을 하지 않아 전염성 병들로 이증고를 겪기도 한다.

셋째, 환자 목욕과 이미용봉사하기 사역으로 집안 청소와 빨래 그리고 소독이 끝나면 머리를 잘라야 할 환자는 미용을 먼저 하고, 환자 목욕으로 들어간다. 오래된 환자는 욕창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간직한 채 누워있는 경우도 있으며, 손톱을 깎지 못해 그 속에 여러 오물과 심지어는 배설물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여 처리해 나간다.

넷째, 점심식사와 반찬 채워드리기 사역으로 준비해 간 점심을 정성껏 차려 같이 식사한다. 이들은 오랜 병에 식욕을 잃어버려 자주 굶기도 한다. 특히 옥합선교회가 사역하기로 선택하는 가정은 환자 홀로 있거나 늙으신 부부 중 한 분이 환자인 경우이기에 입맛을 돋우는 식사를 조리할 능력이 없다. 또한 같이 식사해 드리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감동이 된다. 오기 전 사역자들은 준비한 재료들로 정성껏 그들 영양을 배려한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드린다.

다섯째, 집수리 사역이다. 현재 옥합선교회에는 남성도가 없다. 그러나 사역하는 집에 수리할 부분이 있을 때, 교회 내에 있는 남선교회와 연계해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섯째, 장례 사역으로 이들은 사역하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다. 장례에 필요한 일들을 말없이 돕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드린다. 상증에는 많은 손들이 필요하며, 특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돕고, 장지까지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돕는다.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옥합선교회 회원은 모두 예수병원부설 간호대학에서 1년 2차례 실시하는 하계와 동계 호스피스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거의 모든 회원이 그 교육을 필한 유자격자들이기에 가능하다.

### 3. 사역 결과

옥합선교회의 사역은 사람이 태어난 후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불행 을 만나 독립적인 삶을 더 이상 살수 없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부터 시작 되어 죽음과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역이다. 돌보는 자가 죽기 전 까지는 그리 많은 사 람들이 진한 향을 맡지 못하다가 임종을 지키고, 장지의 모든 일들을 마치기까지 장 례를 돌보며, 혹 남겨진 남편이나 부인을 위로하고 계속하여 관계를 갖게 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옥합의 향을 맡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소금과 빛의 순도를 많이 올려 놓은 사역이 되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담, 천주교에 비해 사회봉사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많이 씻어가고 있고, 사별한 후 남은 자가 교회를 등록하는 사례도 있다.

### 제 3 절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봉사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통합 어린이 선교원

본 연구자의 교회 선교원은 지역 유일의 통합선교원이다. 지역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 안에 어린이 교육 기관을 둔 교회가 없다. 요즘 특히 원불교는 이부분에 많은 정열을 쏟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다. 본 선교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원부터 장애아 동을 통합으로 받아 교육하려는 의지로 세워졌다.

#### 가. 개원

개원은 2000년 3월에 45명의 아동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장애아동의 입원 수가 비장애아동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지만, 년도에 따라 장애 유형과 분포는 다 음과 같다.

연도	총 아동 수	장애 아동 수
2000년	45명	3명(자폐증 1명, 경도정신지체 2명)
2001년	67명	5명(자폐증 1명, 경도정신지체 4명, 지체장애 1명)
2002년	65명	3명(경도정신지체 2명, 지체장애 1명)
2003년	63명	3명(경도정신지체)

<표 9> Living Church의 연도별 선교원 입원 총수와 장애아동수

#### 나. 통합교육 결과

선교원의 경우는 통합교육을 하면서 개별화교육을 제법 잘 했던 것 같다. 물론 이론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통합에 대한 의지뿐이었지 아무런 이론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상황이 되어보니 당연히 통합환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수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 돌봄이 이루어졌던 것뿐이다.

의외로 장애아동부모들의 의식 속에는 장애아동 자녀가 분리된 환경에서 그들끼리만 교육하는 것을 원했다. 앞에서 살펴본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예견한 것이었다. 물론 많은 일반아동 부모들의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일반아동 부모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아동보다 강하다는 비교 우위의 의식이 안심을 주는 것으로 보였고, 다른 면으로는 대부분 기독교인들 부모이기에 신앙으로 극복한 듯 했다.

본 선교원에서 교육받는 장애아동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표현하기, 대소변 가리기, 질서지키기 등에 있어서 교사와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인정하는 발달이 보였다. 본 선교원 상담일지<sup>362)</sup>의 내용을 분석을 통해 2003년의 결과<sup>363)</sup>를 봤을 때, 이미 제 5 장 제 1 절에서 보았던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처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일반아동부모들 26명이 상담을 통해 준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362) 부록 1 참조

363) 부록 2 참조



## 다. 앞으로 방향

본 선교원은 이미 확보된 부지에 2004년을 건축으로 준비하고 2005년부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교육기관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도시마다 일반아동들을 위한 시설교육기관은 넘쳐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은 극히 부족하다. 교회마저도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의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시설이나 학교를 방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본 선교원에도 극히 적은 장애아동만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아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이다. 또한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불이익이다. 본 연구자의 선교원에서도 0.5퍼센트도 되지 않은 장애아동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베풀었나를 생각하면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할 바에 아예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바뀌어 장애아동 부모들이 갖는 부정적 생각들을 바꾸고, 앞에서 논한 통합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아동들이 주류를 이루고 일반아동들이 들어와 역통합을 이루는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뛰어난 시설도 효과적이겠지만 물리적 환경보다는 교사의 자질이나 교육목표, 설립 의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환경도 중요하다. 교회는 어느 교육기관보다 보이지 않는 환경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또한 잠재된 많은 인력들이 있다. 그러나 잠자는 상태에 있다.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능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의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교회가 사회를 향해 소금의 노릇을 감당하는 일에는 잠자던 은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깨어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장애아동 교육시설이 가동된다면 더 많은 교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장애아동들이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 좋을 것 같다.

## 2. 아동치료교사교육원

아동치료교사 교육원은 2000년 3월에 개강하여 매년 1년간의 수료 기간을 설정하고 아동의 문제점과 지도, 장애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커리큘럼을 위주로 매년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교수진의 과목

선정과 수강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150시간의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교육원의 설립 목적

우리나라의 현 교육실정은 사회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부적응적인 아동의 행동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의 부적응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의 손길이 아동의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모와 아동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동교육현장을 보면 본 교회 선교원이든, 다른 시설교육기관이든, 교회교육이든 마치 코카콜라를 뽑아내듯 일관된 수업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환경을 차별화하고, 어느 누구나 전문적인 교사상을 확립하여 가정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특히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이고 타당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문제아동 발생 예방과 발생된 문제 아동의 치료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장으로 돕기 위한 인적 자원 양성기관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목적으로 문제아동의 치료적 교육과 지도를 하기 위한 부설기관의 설립이 마땅하다는 판단 아래 아동치료교사 교육원의 필요성을 기획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공 교수진과 함께 아동미술치료, 뇌 구조학, 색채심리학, 아동미술론, 아동정신건강, 아동발달, 특수교육학, 치료놀이, 교육심리학, 아동심리측정, 아동상담 등의 과목을 선정하고 수업을 전개하게 되었다.<sup>364)</sup>

#### 나. 교육원 구성과 수업의 형태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수강생은 교

364) 교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3 참조. 강사는 교재를 소개하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 소개와 용어 소개를 시작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 스스로가 책을 읽고 래포트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사는 교회에 출석중인 대학교수 2인과 지역 내과 의사이면서 장로이신 의학박사 1인 그리고 상담심리 석사 소지자 성도 1인과 본 연구자, 그 외에는 본 연구자가 지도목사로 사역중인 우석대학교 기독교수회 교수님들 중 청빙되어 구성되었다. 강의는 우선 책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학교 교사 및 아동문제에 관심이 많은 성인들로 이루어졌다.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를 비롯하여 타 교회의 성도들까지 모두 20여명의 수강생으로 구성된다. 2학기로 나누어진 과정으로 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문제점을 스스로가 접하여 판단하고 학습과 연계함으로서 현장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상 장애아동들은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나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아동 중 선택한다. 수업에 참석하는 이들은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를 경험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상호작용의 경험을 풍부하게 갖도록 해주기 위한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수행 능력 함양에 충실하였다.

#### 다. 장애아동의 사례연구

이론과 병행하였던 실습과정에서 수강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연구하였다. 지나치게 흥분한 아동에게는 진정시키는, 무기력한 아동에게는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흥분한 아동에게는 조용히 숨으로 된 공을 불면서 마주 앉아 앞뒤로 흔드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반응이 적은 아동과는 신나고 자극적인 활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서 두 아동 모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예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능력이기 때문이다.<sup>365)</sup>

과잉 반응적인 아동은 부드럽게 달래주고 억제하면서 확고하게 구조(제한)를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상대자인 나(치료자)에게 반응하도록 아동을 격려하며, 과소 반응적인 아동의 경우, 치료자는 재미있는 놀라운 게임을 통해 강력하게 개입한다. 그리하여 아동자신이 만들어 낸 예측 가능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도록 한다. 치료자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아동은 껴안기, 안고 흔들기, 자장가 불러주기가 필요하며 또 어떤 아동은 격렬한 레슬링과 베개 싸움이 필요하기도 한 것처

365) 예배 전 모인 아동들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교사는 좀 신나는 찬양으로 그들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야 이후 예배나 공과 등 모든 프로그램을 원만히 이끌 수 있다. 장애아동부 교사에게는 이런 능력이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럼 말이다.

#### 라. 장애아동의 실험연구보고 샘플

##### (1) 접촉에 따른 장애아동의 반응분석

실험일시는 2001년 5월 12일 오후 3시, 실험장소는 Living Church 교육원, 피실험 대상아동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아동 7명, 실험자 참여인원은 15명의 교육원

이름	나이	성별	반응 내용	장애정도
이영성	6	남	촉각, 전정각각이 둔화, 수용감체계 미비	지체부자유
김혜민	7	여	운동력은 있으나 정서적 능력저하	정신지체
김정호	6	남	주위 환경에 관심, 감각배양 부족	정신지체
윤다인	8	남	낮은 신뢰감, 감각자극에 신경질적	발달장애
정호인	11	남	전정각각 떨어짐, 자기조절력 상실	정신지체
이미혜	10	여	수용감각체계 약함, 자기존중감 부족	지체부자유
최민정	9	여	체중증가에 따른 감각배양 현저히 떨어짐	정신지체

생이었다.

##### (2) 반응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 내용

피실험 장애아동의 손과 발에 로션을 발라주고 손과 발이 미끄러워 잡기 어려울 때,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를 전개함으로써 아동의 반응을 분석한다. 실험에 따른 반응분석은 다음과 같다.

#### <표 10> 반응분석에 참여한 장애아동

방법의 도입과정은 처음에는 치료과정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자의 지도 아래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치료를 주관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와 새롭고 긍정적으로 아동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치료에 부모의 참여는 부모가 변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부여도 얻을 수 있었다. 아동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자아상이 왜곡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학습과정에 도입시켜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아동들의 반응은 놀이의 절대적 환경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여아보다는 남아들의 반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치료자)와의 관계성도 대체적으로 무난하였으며 로션

의 미끄러운 촉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아동들도 있었으나, 곧바로 실험(놀이)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문제아동이나 장애아동과의 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아동들과 실험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결과들이 지금은 사랑부 교사들에게 세미나를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고, 실제 교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회가 나름대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수확을 얻게 되었다.

### 3. 아동상담소

#### 가. 설립 동기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은 다양하다. 본 연구자가 사역 중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매우 개성적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선교원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 많은 아동들과 그들 부모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어릴 때 쉽게 무시되고 지나치기 쉬운 심리이상이나 이상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장애로 굳어지는 것을 초기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닌 사명 가운데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예 기쁨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기 시작한 결과 비기독교인 내방이 평균 10퍼센트를 상회하는 많은 선교의 진보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 아동상담소는 선교원 개원과 함께 2000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본 교회에 미술회를 전공한 교수 집사가 출석하고 있고, 완주군청 청소년상담사인 상담심리 석사학위 소지자인 청년 김성희 자매와 본 연구자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으며, 문교부 발행 상담사 유자격자로 상담자 자격에 관한 부모들의 요구에 충족되었고, 세 상담요원의 상담 능력이 가능했다.

## 나. 운영 방법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약된 차트를 위주로 4-7번 정도의 상담을 통하여 아이의 심리와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진단 한 후 부모들의 상담으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심리이상에 많은 부분 가족에서 원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회 정도까지는 30퍼센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동반하지 않고 어머니나 부모가 상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3회째부터는 아동과 함께 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담내용은 아동의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주로 성격장애와 부적응, 의욕상실, 도벽 등으로 아동의 문제에 대해 부모들의 반응이 과대적인 부분들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운영 면에서는 1차-2차 상담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아동행동지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아동의 생활지도와 행동수정의 명백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행동 유발을 제지하는 가정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상담을 위하여 내방한 부모에게 아동의 문제행동수정을 위한 강화물이나 토큰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교육하여 문제행동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재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각 가정과 아동의 성격에 맞게 제공하여 주었다. 본 상담소의 능력 밖에 문제는 우석대학교 상담심리 교수들과 상담소의 도움으로 연계해 감당하고 있다.

## 다. 결과

상담 중 유사자폐증이나 어린이 도벽 습관의 원인, 성격유형 등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후에 부모들의 이해가 되었을 때 돌아온 피드백(feedback)은 많은 힘이 되기도 했다. 한 예로 반성희(가명)라는 7세 여자 아이는 그림을 통해 아이가 도벽증세가 있음을 확인했고,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었을 때, 부모는 지금까지 몇 차례 없어졌던 돈을 그 아이 오빠의 짓으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 상담의 결과 알게 된 정보로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알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오빠의 문제도 예방

되었다.

사실 아이들의 경우 심한 결과를 얻기 전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린이 상담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상담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찾아오는 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자녀교육의 효과를 높여 좋은 대학에 보낼까가 전부였다. 그러나 점차 아동상담소의 결과들이 좋은 소문을 일으켜 현재는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나 이상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비기독교인의 내방도 25퍼센트 이상으로 처음보다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 4. 주말 방과 후 교실

##### 가. 목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가르친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듯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과 이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사회 가운데 소외된 장애인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저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교회가 주어,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 나. 운영방법

주말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2시부터 장애아동들을 포함한 아동들을 위한 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에 맞게 조직하고 운영된다.

##### (1) 찬양과 율동 교실

이 프로그램은 찬양과 수화에 가까운 율동을 배우게 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찬양의 자세는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익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

다. 이 교실에 구성된 아이들은 역통합을 하고 있다. 일반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적정 구성 아이의 수를 10-15명으로 하고 있다. 담당하는 교사는 주로 주일학교와 사랑부 교사들 중 춤에 은사가 있는 자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무용을 전공한 평신도 2인이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를 맡아 정해진 시간에 투입되어 아이들의 실증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4-6월과 9-11월로 하고 있다. 매주 이루어지며, 아동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율동은 장애아동들의 굳은 대근육과 소근육을 운동시키는 효과도 있다. 율동을 할 경우 찬양 가사의 의미를 강화시켜 이해와 기억을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무용전공의 교사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발레를 배우듯 교습하고 있다.

이 반을 운영하기 위해 교회 식당 방을 이용하는데 좌식으로 식당을 개조하고, 여기에 대형 거울을 부착하여 자신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음향환경을 배려했다. 그 결과 요즘은 청소년부까지 이 반을 참여하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노래방'이라는 위락공간이 지역마다 편만해 있다. 몇 해 전에 대형화재로 많은 청소년들이 인명피해를 받았는데, '노래방'에 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 그곳에 음집 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오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특히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교회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 조금만 투자해 준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미리 주일에 부를 찬송들을 가르침으로 더 많은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2) 미술(조작, 작업)교실

미술수업은 조작을 이용한 근육발달과 정서의 매력을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심리적으로는 재미있는 치료적 분위기를 제공하고 자기의 작품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는 것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수업의 흥미를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기 수업과 만들기, 조형활동 등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의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내어 기꺼이 미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색채교육과 선, 면을 이용한 작업, 찰흙, 점토, 접기, 쌓기 등으로 구성되어 불편한 심리장애를 먼저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6월과 9-11월로 학기중에 이루어 졌다. 매주 참여 학생은 5-7명으로 반수씩 통합되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도교수 1명과 학부에 미술을 전공한 교사 2명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1명이 함께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섞인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정된 형태는 아니라 매주 참여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간혹 작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아동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만족한 경험을 할 수가 있으므로 미술을 좋아했다. 미술은 특히 자신의 장애로 인해 놀이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게 있어서의 미술활동은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주며 환상 및 상상놀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효과를 주었다.

### (3) 점자 교실

전문적으로 점자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점자가 무엇이고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이다. 사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점자판을 사용하여 종이에 점자를 쓰는 표기방식은 점자의 단점과 제한점에 의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요즘 개발되어 점차 보급되고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라는 것을 통해 점자를 읽고 쓰게 될 것이며 컴퓨터와의 연동이 중요시 될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점자 사용 양식을 익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의 점자 사용의 발전 방향에 맞는 점자에 대한 교양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강의로 구성하게 되었다. 강사 및 구성원은 시각장애인 조현무 전도사와 청년 형제 이경운 그리고 비장애인 교사 1명이 교사와 학습자는 통합된 아동과 청소년들로 8-10명으로 이루어져 5주 단위<sup>366)</sup>로 주마다 5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준비 사항은 점자판 관련 도구, 한글점자 일람표, 컴퓨터와 점자 프린터기 및 점자정보 단말기 등이다.

366) 점자 커리큘럼은 시각장애인 교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진행 중인 것이다. 부록 4 참조.

5주 프로그램을 통해 점자를 숙지할 수는 없다. 단지 점자교실을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점자를 읽히는 기초 능력을 줄 수 있고, 결국 통합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기 위한 일이다. 예배 시 점자성경이나 점자찬송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달라져, 무관심했던 자들이 그날 설교 본문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된 성경을 찾아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게 되었다.

#### (4) 시각장애자용 컴퓨터 교실

시각 장애인이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컴퓨터 다루는 능력을 키워줌으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적응케 하며, 앞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아동에게는 일반아동들과 같이 컴퓨터를 통해 동등하게 살아가게 하며, 앞으로 교육의 과정 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일로 교육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빛진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시각장애인 본 연구자의 전도사와 우석대학교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형제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고, 저들이 학교에서 장애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은사를 활용한 것이다. 대상은 시각장애의 등급 중 전맹(totally blind)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다. 강의를 위한 컴퓨터 환경은 첫째, 강의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스크린리더'가 설치되기에 적당한 사양이어야 하며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XP가 아니라면 사운드카드를 두개의 소리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다중채널'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바탕 화면은 '메모장' 바로가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아이콘으로 인한 학습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아이콘만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내 컴퓨터'의 모든 폴더에 대하여 보기 메뉴에서 '자세히'와 '폴더 옵션'의 '같은 창에서 열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웹페이지 형식으로'는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본 교회 출석중인 시각장애인 교사가 시각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실로 9주 교육을 기본 코스로 짜여졌다. 물론 매주 이루어지나 개인적이다. 수강자가 나타날 때, 교회나 아니면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sup>367)</sup>은 완전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든 처음 시각장애인용 컴퓨

터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데 까지 구성된 것이다. 실제로 이 도균이라는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중도에 당한 시각장애로 스스로 격리된 삶을 주로 살았다. 본 교회 사랑부에 이 소식이 전해져 시각장애인 이경훈 형제가 파송되고, 이 아이만한 때에 좋아하는 컴퓨터를 시각장애자용 컴퓨터로 교육하였다. 결과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던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열매도 맺게 되었다.

#### (5) 수화 교실

아직까지는 사랑부 아동들 가운데는 청각장애아동이 없지만 수화교육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남향숙의 연구 결과에 보면, 수화활동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의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수용성 태도 변화는 일탈행위 반응이나, 경도 일탈행위 반응에서보다는 사회적 접촉 요인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수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들은 장애인을 더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수화활동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의 활동선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화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은 장애 학생과의 활동 중 학교 내 생활과 학교 밖 생활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 안팎 모든 영역에서 장애 학생과 더 함께 활동하고 싶은 것으로 통합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늘이는데 효과적이다.<sup>367)</sup>

10회 동안 교회에서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 학생들, 대학생, 주일학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1월-3월과 7월-9월, 1년에 두 번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실용적인 수화를 통한 대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사랑부에 대한 교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10회 동안<sup>368)</sup>은 청각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간단한 수화를 배우게 되고, 시간은 40분 정도로 한다. 10회 만으로는 체계적인 수화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초급에서 중급의 수준인 수화교실을 만들어 심화시킬 계획이다.

367) 시각장애인용 컴퓨터교육의 요약된 커리큘럼은 부록 5 참조. 이 커리큘럼은 시각장애인 형제가 직접 만들어 진행해 온 것이다.

368) 남향숙, “수화활동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34-35.

369) 수화를 위한 커리큘럼은 부록 6 참조.

본 교회는 사랑부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에서도 많은 장애우들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장애우들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사랑부 교사만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한다. 일반성도들끼리 수화로 인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농아인이 교회에 와도 편안하겠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고, 찬양과 율동에 자주 수화가 등장하는 보다 일상화된 효과를 보았다.

#### (6) 이미용 및 목욕하기 프로그램

본 연구자의 교회가 위치한 곳은 뚜렷한 주된 생업이 없는 애매한 지역이다. 농업도 아니고 상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결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더구나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 가정은 경제적으로 더 빈곤한 편이다. 그러다보니 이 아이들의 용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목욕은 서로가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 장애아동들에게는 늘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 운동부족도 있지만 불안도 있다. 특히 시각장애아동은 경직이 강하다. 이런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목욕이다.

사랑부 교사 중 형제 4명과 자매 2명의 교사팀과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용으로는 교회 집사님들 중 미용실을 경영하는 3명의 미용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6시에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 없이 계속하고 있다.

당연히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 부모들이 먼저 효과를 받는다. 머리를 깎거나 목욕을 한 후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신선하다. 그것을 가장 빨리 느끼는 자는 부모이다. 교회와 선교에 마음을 활짝 열어 준다. 또한 장애아동들의 꺼진 외모나 경직된 근육이나 긴장된 상태가 많이 완화되는 것을 느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아동들이 호기심으로 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을 역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만 출석하는 장애아동들이 3-4명 정도 된다. 이들 역시 언젠가는 주일학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기관인 읍사무소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에 좋은 소문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 (7) 나드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이 반복된 자기 생활영역 외에는 경험이 부족하여 쉽게 길을 잃고, 집에서 무의식 가운데 조금 멀리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사랑부 교사 3명과 운전 봉사자 1명 그리고 청년부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되며 참여하는 아동은 대체로 교육목표가 자유로운 이 프로그램 외에 주말방과 후 교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마친 자를 2단계 대상으로 하여 주말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4-6월과 9-11월 기간 중 주말 오후 2-6시까지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4주	도보로 평소 이동 범위 벗어나기
2단계	4주	차량을 이용한 1단계보다 좀더 벗어나기
3단계	4주	지역 문화재나 관광지, 관공서 방문
4단계	4주	장보기 훈련(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
5단계	4주	대중교통을 이용한 목적지 집결하기
6단계	2회	캠프 가기(1회째/ 가족과 함께, 2회째/ 통합)

<표

#### 11> 나드리 프로그램 커리큘럼

여러 장애나 문제를 지닌 아동들이 독립하는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많은 자립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 다. 주말 방과 후 교실 운영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00년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표본조사결과 추정장애인 수는 145만 명으로 전국민의 3.09퍼센트다. 선진국 장애인 출현율, 미국이 15.1퍼센트, 독일이 8.7퍼센트 등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를 가지고 있다. 통계의 변수는 제 3 장장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장애인 출현율을 WHO가 발표

한 10퍼센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400만 명이 넘으리라 추정된다<sup>370)</sup>. 100만~400만이라는 수는 엄청난 숫자임에 틀림없다.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복음화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 10퍼센트 미만이며, 정신지체인의 경우 5퍼센트 미만임이 밝혀졌다.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로 잡고, 총 기독교 신자수 대비 장애인 기독교 신자를 볼 때 천 명당 3, 4명꼴이다.<sup>371)</sup> 그러나 오늘 교회를 보면 장애인 기독교신자수의 통계가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는 마치 건강한 비장애인만을 위한 전유물처럼 꾸며져 있다. 입구부터 높고 가파른 계단이 교회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듯 장애인들을 막고 있다. 물리적 환경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그만큼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게토(ghetto)와 같이 좀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많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10퍼센트 가량이 더 많이 살고 있다.<sup>372)</sup> 그러나 모든 시설과 그것들을 위한 경제의 집중은 도시에 모인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 환경을 말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 주어진 환경과 가능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선교정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앞에서 보았던 주말 방과 후 여러 프로그램들은 교회가 건물의 큰 구조적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모두 중단하고 모든 재정을 몰아 장애인이나 장애아동, 본 교회의 경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인 정신지체장애아동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코 ‘부익부, 빈익빈’의 변명이 필요치 않다. 교회 안에 있었으나 잠자는 상태에 있던 것들과 은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선교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일반인인 나와 같이 배려해 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장애인들

370)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장애인 제현황과 현실 복지를 위한 대책 (서울: 새보람, 1992), 10.

37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장애인선교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보고서, 참조.

372) 이진형, “장애자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3), 17.

이 덜 가진 그것을 조금 더 나누면 된다. 교회가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좀더 연구하고, 장애아동들, 특히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정책을 세워가야 한다. 지금의 좋은 반응은 지역에 본 연구자의 교회 외에는 장애인부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예 진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소한 일반아동들을 위한 연구만큼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힘을 들여야 할 것이다.

## 5. 사랑부 교사 계속교육 프로그램

### 가. 목적

사랑부 교사는 다른 주일학교와 다르게 장애아동들을 섬기는 교사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특수교육 관련된 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과 특히나 장애인에 관련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부 교사가 되기 이전에 일정 교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기 전 교육기간을 고려해 사랑부 교사를 임명하고,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 나. 교육 내용<sup>373)</sup>

교육 내용은 제1주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제2주 장애인과 교회의 책임, 제3주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 제4주 교회와 장애인 선교, 제5주 사랑부 예배와 심방, 제6주 사랑부 문서작성요령이다.

### 다. 교육 결과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는 보통 장애인을 독립된 부서를 두

373)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커리큘럼은 부록 7 참조.

고 관리 및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더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해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구원의 대상보다는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가 제일 크며, 다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본 교회의 사랑부 교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평소 장애인과의 연관이 없던 삶을 살았어도, 그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로 그들을 위한 교육에 놓여 있었던 무지의 두려움을 허물어 준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교사 모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모든 성도가 다 이들의 교사인 듯 하다. 장년부에서도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서먹하게 무관심하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능숙하게 장애인들을 위해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전 교회에 장애인을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분위기를 세워주는 것 같다.



## 제 7 장

## 결 론

한국 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 그리고 갱신에 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모든 문제의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교회 갱신의 흐름이 21세기를 목회하는 본 연구자에게도 항상 새로운 과제와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수년간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한국 사회의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고민과 사역의 투쟁을 한 결과 선교 사역 특별히 교회를 통한 장애인 선교에 사역의 모든 초점을 두고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이런 사역의 결과에 대한 결과이자 보고서이다. 본 연구자는 첫째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소개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어떻게 장애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서 이해해야 하는지를 언급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었는지 한국과 서양을 구분으로 세밀하게 소개했다. 장애인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위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얻었다.

둘째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주력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소외되고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보살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교회의 많은 시설과 교육 그리고 예배 등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새롭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는 당위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새롭게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셋째로, 본 연구자는 장애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역을 실시한 대상인 정신지체아동들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논했다. 정신지체 아동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지를 언급했다.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류 그리고 왜 그런 정신 지체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아울러 이런 정신 지체 아동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부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함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교회 교육의 시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적과 원리를 세워야하며, 교육의 다양한 환경 개선과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해야 함을 피력했다. 본 연구자는 이런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제시했다. 통합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보다 건전한 공동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아동들의 삶의 회복이 가능하고 현실로 드러나는 많은 열매를 경험했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Living Church의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회교육 및 사회봉사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개했다. 본 연구자의 교회가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해서 설립한 사랑부와 지역장애인을 위한 옥합선교회 그리고 주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선교원, 교육원 등의 봉사프로그램 및 상담실 등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기구들이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Living Church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선교 실천과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강화되고 적극적인 지역 사회 선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 방향과 예산 집행을 장애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임을 드러내고,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많은 인력 개발과 자원 활용에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자 한다. 이런 사역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소리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 부록 1

Living Church의 선교원 상담일지

년 월 일

아이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특이사항: 장애 (유, 무)	장애유형(정신지체, 청각, 시각, 지체, 학습, 정서 및 행동, 의사소통)
이전에 다닌 시설:	옮긴 이유:
상담내용: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부모의 평가(본 시설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아동만), 처음상태:X   지금상태:O	
1.표현하기 (잘함, 중간, 못함)	2.학습하기(잘함, 중간, 못함)
3.대소변 가리기(잘함, 중간, 못함)	4.질서지키기(잘함, 중간, 못함)
5.스스로하기(잘함, 중간, 못함)	6.예절지키기(잘함, 중간, 못함)
7.양보하기 (잘함, 중간, 못함)	8.협력하기 (잘함, 중간, 못함)
건의사항:	

## 부록 2

## 2003년 장애아동부모 상담 결과

## 선교원 오기 전

항 목	잘함	중간	못함
표현하기	0	0	3
학습하기	0	0	3
대소변기리기	0	3	0
질서지키기	0	1	2
스스로하기	0	0	3
예절지키기	1	1	1
양보하기	0	1	0
협력하기	0	1	2

## 선교원 6개월 이상 출석 후

항 목	잘함	중간	못함
표현하기	3	0	0
학습하기	3	0	0
대소변기리기	3	0	0
질서지키기	2	1	0
스스로하기	2	1	0
예절지키기	3	0	0
양보하기	2	1	0
협력하기	3	0	0

## 부록 3

## 아동치료교사 교육원 교재

## ■ 아동미술치료

아동미술 심리이해 / Cathy A. Malchiodi 지음, 김동연 외 공역 / 학지사 발행

## 교재의 내용

우리는 고립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교육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미술치료도 그 가운데 하나의 기법이며 아동의 그림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관계나 성장배경, 현재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아동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미술표현이 정서적 혼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성공적인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많은 인간적 만족을 했다는 연구 결과를 모태로 한 교재의 전문성을 선택하였다. 본 교재는 아동그림에 대한 역사적 관점, 아동그림의 내용, 그림을 통한 아동 심리치료, 아동미술의 발달적 측면, 아동미술의 정서적 측면, 아동미술의 대인상호관계적 측면, 아동그림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 뇌 구조학

교재 : 뇌내혁명 / 하루야마 시게오 지음, 반광식 역 / 사람과 책 발행

## ■ 색채심리학

교재 : 색채 심리학 / 노무라 준이찌 지음, 김미지자 역 / 혜음사 발행

## 교재의 내용

아동의 그림 속에서 색채의 선택은 생리적 조건, 심리적 감정과 정서를 표출, 반영하는 것이다. 색채를 감정 표현의 언어로 사용하며 사실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한다. 본 교재는 아동들의 심리에 따른 색채의 분석과 여러 학자들이 발표한 색채 감정을 근거로 개괄해 놓은 것으로서, 각 색채별 심리 특징과 묘화의 상징적 의미와 진단, 사물의 형태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진단에서의 유의점을 비롯

하여 표현방법에 따른 인성변화를 다룬 교재이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본 아동화의 색채, 어린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과 진단, 묘화의 분석기준, 자유화의 분석기준, 기타 형태의 의미 등을 내용으로 꾸몄다.

#### ■ 아동 미술론

교재 : 아동미술론 / 김춘일 지음 / 미진사 발행

#### ■ 아동정신 건강

교재 : 아동정신 건강 /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공저 / 정민사 발행

교재의 내용

본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의 심리 정신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돕고자 아동심리 또는 아동, 유아교육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책의 구성은 아동정신 건강의 기초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그에 관련된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문제 유형들을 제시 설명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성격 발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문제를 다루었으며, 아동기에 발견되는 몇 가지 장애의 유형을 설명하였다. 아동의 정신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의 제 방법들을 다루고 궁극적인 아동복지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 ■ 아동 발달

교재 : 아동 발달 / 유효순 지음 / 창지사 발행

교재의 내용/ 발달 이론, 성숙이론, 태내 발달과 출산, 신체 및 운동발달, 지각 및 기억발달, 아동의 사회성 행동발달,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자폐증과 소아 정신분열증, 특수 아동.

#### ■ 아동 심리측정

교재 : 아동 심리측정 / 임창재 지음 / 학문사 발행

교재의 내용

아동의 특성 중 하나는 아동의 개인차에 맞게 수업을 개별화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 아동의 개인차에 적절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동은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성취감은 다음의

학습활동에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교재는 아동의 개인차를 파악하여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심리측정에 관한 이론의 이해와 여러 심리검사 도구의 내용과 실시방법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심리검사에 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리측정의 대상 및 측정방법, 심리측정의 구비요건, 심리검사 이해를 위한 통계, 각 지능검사의 구성 내용, 성격검사, 준비도 검사, 발달측정, 창의성검사 등을 비롯하여 심리검사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있게 다루어진 교재라고 할 수 있다.

## 부록 4

## 점자교실 커리큘럼

## 1주: 오리엔테이션 1(점자의 개괄적인 소개)

학습 목표: 점자의 유래, 발전 과정, 현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동향 등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

## 학습 내용:

1. 점자가 어떤 필요와 누구에 의하여 언제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변화하였는지 등을 설명한다.
2. 최근 컴퓨터의 도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점자 사용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의: 위의 강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 하며 아직 점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그림이나 야화 등을 이용하여 너무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인 강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주: 오리엔테이션(점자 사용의 소개)

학습 목표: 점자라는 문자 표현 방식의 개념, 점자판을 이용한 초기 형태의 점자 표현 양식, 점자를 읽는 방법, 점자의 단점과 제한, 최근의 점역소프트웨어와 점자사용 방식의 동향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일반 문자를 어떻게 점자라고 불리는 문자로 표현하는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용 예를 보여준다.
2. 점자를 어떻게 읽고 일반적인 점자표현 도구를 설명하고 점자가 사용되는 실례를 보여준다.
3. 일반 문자를 점자로 표현하고 사용할 때의 단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례를 보여준다.
4.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점역 소프트웨어와 점자프린터기 및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점자사용 양식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 3주: 점자사용의 실제 1

학습 목표: 점자 일람표와 점자판을 이용하여 한글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정자의 한글점자로 표현하고 정자의 한글점자로 표현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 학습 내용

1. 수강자들과 함께 점자 일람표를 보며 일반 한글이 어떻게 정자의 한글점자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본다.

2. 두세 개의 조를 구성하고 점자일람표로부터 읽힌 정자의 한글점자를 사용하여 간단한 정자의 한글점자문서를 점자판으로 작성해보고 조별내의 개인끼리 또는 조별로 그 문서들을 교환하여 보면서 문서 작성시의 에러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는 실습을 하고 강의자는 각 조 또는 각 수강자의 작성한 문서에 대해 조언을 한다.

### 4주: 점자 사용의 실제 2

학습 목표: 약자의 개념과 점자 일람표와 점자판을 이용하여 한글로 표현되는 내용을 한글점자로 표현할 수 있다.

#### 학습 목표

1. 점자의 단점과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약자라는 표현방식이 사용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점자 일람표를 보면서 여러가지의 약자 표현의 규칙과 약자를 익힌다.

2. 점자 일람표와 점자판을 이용하여 한글점자문서를 작성해 보고 조별내의 개인끼리 또는 조별로 교환하여 보며 작성시의 오류나 에러에 대해 지적하고 강의자는 필요시에 각 조 또는 각 수강자들에게 조언한다.

### 5주: 점자문서의 인쇄를 위한 컴퓨터 입력 규칙의 기본

학습 목표: 왜 컴퓨터 입력 규칙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입력 규칙을 알 수 있다.

#### 학습 내용

1. 왜 점역문서의 인쇄를 위해 컴퓨터 입력 규칙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점자 문서서식과 일반 문서서식의 차이를 설명한다.

2.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컴퓨터 입력 규칙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3. 직접 컴퓨터 입력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점자문서를 인쇄해 보고 촉각을 이용한 인쇄물의 점독시의 편리성을 확인하는 실습을 한다.

## 부록 5

## 시각장애용 컴퓨터 교육을 위한 요약된 커리큘럼

## ■ 1주: 컴퓨터생활의 개론

■ 학습 목표: 컴퓨터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학습내용: 시각장애인이 학습 및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재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컴퓨터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 그리고 기본 상식에 대해 설명한다.

■ 주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심화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 2주: 컴퓨터 오리엔테이션 1

■ 학습 목표: 컴퓨터의 외부 모형과 각부분의 명칭 및 이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알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컴퓨터의 본체와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스피커 등 주변기기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모양 등을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2. 본체에서의 전원버튼, 리셋버튼,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등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본체 뒷면의 각종 연결 단자와 장치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3.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 등의 각 장치에 대해 각 버튼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간략한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4. 컴퓨터에 관련된 주변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 강의자는 말로만 관련 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되고 각종 부분의 위치와 명칭을 설명할때에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모양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손으로 만져 보면서 각 부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실질적

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컴퓨터생활을 해 가는데 이 주의 학습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수업이 되도록 한다.

### 3주: 컴퓨터 오리엔테이션 2

■ 학습 목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케이블의 착탈과 각종 디스크를 넣고 빼는 등의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키보드 입력을 위한 기본자세를 설명하고 함께 자세를 취해본다.
2. 각종 케이블과 연결 단자의 상세한 모양과 관련 부분의 명칭을 설명하고 직접 손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3. 각종 케이블을 해당 연결 단자에 착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강의자의 보조 하에 실습한다.
4. 플로피 디스크나 씨디의 모양, 사용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당 드라이브에 넣고 빼는지 설명한 후 강의자의 보조 하에 실습한다.

### 4주: 자판익히기

■ 학습 목표: 개괄적인 자판의 구분과 한글, 영문, 숫자, 각종 구두점 및 기능키에 대한 위치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자판의 구분 즉 실제적인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 숫자 판, 방향키, 기능키 6키로 구성된 부분, 3키로 구성된 부분을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2. 자판 구분에 대한 심화설명 즉 각키의 명칭과 기능 및 사용 예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보인다.
3. 한글, 숫자, 영문, 각종 구두점 및 기호 등의 위치를 설명하고 학습자가 직접 확인하여 암기하도록 한다.

#### ■ 주의

1. 학습자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 제어를 키보드를 통하

여 해야만 하므로 키보드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아직 학습자가 컴퓨터에 대해 능숙하게 아는 단계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기능을 하는 키에 대하여 긴 시간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3. 자판의 각 키에 대한 기능 설명은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할 때 심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키를 익히는데 있어 메모장이나 간단한 에디터를 띄어 놓고 사용자가 직접 키를 눌러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5주: 컴퓨터의 기본 제어 1

■ 학습 목표: 윈도우의 시작과 종료 및 각종 이동 그리고 바탕화면, 시작메뉴, 상황에 맞는 메뉴의 개념과 기능을 알 수 있고 창의 개념과 창간의 이동 그리고 창을 닫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컴퓨터를 켜서 윈도우를 시작하는 방법과 어떤 과정을 거쳐 윈도우가 부팅 되는지를 설명하고 직접 학습자와 함께 부팅 시 발생하는 각종 소리 즉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나 플로피가 구동되는 소리 및 윈도우 로고음향 등을 확인하여 학습자 스스로 현재 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부팅 순서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실습한다.

2. 윈도우가 부팅 된 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바탕화면의 개념과 구성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의 용도를 설명하되 기본적인 것들(내 컴퓨터, 내문서, 휴지통)만 설명하고 응용프로그램들의 바로가기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3. 시작메뉴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설명하되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4. 각 메뉴항목에 대한 상황에 맞는 메뉴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5. 윈도우즈에서 메뉴항목간의 여러 가지 이동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접 실습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탕화면이나 시작메뉴 그리고 상황에 맞는 메뉴의 각 메뉴항목

을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6. 바탕 화면으로 바로 가는 키나 창간 이동키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7. 창을 닫는 방법과 윈도우즈를 종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 6주 컴퓨터의 기본 제어 2

■ 학습 목표: 내 컴퓨터를 실행하는 방법과 폴더 및 파일 목록에서의 항목 간 이동, 하위폴더로의 진입과 상위 폴더로의 이동, 실행 파일을 실행하거나 문서를 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어느 창에 있든지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여 내 컴퓨터를 찾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2. 트리구조의 폴더관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하위폴더로 진입하고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3. 폴더나 파일 목록에서 방향키나 홈 또는 엔터키 그리고 페이지 업 또는 페이지 다운키를 사용한 이동 방법과 철자 입력을 통한 특정 항목으로의 빠른 이동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습한다.
4.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확장자 연결 기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문서를 열거나 실행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 7주: 컴퓨터 기본 제어 3

■ 학습 목표: 한개 또는 여러 개의 파일 및 폴더의 선택, 복사, 이동, 삭제, 붙여넣기 등의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한개 또는 여러 개의 폴더 및 파일을 선택하는 기능의 개념과 연속 블록 지정을 통한 파일 선택 방법과 연속되지 않은 파일 및 폴더의 선택 방법 그리고 전체 선택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2. 파일 및 폴더의 복사나 이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선택된 파일 또는 폴더의 이동 또는 복사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3. 선택된 파일 또는 폴더의 삭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삭제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4. 선택된 파일의 복사나 이동 후 붙여넣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붙여넣기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 8주: 메모장 사용하기 1

■ 학습 목표: 메모장의 실행과 종료, 자유로운 글자입력, 커서 이동 기능을 통한 수정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 학습 내용

1. 바탕화면의 메모장 바로가기를 찾아 메모장을 실행하고 창 종료키를 이용하여 메모장을 종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2. 지난 강의에서 암기한 한글, 영문, 숫자 및 구두점의 위치를 복습하고 간단한 글을 작성해 보고 강의자는 보조한다.

3. 커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글자, 단어, 줄, 페이지의 이동과 줄, 문서의 처음 또는 끝으로의 이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4. 백 스페이스와 델리트 키의 기능 및 차이를 설명하고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여 커서 이동 기능을 이용한 문서 수정 실습을 강의자의 보조 하에 한다.

■주의: 커서 이동을 설명할 때 말로만 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손끝을 화면의 커서 이동에 맞추어 이동하면서 실제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9주: 메모장 사용하기 2

■ 학습 목표: 블록 지정과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삭제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문서의 열기,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연속 블록 지정과 전체 선택 기능을 통한 블록 지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2. 블록으로 지정된 영역의 복사, 잘라내기, 삭제의 기능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3. 블록으로 지정되어 복사 또는 잘라내기 된 영역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설명

하고 커서 이동 기능을 이용한 실제적인 문서 수정 방법을 실습한다.

5. 열기,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의 각 개념과 차이 그리고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 부록 6

## 수화교실 커리큘럼

- 1회 : 오리엔테이션, 지화와 숫자
- 2회 : 인사
- 3회 : 가족
- 4회 : 학교, 동요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수화노래
- 5회 : 요일과 시제
- 6회 : 날씨와 자연
- 7회 : 음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수화찬양
- 8회 : 교통
- 9회 : 종교
- 10회 : 흔히 쓰이는 단어들
- 11회 : 수화교실 마치는 소감과 간단한 시험



## 부록 7

## 사랑부교사 계속 교육 커리큘럼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1주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1. 구약의 율법과 장애와의 관계

1) 율법은 삶이다.(출19:5-25) / 삶의 이탈에 대한 응징으로의 장애

2) 율법은 '정결법'이다.(레11장-15장) / 정결법의 이탈로 인한 병으로의 장애

3) 율법은 완전한 사회복지제도이다.(레19:9-18, 신15장) / 하나님 나라에 포함 된 장애인

2. 신약의 새언약과 장애와의 관계

1) 새언약의 완성을 위한 장애인(마5장, 눅14:13) / 하나님 나라의 삶에 완성을 위한 장애인

2) 차별이 아닌 차이의 개념으로 본 장애인(요9장) / 치유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회복을 위한 장애인

3) 구제가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의 장애인(마28:16-20, 막16:14-18, 눅24:36-49, 요20:19-23, 행1:6-8) / 복음 앞에 평등한 장애인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2주

장애인과 교회의 책임

### 1. 갇지 않으면 안 될 부채(롬1:14)

1) '강자의 논리'에 의해 구축되어져 있는 교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창4장)

2) 인간창조와 '완전'의 의미(사35장 5-6절, 계21장1-4절, 4복음서)

### 2. 강자 사회와 장애인 문제

1)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2) 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사회(고전12:24,25)

### 3.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

1) 장애인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모습(눅7:36)

2)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일(마15:37, 막8:8)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3주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

1. 한국문화와 장애인

1)가족중심주의

2)서열문화

3)체면의식

2. 한국에서의 장애인

1)가정에서

(1)장애인 가정의 고통

(2)장애인의 결혼

2)교회 안에서

(1)교회와 장애인 선교

(2)교회의 시설

(3)장애인 교회

3)사회 안에서

(1)장애인에 대한 인식

(2)장애인 실태

###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1)가정에서

2)교회 안에서

3)교회의 책임

4)교회의 할 일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4주

교회와 장애인 선교

#### 1. 장애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애인에 대한 오류된 시각

2)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3)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 2. 한국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1)한국교회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

2)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3. 교회학교 장애인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1)현 교회 학교 장애인 부서의 현황과 특징

2)각 교회 장애인 부서의 모델들

(1) 서울 사랑의 교회

(2) 인천 연수제일교회

(3) Living Church

3)Living Church 장애인 부서의 나아갈 방향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5주

사랑부 예배와 심방

### 1. 예배 전 활동

1)심방하기

2)교사회

3)물리적 환경 체크

4)아이들 맞이하기

## 2. 예배활동

1)찬송

2)기도

3)설교

4)헌금

## 3. 예배 후 활동

1)공과공부

2)연결활동

3)간식

4)귀가지도

## 4. 심방지침

사랑부교사 계속교육 제6주

사랑부 문서작성요령

● 개별화 프로그램 계획 ●

첫 번째 : 아동 신상 정보 기록

이름		생년월일		나이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신 급	<input type="checkbox"/> 유아세례			학교	학교 학년 반		
교회등록 일		혈액형		인도자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input type="checkbox"/> 정신지체 <input type="checkbox"/> 자폐 <input type="checkbox"/> 정서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학습장애			발생시기			
장애원인	<input type="checkbox"/> 염색체 이상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과 관련된 요인 <input type="checkbox"/> 외상이나 물리적 요인 <input type="checkbox"/> 대사 및 영양결핍 <input type="checkbox"/> 임신장애와 관련된 요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후 뇌질환 <input type="checkbox"/> 출생전 원인미상 <input type="checkbox"/> 감염과 증독에 의한 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생 시 원인미상 <input type="checkbox"/> 출생 후 원인미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장애등급	급 호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교육가능급 <input type="checkbox"/> 훈련가능급 <input type="checkbox"/> 요보호급				
중복장애 비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정서장애 <input type="checkbox"/> 뇌성마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등록카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병 력		병 명		치료사항			
보 장 구	<input type="checkbox"/> 의수족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휠지팡이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필요사항 단	<input type="checkbox"/> 생활비보조 <input type="checkbox"/> 취업 <input type="checkbox"/> 물리, 작업치료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의료진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일반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수용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조기교육 <input type="checkbox"/> 없다						
공적 부조	<input type="checkbox"/> 거택보호 <input type="checkbox"/> 자활보호 <input type="checkbox"/> 의료보호			사 적 부 조	<input type="checkbox"/> 복지단체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input type="checkbox"/> 결연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허가주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담당교사		지도후원 자		교통 수단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교회버스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현황	교육내용		교육기관		기관 전화번호		



가 족 관 계						
관계	이름	나 이	학 력	직장/학교	종 교	생년월일
교 육 경 력	학교이름	과정	졸업년도	학교이름	과정	졸업년도
구분 영역	입학시 발달상태			입학 후 발달상황		
				_____년		
신체발달						
신변처리						
사회정서						
언어						
인지						
운동성						

## 두 번째: 개별화 교육계획의 현재수준 및 교육목표

현재수준	교회생활	찬양	
		기도	
		설교	
		헌금	
	학습생활	공과 공부	
		연결 활동	
	일상생활	식사	
		용변	
		착탈의	
	사회생활	사회성	
		부적응 행동	

교육목표	교회생활	찬양	
		기도	
		설교	
		헌금	
	학습생활	공과 공부	
		연결 활동	
	일상생활	식사	
		용변	
		착탈의	
	사회생활	사회성	
		부적응 행동	

## 세 번째 : 교수(상호작용) 시 고려사항

선행조건	반응	결과

활동과정의 변경(수정):

- ① 선행조건: 조건, 상황 혹은 지원 정도(목표반응을 끌어내거나 촉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서 또는 모델과 같은)를 상세히 기술한다.
- ② 반응: 프로그램 활동에서 다루어질 아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결과: 아동의 반응에 따라오는 논리적인 사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④ 활동과정의 변경(수정): 아동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교육적 및 치료적 지원을 밝힌다.

네 번째: 평가 및 사례연구

【 사 례 연 구 】

아동명		담당교사		일정기간	
선정한 이유					
목표행동					
관찰 및 활동과정					
결과					

이 름		소 속	부 학년 반	전화번호	
주 소				등록일	
담 임		출석일 수	/52주	출석등급	
출석등 급	A      B      C      D (결석횟수 3회 이내 : A 6회 이내: B 9회 미만: C 9회 이상 : D)				
교회생 활	◆ 예 배: ◆ 개인경건: ◆ 영적발달:				
가정상 황	◆ 신앙정도: ◆ 경 제 력: ◆ 상호관계:				
학 교	◆ 성 적: ◆ 친 구: ◆ 고민사항:				
성 격	◆ 단 점: ◆ 장 점: ◆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lt;차년도 교사를 위한 제언&gt;</p> <p>◆ 도움을 주어야 할 사항:</p> <p>◆ 관심있게 지도했던 사항:</p> <p>◆ 기 타:</p>					



## 여섯 번째: 주일학교 활동 계획과 결과 및 평가

아 동 명		담당교사		날짜	
계 획 및 결 과	찬 양				
	기 도				
	설 교				
	헌 금				
	공 과 공 부				
	연 결 활 동				
	마 침				
평 가	*전반적인 평가*          *느낀 점*				
결석시	사 유			대 처	



## 참고문헌

## 1. 국내 서적

- 구본권 외, 특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권도용 외, 현대 장애인 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1997.
- 권오용, "장애우의 개념과 분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장애우 대학 자료집, 1993.
- 김대환, 한국인의 자기 발견, 서울: 김영사, 1994.
- 김두영, "교회 찾아 만리 길," 월간 밀알보, 1991년 7월호.
-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85.
- 김상구, 일상생활과 축제로서의 예배, 서울: 이레서원, 2002.
-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3.
- 김영환 외, 특수교육학 해설, 서울: 학문사, 1986.
- \_\_\_\_\_, 특수아지론, 서울: 학문사, 1986.
- 김일권, 사랑받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 장애인, 서울: 글로리아, 1989.
- 김일태,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정우, "구약율법과 신약윤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1991 봄).
- 김종인, "장애인의 판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 김태길,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11, 서울: 문음사, 1986.
- 김해용, "정신지체아 예배의 실제,"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서울: 한장연, 1998.
- 김홍규, 장애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89.
- 김홍덕 외,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0.
- 남향숙, "수화활동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대한장애인복지회, 선진복지정책, 서울: 대한장애인복지회, 1988.
- 문교부, 특수교육백서, 서울: 동부, 1981.

- 민은식 외, 장애자와 교회, 부산: 도서출판 광야, 1987.
- 민종기, "사회평론," 신앙계, 1999년 6월호.
- 박수암, "신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 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장애인 정책 세미나, 1992년 호.
- 박승희,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1994.
- 박은혜, "장애아동의 개별화 교육," 제2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자료집, 1998년 호.
- 박종삼, "교회의 장애자 선교 방향," 제5차 장애인선교단체 정기총회 자료집, 1989.
- 박준서, "십계명 연구," 제8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목회현장과 성서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88.
- 박천만 외,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자, 서울: 장애자 전도협회, 1989.
- 법제처 편,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38권, 1993.
- 보건사회부 기획실,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과정과 현황, 1993년 4월호.
-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나비, 1989.
- \_\_\_\_\_, 교집어 본 세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0.
- \_\_\_\_\_, 약한 쪽 편들기,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1991.
- 송기태,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송정혁, "청각장애자를 위한 교회교육의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7.
- 송준만 외, 특수아 지도, 서울: 교문사, 1997.
- 안교성, "장애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 교회교육, 1991년 4월호.
- \_\_\_\_\_,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홍성사, 2003.
- 양동춘, "장애아 어린이 캠프," 어린이 교육, 1994년 6월호.
- \_\_\_\_\_,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가, 서울: 예찬사, 1991.
-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6.
-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 윤점룡, "특수교육의 발전전략," 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편, 아태 장애인 10년, 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논문집,

- 1995.
- \_\_\_\_\_, “한국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장애우 대학 자료집, 1994년 호.
-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1996.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1993.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문화, 한국의 문화와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3.
- 이선희, 교회학교 교사교육, 서울: 나침판, 1994.
- 이소현 외, 특수 아동 교육, 서울: 학지사, 2001.
- 이소현, “유치원교사 양성 교수들의 장애유아 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특수교육논총, 1997년 12월호.
- \_\_\_\_\_, “장애 특성별 특수교육적 접근,” 한국 장애인 연합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장연, 1998.
- 이시형, 배짱으로 삼시다, 서울: 집현전, 1993.
- 이익섭 외,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자료집, 1993.
-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 서울: 여수문, 1994.
- 이진형, “장애자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3.
-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5.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1991년 호.
-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서울: 학문사, 1997.
- 정일웅,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말씀사, 1993.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 정형석, 장애아동 교회교육의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1994.
- 조윤경,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1992.
- \_\_\_\_\_, 정신지체인의 특성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장연, 2003.
- 진은현, “통합의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94.
- 차원호,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4.

-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 서울: 지혜문화사, 1986.
- 최래옥, "한국문화와 장애인," 요육대 공개 강좌집, 서울: 베데스다 선교회, 1993.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1991년 호.
- 한국장애인연구소, "아름다운 예배 만들기," 제1회 장애인선교지도자세미나, 서울: 한 장연, 1998.
-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장애인 제현황과 현실 복지를 위한 대책, 서울: 새보, 1992.
- 한성기, 하나님의 가족, 서울: 잠언, 1997.
- 허경삼,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황원영, 특수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2. 번역서적

- Dakashi, Arai, 장애인 문제와 교회의 책임, 박천만 역, 서울: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3.
- Ingalls, Rober P.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김정휘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87.
- Revoier, Predrik, 폭력 없는 탄생, 주정일 역, 서울: 샘터, 1992.
- UN인권위원회 편, 인권과 장애, 이익섭 역, 서울: 한국DPI,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2.
- Webber, Robert E.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Wright, Christopher,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정옥배 역, 서울: IVP, 1990.

## 3. 외국서적

- Bailey, D. B. & P. J. Winton,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s' Expectations about Mainstreaming,"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 7, 1987.
- \_\_\_\_\_, & Wolery, M.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New York: Merrill, 1992.
- Byrne, H. W.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1988.
- Dunn, L. M., ed.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3.

- Foster, C. R. The Faith Community as a Guiding Image for Christian Education,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 Guralnick, M. J. "Social Integration among Preschool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 Psychology 31 (1980)
- \_\_\_\_\_, ed. Early Intervention and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78.
- Hallahan, D. P. & Kauffman, J. M.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4
- Kauffman, J. M.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Boston: Prentice-Hall Inc., 2001.
- Kirk, S. A. & J. G. Gallagher,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3.
- \_\_\_\_\_, and James M. Gallagher,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6.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31.
- McIntosh, R., S. Vaughn, & N. Zaragoza, "A Review of Soci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24.
- Meyen, E. L., G. A. Vergason, & R. J. Whelan, eds. Alternatives for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Denver: Love, 1975.
- Muller-Fahrenholz, Geiko., ed. Faith and Order Paper No. 89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9).
- Newman, Gene and Joni Eareckson Tada, An God's Children: Ministry to the Disabled Michigan: Eerdmans, 1981.
- Neville, Clark, Call to Worship London: SCM Press Ltd., 1960.
- Odom, S. L. & M. A. McEvoy, "Mainstreaming at the Preschool Level: Potential Barriers and Tasks for the Field,"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1990.

- \_\_\_\_\_ & M. B. Karn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an Empirical Base. Baltimore: Paul H. Brookes, 1988.
- Richards, L.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The Zondervan Co., 1978.
- Seguin, Edward. Idiocy and Its Treatment by the Physiological Method. New York: Columbia, 1907.
- Sellin, D. P. Mental Retardation: Nature, Needs, and Advocac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9.
- Shames, G. H. & E. H. Wigg., eds.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 Ohio: Merrill/Macmillan, 1986.
- Smart, James.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 Strain, P., ed. The Utilization of Peers as Behavior Change Agents. New York: Plenum Press, 1981.
- Taylor, M. J., ed.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 Theodore, Mary. The Challenge of the Retarded Child. Milwaukee: Bruce, 1959.
- Turnbull, A. P. & J. B. Schulz. Mainstreaming Handicapped Students. Boston: Allyn & Bacon, 1979.
- Vincent, L. J., L. Brown, & Getz-Sheftel. "Integrating Handicapped and Typical Children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 Definition of Best Educational Practi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81.
- Westerhoff, John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 Wolfensberger, W.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1972.

## VITA of Seung Ryoung Lee

###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Living Presbyterian Church, Jeon-Buk, Korea

### Personal Data:

Birthdate:	Feb. 18, 1963
Marital Status:	Married to Myung Hee Lim with three daughters, Min Jin, Min Yi, and Min Un
Home Address:	#58-4 Samryeup Wanjugun Jeon-Buk, S.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October 15, 1991

### Education:

B. A.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1986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M. Ed	Woo-Suk University, Jeon-Ju, 1993
Th. M.	Chong-Shin University, Seoul, 2002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Personal Experience:

3/1990 to 10/ 1993	Full-Time Minister of Western Samrye Presbyterian Church, Jeon-Ju
1/1994 to 6/1996	Assistant Pastor of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L.A., USA
2/1997 to Present	Senior Pastor of Living Presbyterian Church, Jeon-Buk